세계문화유산
통도사 기념메달
마하몰
www.mahamall.co.kr
에서 만나세요

현대불교

구독 · 후원 상담
02-2004-8212
ARS후원 060-700-1080

1994년 10월 15일 창간 주1회 발행 제1521호 HYUNBULNEWS.COM 2025년 3월 5일(음력 2월 6일) 수요일 / 불기 2569년

무비 스님 가르침 담은 '법의 보배창고' 열린다

〈法寶藏〉

신중일 기자 motp79@hyunbul.com

한국불교 '대강백' 여천 무비 대종사의 모든 저작과 강의 등을 USB(이동식 저장 장치)에 담아 보급하는 디지털 법공양 불사가 펼쳐진다.

무비 스님은 2월 21일 범어사 화엄전에서 진행된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평생 동안 부처님 법을 전하기 위해서 쓴 저서와 강의 등을 모두 데이터베이스(DB)화하고 이를 USB에 담아 대중들에게 무료로 전하는 법공양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무비 스님이 평생에 걸쳐 펼쳐 놓은 교학의 정수들을 담아내는 디지털 법공양 불사에는 범어사 화엄경연구원장 용학 스님이 실무를 맡아 무비 스님의 저서와 강의집, 육성강의, 미디어 인터뷰 등을 정리했다. 무비 스님의 법문 녹음 작업을 맡아왔던 삼영불교음반이 제작을 담당했다.

'법의 보배창고'라는 의미를 담은 '법보장(法寶藏)'이라고 명명된 USB에는 법해(法海)에서 대강백 무비 스님이 길어 올린 부처님 가르침의 정수들과 스님의 발자취가 고스란히 담겼다.



무비 스님의 저작, 육성강의가 전부 담겨 있는 '법보장' USB.

무비 스님 저서, 육성강의 등 USB 모두 수록해 보급 추진

불교박람회서 1만개 법공양

"韓불교 소의경전 다 담겨 法寶藏 100만개 보급 목표"

본지 홈피서도 다운로드 가능

실제 USB에는 △다음 카페 '염화실' 소개 영상 △무비 스님의 사자후-〈화엄경〉 초발심공덕품 영상 강의 △전집 〈화중연화(火中蓮花)〉(PDF) △〈화엄경〉 강설집 전 81권(PDF) △법화경 강의(mp3) △임제록 강의(mp3) △〈화엄경〉 세주묘음품 강의(mp3) △월간 염화실(PDF) △화엄경 기신론 도표자료 등이 수록됐다. 또한 무비 스님의 사진자료인 '포영집'과 〈화엄경〉 강설집과 전집 〈화중연화〉 봉정법회 영상과 BBS불교방송·BTN불교TV 인터뷰 영상 등 스님의 기록들도 담겼다.

용학 스님은 "무비 스님께서는 평소 당신이 펼쳐놓은 저서 등을 대중에게 회향되길 바라셨다. 이번 디지털 법공양 불사는 오롯이 스님의 뜻에 따라 이뤄졌다"며 "무비 스님의 전집과 〈화엄경〉 강설집, 육성강의 등과 스님의 발자취가 담긴 기록물들을 종이로 된 책으로 내놓은 것은 한계가 있어서 전부 DB화해서 USB에 담았다. 또한 온라인에서는 QR코드를 통해 다운로드할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무비 스님의 가르침이 담긴 '법보장 USB'는 4월 3~6일 열리는 서울국제불교박람회에서 1만개가 법공양될 예정"이라며 "최종적으로 100만개 보급이 목표"라고 설명했다.

무비 스님의 법공양 원력은 '법보장 USB' 케이스의 새겨진 원효 스님의 옥인에서도 확인된다. 범어사 산내 암자 원효암 우물에서 발견된 원효스님 옥인에는 '장대교망녹인천지어(張大教網漉人天之魚)'라는 〈화엄경〉의 경구가 새겨져 있다. 무비 스님은 이를 '부처님의 높고 큰 가르침을 널리 펼쳐서 모든 사람과 생명을 다 교화하리라'고 해석했다.

무비 스님은 "〈화엄경〉을 이 땅에 전한 선지식들이 '화엄'을 세상에 널리 전하고, 교화하겠다는 원력을 담아 도장을 새겼을 것"이라면서 "'법보장 USB' 법공양은 부처님 법을 널리 전하겠다는 선지식들의 원력을 이어가는 방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우선 서울국제불교박람회에서 무료로 배포하고, 이후에는 '염화실' 다음 카페의 '법공양'란에 신청하면 배송해줄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현대불교신문사도 무비 스님의 '법보장 USB' 법공양 불사에 동참한다. 현대불교신문사 홈페이지를 통해 무비 스님의 전집과 육성강의 등을 다운로드받을 수 있게 할 계획이다.

한명우 현대불교신문사 대표이사는 "평생을 불교 경전 연구에 매진해 온 대강백 무비 스님의 가르침을 널리 알리는 '법보장 USB' 법공양 불사에 동참하게 돼 기쁘다"면서 "원효 스님의 옥인에 담긴 말씀은 현대불교신문이 지향하는 '불교의 생활화 현대화 세계화'의 기치와도 맞닿는다. '법보장 USB' 법공양 불사에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돕겠다"고 밝혔다.

〈무비 스님 인터뷰 13면〉



2월 25일 조계종사회복지재단 창립 30주년을 맞아 진행된 종로노인종합복지관 자비나눔 방문에서 총무원장 진우 스님과 조계사 주지 담화 스님, 조계종사회복지재단 관계자들이 장 담그기 체험을 하고 있다.

"어르신 행복 위해 불교복지에 최선"

진우스님, 복지재단 30주년 맞아
종로노인종합복지관서 자비나눔
음료 200잔 선결제로 건강 기원
장 담그기 체험…함께 5분 선명상
관장 정관 스님 300만원 쾌척도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조계종사회복지재단 이사장)이 조계종사회복지재단(대표이사 묘장 스님) 창립 30주년을 기념하며 노인복지관에서 어르신들을 위한 자비나눔을 실천했다.

진우 스님은 2월 25일 서울 종로노인종합복지관(관장 정관 스님)을 방문, 어르신들에게 선물을 전달하고 복지관 직원들을 격려했다. 이날 진우 스님은 어르신들의 건강을 기원하며 어르신 바리스타가 운영하는 플러스카페 1호점에서 커피 200잔을 선결제하면서 나눔의 시작을 알렸다.

이어 종로노인복지관 소개를 브리핑받은 진우 스님은 복지관 시설을 둘러보며 어르신들을 만났다. 종로노인복지관의 대표 프로그램인 장 담그기 체험도 했다. 5층에 마련된 장마당에서 앞치마를 두르고 '장금이'가 돼 장독에 메주를 담았고, 체험관으로 옮겨서는 고추장을 만드는 시간도 가졌다. 직접 만든 고추장을 한입 맛본 스님은 "맛있다"를 연발하기도 했다.

4층 종로마루홀에서 진행된 전달식에서 진우 스님은 관내 홀몸 어르신들에게 봄맞이 새 이불과 고추장 세트를 전달했다.

진우 스님은 "종로노인복지관은 조계종단을 대표하는 복지관으로 부처님 가르침을 모범적으로 실천하는 곳"이라며 "어르신들의 편안하고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큰 역할을 하고 있다"고 치하했다. 이어 "조계종사회복지재단 창립 30주년을 기념하며 방문해 더욱 보람을 느낀다"면서 "어르신들의 행복과 안녕을 위해 불교복지에 더욱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관 스님은 "종로노인종합복지관은 2007년 개관 이래 조계종사회복지재단과 조계사의 전폭적인 운영 지원을 통해 종로구민의 삶에 가치를 더하는 동반자로 자리매김할 수 있었다"고 감사의 뜻을 전하고 "재단 창립 30주년을 축하하며 종로노인복지관도 처음 마음 그대로 지역사회의 든든한 버팀목으로 함께 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어르신들과 5분 선명상을 함께하며 선명상 대중화를 위한 원력을 이어가기도 했다. 이날 정관 스님은 진우 스님에게 조계종사회복지재단 발전기금 300만원을 쾌척하며 훈훈함을 더했다.

임은호 기자

조계종 사찰림연구소 "생태문화 가치 증진 앞장"

2월 25일, 첫 정기 이사회 및 총회

조계종 사찰림연구소(소장 오충현)가 종령기구 출범 이후 첫 정기 이사회 및 정기총회를 2월 25일 서울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4층 회의실에서 개최했다.

이사장 진우 스님은 "1700여 년 불교역사와 함께 사람들이 지켜온 사찰림을 후대에까지 계승, 발전시켜야할 필요성에 대해 국민들에게 널리 알려야 하며 특히 국립공원 내 사찰림의 가치평가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면서 "사찰림 보전과 연구를 위해 사찰림연구소가 중심적인 역할을 해 앞으로 크게 이바지해 줄 것"이라고 당부했다.

이사회와 정기총회에서는 '대한불교조계종 사찰림연구소 출범 경과'에 대한 보고와 함께 △사찰림연구소의 종령기구화에 따른 법인 정관 개정안 심의 △2024년도 사업결과 및 결산 심의 △2025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안 승인 건 등의 안건을 심의의 결했다.

임은호 기자 imeunho@hyunbul.com

불기 2569년(2025) 제2회 운문사승가대학 총동문회 연수

귀의 삼보하오며, 대한민국 방방곡곡에서 수행과 포교에 정진하고 계시는
운문사 승가대학 2천여 동문 선후배 스님들을 모시고 산빛 고운 봄의 향연을 열고자 합니다.
급변하는 탈종교화 시대에 불교중흥을 위한 비구니 스님의 리더쉽 강화와 동문스님들의 화합과 상생·힐링을 위한 뜻깊은 자리를 마련하오니,
바쁘시더라도 참석하시어 운문인의 위상을 빛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일시 2025년 4월 3일(목) 오전 11시~4월 4일(금) 오전 10시30분
장소 마곡사 한국문화 연수원

주 최 운문사 승가대학 총동문회
주 관 운문사 승가대학 28회
후 원 대한불교 조계종 운문사

문 의 회장 010-9329-1734
총무 010-2955-7082
각 기수 반장스님에게 문의 바랍니다.

운문사 승가대학 총동문회장 석일 합장



“수륙재 유네스코 등재, 공동체적 연대 강화가 핵심”

진관사수륙재보존회, 2월 27일 제1회 학술세미나

유네스코 무형유산 등재 염원
“단순한 의례 아닌 연대 강조”
문화 장치 충족…등재 기대감
“소유자가 신청 핵심 존재돼야”

임은호 기자 imeunho@hyunbul.com

수륙재의 유네스코 인류무형유산 등재를 염원하며 개최된 학술세미나에서 수륙재가 단순히 전통 보전을 넘어 현대사회에서 공동체적 연대와 문화적 정체성을 지속적으로 형성하는 중요한 문화적 장치임이 확인됐다.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등재를 위한 요건을 충족할 수 있는 주요한 사례로, 등재에 대한 기대감을 높인다.

진관사수륙재보존회(회장 법해 스님)는 2월 27일 진관사 한문화체험관 흙다움에서 ‘제1회 유네스코 인류무형유산 등재를 위한 학술세미나-수륙재와 인류무형유산의 공동체성’을 개최했다. 이날 세미나는 불교 최대의 의례인 수륙재의 역사와 그 의례에 담긴 공동체적 가치를 무형문화유산의 시각에서 새롭게 조명하고자 마련됐다.

이날 발제자들은 의례에 담긴 공동체적 가치와 특징에 주목했다. 수륙재는 단순한 불교의례가 아니라 죽음과 삶을 연결하는 장이며 산자와 망자가 함께하는 공간을 창출해 공동체적 연대를 강화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이다.

구미래 불교민속연구소장〈사진〉은 ‘수륙재의 역사와 의례에 담긴 공동체적 가치’에서 공업(共業)을 되새겼다. 구 소장은 “수륙재는 파편화·개인화된 시대에 주변을 돌아보고 인류가 함께 지어온 공업의 문제를 직시하게 만드는 힘을 지닌 의례”라며 “의례를 통해 자비심과 이타심을 새기고 실천하며 그 마음이 자신과 중생에게 더 큰 공덕으로 확산해 지혜롭고 자비로운 문명을 건설해나갈 수 있다는 가르침을 담고 있다”고 설명했다. 수륙재 의례의 당위성을 공감하는 공동체 구성원이 모두 주체가 되는 가운데, 사회적 갈등과 문제를 공유하고 성찰하며 화합으로 이끄는 자생적 힘의 매개체가 될 수 있는 것.



수륙재는 결국 산 자들을 위한 의례임은 강조한 구미래 소장은 “인간의 욕망과 이기심으로 지구촌의 재앙이 심각한 시대에 우리가 함께 지어온 공업의 의미를 새기면서 공동체가 함께 선을 추구하도록 이끄는 수륙재의 가치가 오늘날 더욱 빛을 발하는 이유”라면서 “죽은 자를 위한 수륙재에 머물지 않고 현세에서 소외되고 고통받는 이들을 돌아보는 일이 참된 수륙재의 정신을 실천하는 것”이라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수륙재는 의례의 당위성을 공감하는 공동체 구성원이 모두 주체가 되는 가운데, 사회적 갈등과 문제를 공유하고 성찰하며 화합으로 이끄는 자생적 힘의 매개체가 될 수 있을 것”이라며 “인간의 욕망과 이기심으로 지구촌으로 재앙이 심각한 시대에 우리가 함께 지어온 공업의 의미를 새기면서 공동체가 함께 선을 추구하도록 이끄는 수륙재의 가치가 오늘날 더욱 빛을 발하는 이유”라고 말했다.

함한희 무형문화연구원장도 ‘진관사 국행수륙재의 사회문화적 의미: 민족지적 접근을 통한 분석’에서 진관사 수륙재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 중 하나로 ‘무차평등(無遮平等)’ 정신 실천을 꼽은 함 원장은 “단순히 특정 의례의 지속성을 넘어 무형유산이 시대와 함께 발전하고 공동체의 가치관을 반영하며 변화하는 동적인 과정임을 보여준다”고 설명했다.

임돈희 수륙재 유네스코 무형유산 등재추진위원회 공동체위원장은 기조발표 ‘유네스코 무형유산정책과 공동체성’에서 “자신들의 무형유산의 진정한 의미와 가치를 완전히 이해하는 주체로서 등재신청 작성은 물론 궁극적으로는 유산의 보호 및 보존에 단순히 동의하거나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핵심적인 존재로서 적극적으로 참여할 것”을 제안했다.

세미나에 앞서 총무원장 진우 스님은 치사에서 “진관사 국행수륙재가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으로 등재된다면 인류 문화 속에 공동체 의식의 중요성을 다시금 깨닫는 소중한 계기 될 것”이라고 확신했다. 스님은 “진관사 국행수륙재는 오랜 역사 속에서 한국 불교의 전통과 공동체의 정신을 계승하고 발전시켜 온 소중한 국가 문화유산”이라며 “우리 사회가 빠르게 변화하고 개인주의가 심화되는 오늘날 국행수륙재가 가진 공동체적 의미와 인간 존엄에 대한 메시지는 가치가 매우 크다”고 치하했다.

진관사 주지 진관사수륙재보존회 이사장 법해 스님은 “진관사 국행수륙재를 대상으로 한 의례에 담긴 공동체적 가치 연구는 불교의 무형적 가치를 확인하는 시도라는 점에서 새로운 접근”이라며 “이번 학술세미나를 출발점으로 여러 사찰로 그 연구 영역이 확대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국가무형유산인 진관사 국행수륙재는 600여 년의 역사와 전통을 이어오고 있다. 1397년 조선 초 불심이 깊었던 태조 이성계 대왕이 조선을 건국하며 나라를 위해 순국하신 충혼과 전란 기근으로 목숨을 잃은 많은 영혼들뿐만 아니라 왕실의 조종(祖宗) 선왕선후의 명복을 기원하였고 백성들이 서로 소통화합으로 국가의 미래가 번영하기를 염원하며 설행했다.

“조계종단, 화평 표상 돼야”

조계종 원로의장 자광 대종사 유시 발표



조계종 원로의장 자광 대종사〈사진〉가 2월 26일 ‘화합의 북소리를 힘차게 울려 불조의 혜명을 드높이라’는 유시를 발표했다.

자광 대종사는 유시에서 화합을 강조했다. 대종사는 “모든 것이 혼란한 세상에서 갈등을 화합으로, 투쟁을 대화로 바꾸어 내는 지혜로 국민의 고통을 덜어야 한다”면서 “조계종단이 화평세상을 열어가는 표상이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는 화합중(和合衆)”이라며 “승가라는 말 자체가 화합하며 살아가는 공동체라는 뜻이니 승가에게 있어 화합은 생명”이라고 강조했다.

자광 대종사는 “법고창신의 종단 역사 속에서 불행하게도 승단 일부가 종문(宗門)의 울타리를 벗어났으나 이제는 크게 보듬어야 할 시기”라며 “이들이 의발(衣鉢)을 놓지 않고 참회와 기도로 살아왔다면, 부처님 제자로 종단 일원으로 회향할 수 있는 한 번의 기회는 주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임은호 기자

글로벌문화추진단장에 주석 스님 위촉

진우 스님, 2월 21일 위촉장 수여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은 2월 21일 서울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4층 접견실에서 주석 스님에게 ‘천년을 세우다’ 글로벌문화추진단장 위촉장을 수여했다.〈사진〉

위촉식에서 진우 스님은 “불교가 대중 속에서 생활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역할을 하길 바란다”면서 “글로벌 종합 불교타운이 건설되면 불교가 사회적 역할을 다하는 데도 주도적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추진단장 주석 스님은 “국민들이 향유할 수 있는 불교문화를 만들고, 현대인들의 치유와 힐링 공간을 마련하겠다”면서 “국제적인 명상센터로서도 역할을 다할 수 있는 미래불교 도량을 건립할 수있도록 종단과 협력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이어 주석 스님은 진우 스님에게 천년을 세우다 기금 1000만원을 전달했다. 임은호 기자

이재명 대표, 불교계 지도자 예방…현안 지혜 구해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
태고종 총무원장 상진 스님 예방





‘덕의 정치’ 를 당부한 진우 스님에게 이재명 대표는 “덕장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했다.(왼쪽 사진). 상진 스님이 이재명 대표에 〈수봉상진법어집〉을 전달하자 이재명 대표는 “법어집을 읽으며 마음 수행하겠다”고 화답했다.(오른쪽 사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과 태고종 총무원장 상진 스님을 예방하고 정치 지도자로서의 지혜를 구했다.

이재명 대표는 2월 24일 오전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을 예방했다. 진우 스님은 “옳고 그름을 떠나 덕의 정치를 하는 것이 좋다”면서 “지지하는 이도 많고, 반대하는 이들도 있는 것이 현실인데, 반대편에게 다가가서 진실되게 하는 것이 정치 지도자로서, 덕장으로서 행보가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국민들이 불안해하고 불편해하는 것에 대해 저를 포함해 정치권의 책임이 크다”면서 “덕장이 될 수 있도록 국민 삶이나 나라의 미래에 저해요소가 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작년 내란 사태 전후로 조계종에서 분명한 입장을 내줬고 우리 국민이 갈 길을 제시해줘 큰 도움이 됐다”면서 “정치인들에게 죽비 같은 말씀을 많이 해달라”고 말했다.

진우 스님은 지혜롭고 덕이 있는 사람은 자신의 재능을 과시하지 않고 겸손하게 행동하며 세상 사람들과 잘 어울리므로 오히려 사람들에게 더욱 존경받게 된다며 화광동진(和光同塵)을 언급했다. 그러면서 숲과 나무를 함께 바라볼 것을 조언했다.

이 대표는 “정치가 국민들의 삶이나 우리나라의 미래를 저해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같은 날 오후에는 태고종 총무원장 상진 스님을 예방했다. 상진 스님은 이재명 대표에게 〈수봉상진법어집〉을 전달하며 “정치하며 여러 혼란스러운 상황이 많을텐데 마음을 정리하는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으며, 이에 이재명 대표는 “법어집을 읽으며 마음 수행하겠다”고 화답했다.

이재명 대표는 “최근 ‘탈진실의 시대’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진실이 아닌 것이 진실처럼 유포되고 있다. 특히 최근 내란 사태를 겪으며 더욱 폭력적이고 전투적으로 표출되고 있다”면서 “이럴 때일수록 진리를 추구하는 종교계가 국민들이 바른 길로 가도록 인도해주셔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태고종 스님들과 불자들이 국민들이 불안해하지 않도록 진실과 진리에 기반한 가르침을 세상에 널리 전해달라”고 요청했다.

신중일 · 임은호 기자

대한불교조계종 전국비구니회
제19차 정기총회 공고

삼보에 귀의하옵고,
스님들의 수행정진과 불사포교에 무장애하시길 기원드립니다.
대한불교조계종 전국비구니회는 회칙 제4장 18조에 의거하여
제19차 정기총회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회칙 제·개정 인준과 2025년 사업 예산승인 등 중요한 안건 인준이 있을 예정이니
전국의 비구니스님들께서는 많은 관심과 참석 부탁드립니다.

- 일 시 : 불기2569(2025)년 3월 20일 목요일 오후 1시
- 장 소 : 전국비구니회관 법룡사 만불전
- 안 건 : ① 회칙 제·개정 인준의 건
  ② 2024년 사업결과 및 결산보고의 건
  ③ 2025년 사업계획 및 예산승인의 건
  ④ 기타 안건

불기 2569(2025)년 2월 25일

대한불교조계종 전국비구니회 회장 광용

점성술이나 제사 등에 의지하지 않아도 얼마든지 사찰을 운영할 수 있는 불법을 배웁시다.

강남불교대학에서 불교를 공부하면 **10명의 신도만 확보해도 사찰운영이 가능합니다.**

강남불교대학에서 새로운 불교를 만나보세요.
강남불교대학에서 2025년 승려반 신입생을 모집하면서 다음과 같이 설명회를 개최합니다.

강남불교대학 승려반 설명회

일 시 2025년 2월 24일(월요일) 오후3시
장 소 강남불교대학 참종사 (서초구 방배동)
참가자격 사찰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계신 스님
점성술이나 제사에 의지하지 않고 사찰을 운영하고 싶은 스님
불교를 제대로 배우고 싶은 스님
스님이 되고 싶은 재가자

참가신청은 QR코드로 ▶
문의 02)532-0012

전법특임교수 첫 임용…캠퍼스 전법 강화

동국대, 정각원서 임용식 개최
전법특임교수 13명 임용장 수여
돈관 스님 "각자 소임 다해달라"
퇴임 철우 스님 공로패 수여도

신중일 기자 motp79@hyunbul.com



학교법인 동국대는 2월 27일 교내 정각원에서 '2025학년도 신하기관 신규 교원 · 직원 임용장 수여식' 을 개최했다. 사진은 이날 처음으로 임용된 전법특임교수들의 기념촬영 모습.

동국대(총장 윤재웅)가 캠퍼스 전법을 담당할 '전법특임교수' 제도를 신설하고 첫 임용식을 개최했다. 이에 따라 동국대는 불교동아리 지도법사의 전문성을 확보하고 캠퍼스 전법 역량 확대를 기대할 수 있게 됐다.

학교법인 동국대(이사장 돈관 스님)는 2월 27일 교내 정각원에서 '2025학년도 신하기관 신규 교원·직원 임용장 수여식'을 개최했다. 이날 임용식에서는 올해 신설된 제도에 따라 처음으로 임용되는 전법특임교수들의 임용식이 진행돼 눈길을 끌었다.

신설된 전법특임교수 제도는 동국대에서 기존에 운영하던 지도법사단에서 한 단계 발전한 형태로 불교동아리 신행활동을 지도하는 법사단의 적극적인 전법포교 활동을 지원하고 전법 사명감을 부여하는 것이 목표다.

이 같은 전법특임교수 제도는 동국대 건학위원장 돈관 스님(학교법인 동국대 이사장)의 원력을 바탕으로 한다. 평소, 돈관 스님은 불교동아리 지도법사의 지위 보장을 통한 전법활동 확대를 강조해왔다. 이는 교내 전법에 대한 권한과 지위를 확보해주고, 전문적이고 책임있는 캠퍼스 전법을 추진하자는 의지가 담겼다.

이날 임용·위촉된 전법특임교수는 동국대 서울캠퍼스 문과대학 지안 스님을 비롯해 13명 스님이며, 9명은 지도법사로 위촉됐다. 이들 스님들은 서울·WISE캠퍼스 신행활동 지도와 불교동아리 신행 프로그램 기획 및 운영 등의 역할을 맡는다. 1년 단위로 임용되며, 연간 활동 평가 결과에 따라 재임용 여부가 결정된다.

학교법인 동국대 이사장 돈관 스님은 치사를 통해 맡은 바 소임을 다할 것을 당부했다. 돈관 스님은 "무엇보다 자기자신의 자리에서 맡은 바 역할을 다하라는 서원을 중요하고 이를 실천하는 동국의 주인이 되어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동국대 120년 역사 상 처음으로 전법특임교수를 임용했다"며 "전법특임교수들이 자신의 역할을 잘 할 수 있도록 학교와 법인에서 최선을 다해 돕겠다"고 약속했다.

윤재웅 동국대 총장은 인사말을 통해 미래 불교 인재를 양성하는 데 최선을 다해줄 것을 강조했다. 윤 총장은 "서울캠퍼스와 WISE캠퍼스에는 5000명 재학생들은 미래의 청년불자들이고, 불성 종자들이다"라며 "이들 불성 종자들이 훌륭한 묘목에서 나무로, 나아가서는 울창한 숲으로 성장해서 동국대 전체가 불국정토가 될 수 있도록 교원과 교직원들이 최선의 노력을 다해달라"고 밝혔다.

이번에 특임교수로 첫 임용된 지안 스님(서울캠퍼스 문과대학)은 "기쁘면서도 한편으로는 어깨가 무겁다"면서 "맡은 자리에서 자신의 소임을 다하는 이사장스님의 뜻으로 알고 최선을 다해 전법을 하겠다"고 다짐했다.

한편, 학교법인 동국대는 이해원 의료원장, 동국대 부속 유치원장 능견 스님, WISE캠퍼스 정각원장 법천 스님 등 신임 기관장, 교원·교직원에게 임용장을 수여했다. 또한 5년간 WISE캠퍼스 정각원장 소임을 맡았던 철우 스님에게 공로패를 전달했다. 철우 스님은 로터스관 건립 불사 기금 1000만원을 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각자 자리서 부단히 정진을"

중승대 2월 26일 학위수여식
박사·석사·학사 등 총 39명
상진 스님, 장학금 1000만원



중앙승가대(총장 월우 스님)는 2월 26일 교내 자비관에서 '2024학년도 중앙승가대 학위수여식'을 개최했다. 학위수여식에서는 박사 4명(현수·도선·도운·일승 스님), 석사 14명, 학사 21명(문학사 18명, 사회복지학사 3명) 등 39명이 학위를 받았다.〈사진〉

총장 월우 스님은 "오늘 졸업하는 학인스님들은 4년간 각고의 노력을 기울여 실력을 쌓았다. 이제는 종단과 사회를 위해 포교와 수행 정진의 길을 걸어갈 것이라 믿는다"며 "부처님께서는 세상이 끊임없이 변화하는 만큼, 우리는 늘 새로운 것을 배우고 실천해야 한다고 하셨다. 졸업생들도 각자의 자리에서 수행과 정진을 이어가길 바란다"고 덕담했다.

스님은 이어 "중앙승가대는 2023년 K-명상선학과를 신설했고, 글로벌 대학으로 발돋움 하고 있다"며 "앞으로는 한국불교의 통합적인 불교 교육 체계를 확립해 나가는 데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날 대학원 성적 우수 졸업자 박사과정 도운 스님, 석사과정 인오 스님, 학부 전체 수석 우현 스님, 학부 전체 차석 용운 스님, 성적 우수자 대학원 일승·법봉·지경 스님, 학부 명우·정효·현묵·준재 스님에게 표창장이 수여됐다.

중앙승가대 이사장 진우 스님(조계종 총무원장)은 조계종 총무부장 성화 스님이 대독한 치사에서 "시대가 변하더라도 수행자의 본질은 변하지 않는다. 수행자의 가장 큰 덕목은 종교적 청정성을 유지하는 것"이라며 "부처님의 제자임을 잊지 말고 대중 속에서 포교·전법하는 대승보살로 거듭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태고종 총무원장 상진 스님은 그간 배움에 대한 실천의 중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스님은 "그동안이 교(敎)를 배우고 연구했다면 이제 행(行)의 시간"이라며 "지율자(持律者)로서 계율을 지키고, 지경자(持經者)로서 배운 것을 실천하며, 범행자(梵行者)로서 수행 정진해 계·정·혜 삼학(三學)을 증장하는 시간을 가져야 한다"고 조언했다. 상진 스님은 장학기금 1000만원도 중앙승가대에 전달했다.

김포=김내영 기자

인도 분황사에 한글 현판…"한국불교 정체성 알리는 계기"

미래본부, 2월 25일 현판 제막식
송광사 현봉 스님 필체 '큰법당'



분황사 한글 현판 제막식 동참 대중들이 '큰법당' 앞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깨달음의 성지' 인도 부다가야에 세워진 조계종 사찰 분황사가 한글 현판을 제막하고 한불교의 법맥을 밝혔다.

조계종 미래본부와 인도 분황사는 2월 25일 분황사 경내에서 '분황사 한글 현판 제막식'을 봉행했다. 이날 공개된 '큰법당' 한글 현판과 한글 주련은 조계총림 송광자 방장 현봉 스님이 직접 분황사를 방문해 남긴 한글 글씨를 바탕으로 제작됐다.

'큰법당' 현판과 더불어 '이것이 있으면 저것이 있고' '이것이 없으면 저것 없으며' '인연 따라 생긴 모든 것은' '인연 따라 모두 사라진다' '새벽별 보고 깨달으시니' '나와 저 별이 둘이 아니다' 등 6개의 주련이 약 10개월의 기간을 거쳐 제작·설치됐다. 또한 견고하고 습기에 강한 '티크나무'를 채택, 현지의 고온다습한 기후에도 변형이 없도록 했다. 동방예술원 김쌍동 씨가 담당, 제작했다.

당초 지난해 제작·설치를 마무리한 뒤 송광사 사부대중과 제막식을 봉행할 예정이었으나, 안타깝게도 방장 현봉 스님이 입적해 이날 제막식을 갖게 됐다.

총무원장 진우 스님은 이날 미래본부 사무총장 성원 스님이 대독한 치사를 통해 "한국불교의 정체성과 가르침을 드높이는 법연"이라며 "오랜 정성과 원력으로 이루어진 부다가야 분황사 건축 불사의 결실"이라고 치하했다. 그러면서 "한국의 전통과 수행의 맥을 잇는 현판과 주련이 부처님 성지를 찾는 이들에게 길잡이가 되고 깨달음의 씨앗이 되어 줄 것이라 확신한다"며 "부처님 가르침의 근원인 부다가야에서 자신을 돌아보며 모든 중생과 함께하는 길을 찾자"고 당부했다.

분황사 건립 불사를 지휘하고 현지 한국불교 위상 강화에 진력하고 있는 본원 스님은 이날 환영사에서 "이곳 분황사는 조계종뿐만 아니라 한국불교를 대표하며 한국불교와 한국문화를 알리는 최일선"이라며 "이제 한글로 쓰인 큰법당 현판식을 함으로써 세계만방에 분황사가 한국 사찰임을 당당히 선포하게 됐다"고 밝혔다.

인도 분황사는 '깨달음의 성지' 부다가야에 건립된 종단 최초 한국전통양식 사찰이다. 통도사 청하문도회가 2000평을 기증하고, 설매·연취 보살이 큰법당 건립기금을 보시하면서 건립될 수 있었다.

임은호 기자

"자립준비 청년의 첫 홀로서기 응원"

아름다운동행, '희망플러스' 운영
청년 주거비 · 가구 구입비 지원

재단법인 아름다운동행(이사장 진우 스님)이 자립준비청년의 경제적 자립과 안정적인 주거환경 마련을 위해 '희망플러스' 지원사업을 시작한다.

'희망플러스' 프로그램은 아동양육시설, 그룹홈, 가정위탁 보호를 받다가 만 18세 이후 보호가 종료된 청년들이 겪는 주거 불안과 경제적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다.

보건복지부의 '2023 자립지원 실태조사'에 따르면 자립준비청년들의 상당수가 주거비 부담과 생활비 부족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안정적인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희망플러스' 프로그램이 기획됐다.

희망플러스 프로그램은 2025년 2월부터 매월 1명의 자립준비청년 또는 보호 종료 후 5년 이내 청년(만 18세~만 29세)을 선정해 주거비(전·월세비, 보증금) 또는 주거 필수 가전·가구 구입비를 지원한다. 보호 종료 후 홀로서기를 해야 하는 청년들이 안정적인 주거환경에서 생활하며 미래를 계획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이번 프로그램의 목표다.

서울시 거주 자립준비청년 중 자립 의지가 강하고 구체적인 주거 계획이 있는 청년이 지원 대상이다. 사회복지기관 또는 아동보육시설의 추천을 통해 선정된다.

정기후원은 아름다운동행 홈페이지(dreaminus.org)에서 가능하다. 02-6273-0108

임은호 기자



조계사 단기출가…“참다운 부처님 제자로!”

2월 25일 대웅전서 입재식 봉행
20세부터 29세까지 총 18명 동참
3월 2일까지 예불·운력·수행 경험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 예방도

김내영 기자 rlasodud0994@naver.com


무명초라 일컫는 머리카락을 자르고 있는 남행자.

“부처님께서 주신 지혜와 자비의 가르침을 받들어 모든 생명을 존중하고 서로 화합하며 세상을 이롭게 하는 부처님의 참다운 제자로 거듭나겠습니다.”(발원문 中)

2월 25일 저녁, 조계사 대웅전에는 청년 수행자들의 비장한 다짐이 울려 퍼졌다. 극심한 경쟁과 불확실한 미래로 길을 잃었던 청년들이 불교 안에서 그 해답을 찾고자 출가의 문을 두드린 것이다.

조계사(주지 원명 스님)는 이날 불기 2569년 출가열반재일을 맞아 ‘청년·대학생 단기출가’ 입재식을 봉행했다. 이번 단기출가에는 20세부터 29세까지 대학생·청년 남녀 각 9명씩 총 18명이 동참했다.

조계사 부주지 탄보 스님은 ‘처음 발심할 때의 그 마음이 곧 깨달음’이라는 ‘초발심시변정각’을 언급하며 “불교를 배우고 수행 생활을 경험하겠다고 결심한 여러분은 이미 부처님 제자가 된 것”이라고 행자들의 출가를 허락했다. 탄보 스님은 이어 “자기 안에 잠들어 있던 인내를 끄집어낸다는 각오로 부처님 가르침을 따라 묵묵히 수행하고 정진하다 보면 몸의 자유가 아닌 진정한 자유가 무엇인지 반드시 깨닫게 된다”고 당부했다.

부처님과 계사 스님, 부모님에게 삼배를 올린 행자들은 ‘번뇌초’ ‘무명초’라 일컫는 머리카락을 잘라내며 수행 의지를 다졌다. 다만 삭발의식은 머리카락을 일부만 잘라내는 약식으로 대신했다.

이어 평상복과 휴대폰 등 개인물품을 상자에 담은 후, 행자복으로 갈아입고 대승원력 10계에 맞춰 절을 하며 출가자로서의 서원을 다졌다.

출가행자들은 발원문을 함께 낭독하며 출가의 길을 내딛었다. “물질과 성공이라는 세속의 가치를 좇느라 저희 안에 쌓인 온갖 근심과 걱정을 버리고 작은 소유에도 만족하며 몸과 마음을 청정히 지키겠습니다.”

다음날인 2월 26일에는 서울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4층 접견실에서 총무원장 진우 스님을 예방했다.

총무원장 진우 스님은 “화나는 일이 있을 때, 번뇌가 생길 때 그 감정을 마음에 가지고 있으면 더 큰 괴로움이 생긴다”며 “그땐 순간순간 마음을 툭 내려놔야 한다”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단기출가를 하는 5박 6일이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긴 시간이지만, 인생에서 정말 특별한 경험으로 남길 바란다”며 “스님들의 지도에 따라 드러내려는 마음, 즉 욕심이 없었는지 늘 되새겨보면서 보람 있는 시간을 보내라”고 격려했다.

출가행자들은 3월 2일까지 5박 6일 동안 예불과 정진, 수행과 운력을 병행하며 출가자의 삶을 직접 체험한다.

이길수 회장 “젊은 불자 용기로 청년포교”

2월 21이 진우 스님 예방서
대불청 올 주요사업계획 보고



이길수 대한불교청년회 중앙회장이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을 만나 청년 전법활동의 포부를 밝혔다.〈사진〉 기존 사업을 체계화해 후배들을 위한 밑거름을 마련하고 미래세대 청년 불자들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해 단체에 변화의 바람을 불러일으키겠다는 계획이다.

이길수 회장은 2월 21일 서울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4층 접견실에서 조계종 총무원장을 예방하고 이 같은 사업계획을 알렸다.

이길수 회장에 따르면 대불청은 ‘젊은 불자의 기백과 용기로써 부처님의 지혜와 자비를 실천하고 무명의 세계를 밝히는 빛이 되자’는 슬로건으로 청년포교에 매진할 계획이다.

대불청은 한때 250여 개 지회를 가진 전국 대규모 단체였지만, 현재 50개 지회로 축소됐으며 회원도 50~60대가 다수를 차지하는 고령화 상태에 이르렀다. 중앙에서는 지구와 지회를 관리하고 사업예산을 확보하는 등 새로운 변화가 필요한 상태다.

이에 대불청은 정관 개정을 통해 전문위원회를 도입, 기존 사업의 체계화와 전문화를 이룩해 내겠다는 계획이다.

또 청년회를 신설, 연수교육체계를 구축하고 법회 프로그램을 개발해 지회간 소통에 나선다. 만해백일장 위원회, 콘텐츠 위원회, 국제위원회를 신설해 미래세대 청년불자를 위한 준비도 해나갈 예정이다.

대불청의 활동계획을 세심히 살핀 진우 스님은 “종단에서 해야할 일을 준비했다”고 치하하며 “종단 포교부와 함께 지원 협력할 수 있는 방안을 찾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임은호 기자

“부처님 법 모범적으로 전하겠습니다”

수미산원정대, 2월 22일 8기 졸업
상월결사 이사장 호산 스님 계사로
9기 입학식 2월 26일…107명 입학



수미산원정대 8기 수계졸업식에서는 졸업생 62명이 배출됐다.

상월결사 정신을 실천하고 전법과 포교에 매진하고 있는 수미산원정대(단장 원명 스님, 봉은사 주지)가 8번째 졸업생을 배출했다.

서울 봉은사는 2월 22일 경내 법왕루에서 ‘수미산원정대 8기 수계졸업식 및 동문회 출범식’을 봉행했다. 상월결사 이사장 호산 스님을 계사로 단장 원명 스님, 종호 스님을 증명법사로 진행된 8기 수계졸업식에서는 졸업생 62명이 배출됐다. 이로써 상월결사 졸업생은 금번까지 529명이다.

수계졸업식에 이어 동문회 출범식이 진행됐다. 이날 8기 동문회장에는 곽영진(자관) 씨가 임명됐다. 단장 원명 스님은 8기 동문회 발전기금 2000만원을 전달하며 동문회 발전을 기원했다. 원명 스님은 “수미산은 혼자 가는 것이 아닌 함께 길을 향하는 것”이라며 “8기가 잘 뭉쳐서 더 앞 서 갈 수 있도록 신행활동에 적극 나서달라”고 당부했다.

상월결사 이사장 호산 스님은 “수미산원정대는 정제계, 교육 어떤 분야에서든 최고의 불자를 만들겠다는 해봉당 자승 스님의 원력으로 만들어진 것”이라고 강조하며 “여러분이 자승 대종사의 전법 정신을 함께 한다면 수미산원정대가 한국불교 중흥의 큰 기둥이 되고 밑거름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수미산원정대 9기는 2월 26일 오후 7시 제9기 입학식을 봉행했다. 9기 입학생은 107명으로 8기 및 선배 기수 추천인으로 구성됐다. 임은호 기자

명원 스님 “글로벌 리더 양성에 최선”

스카우트불교연맹, 2월 23일
3대 연맹장 명원 스님 취임식



“세계스카우트잼버리 등 불교국가와 교류 확대로 청소년들이 글로벌 리더로 성장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스카우트불교연맹 제3대 연맹장에 반야사 주지 명원 스님이 취임했다.

한국스카우트불교연맹은 2월 23일 청계사 설법전에서 스카우트 지도자와 대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제3대 연맹장 취임법회’를 봉행했다.〈사진〉

명원 스님은 취임사에서 “청소년 포교 일선에 서게 돼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불교스카우트 운동은 그간 부처님 가르침과 신라 화랑도 정신을 계승해 청소년들의 심신 수련과 인성 함양에 기여해왔다”고 밝혔다.

명원 스님은 불교스카우트 핵심 목표로 △특화된 프로그램 보급 및 개발 △국제교류 강화 △전문 지도자 양성을 제시했다. 스님은 “전통과 현대의 조화를 이루고 즐겁고 유익한 불교스카우트 프로그램을 개발하겠다”며 “선명상 등 불교연맹만이 할 수 있는 명상 프로그램을 확산시키고 어린이·청소년 포교 활성화를 위한 특화 프로그램 마련에도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내영 기자

불교리더스포럼, 신년하례만찬…“불자 역량 결집 최선”

2월 20일, 서울 반얀트리서
정원주 회장 축하패 수여도



불교계 주요 인사들이 한자리에 모여 새해 인사를 나누고 한국불교 중흥을 위한 향후 활동 방향을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불교리더스포럼은 2월 20일 서울 반얀트리 클럽 앤 스파 크리스탈볼룸에서 ‘2025 불교리더스포럼 신년하례만찬’을 개최했다.〈사진〉

이기흥 상임대표는 “올해 리더스포럼은 4월 14~18일 중 서울 코엑스에서 한국불교종단협의회와 함께하는 불교도대회를 예정하고 있고, 4월 중순부터 전국 25개 교구본사를 순회하면서 교구신도회를 보강하고 재정비하겠다”며 “종단 차원에서 준비중인 국제선명상대회, 서울국제불교박람회, 부처님오신날 봉축법요식, 중앙신도회 70주년 기념행사 등 다양한 활동에도 불자들의 역량이 결집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이기흥 상임대표는 제28대 중앙신도회장으로 지난해 10월 1일부터 임기를 시작한 정원주 불교리더스포럼 상임부대표에게 축하패를 수여했다.

총무원장 진우 스님은 각자 자리에서 포교에 매진하고 있는 불교리더스포럼 회원들에게 감사 인사를 전했다.

김내영 기자

생명나눔, 호국 쌍용사서 수계법회 봉행

군장병 150명 · 신도 50명 대상
일면 스님 “슬기롭게 병영 생활”



생명나눔실천본부(이사장 일면 대종사)는 2월 23일, 춘천 2군단 사령부 내 조계종 군종교구 호국 쌍용사(주지 법사 혜진)에서 수계법회를 봉행했다.〈사진〉

대한민국을 수호하는 정예신병이 되기 위해 심신을 단련하고 있는 군장병 150여 명과 일반 신도 50여 명이 수계를 받았다. 수계법회는 삼귀의 및 반야심경 봉독을 시작으로 청성, 청법가, 청사, 개도, 법문, 참회, 연비, 귀의, 선계상, 발원, 계첩수여, 사홍서원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일면 스님은 법어에서 “군장병과 불자들은 삼귀의와 오계를 받아 불자가 되고자 하는 진실한 마음으로 계사를 청하니 기쁜 마음으로 수계의식을 진행하겠다”며 “오계를 수지한 불제자로서 부끄러움 없는 삶을 살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또한 “수계를 통해 군 생활에 안정과 자신감을 갖고, 지혜롭고 슬기로운 병영 생활을 해나가길 바란다”라고 축원했다.

임은호 기자

25돌 군불총 “호국불교 정신 계승” 다짐

국방부 원광사서 기념법회



창립 25돌을 맞은 군 대표 신행단체 국군불교총신도회가 호국불교 정신 계승과 군불교 진흥을 다짐했다. 국군불교총신도회(회장 고현석 군불총)는 2월 22일 국방부 원광사에서 창립 25주년 기념법회를 봉행했다.〈사진〉

제3대 군종교구장을 역임한 정우 스님은 법문을 통해 “직위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우리의 삶이 직업이 되어서는 안된다. 직분을 다하는 삶이 돼야 한다”면서 “우리가 대승적 삶을 살기 위해서도 직분을 다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 재가와 승가 모두 부처님 법을 전하며 살려면 내 스스로 직분을 다하는 삶을 살라”고 강조했다.

고현석 군불총 회장은 환영사를 통해 호국불교 정신 계승을 다짐했다. 고 회장은 “군불총은 지난 2000년 2월 발족된 이래 군불교 발전에 중심으로 뿌리를 내려가고 있다”며 “특히 금년도 6월 전쟁기념관 평화광장에서 봉행되는 ‘호국영령 위령대재’는 의례적인 추모행사를 넘어 불교적 가치를 지향하는 호국보훈의 행사로 조계종단 차원의 행사를 추진하려 한다”고 밝혔다.

신중일 기자

“빈곤·차별없는 세상을 염원합니다”

사노위, 송파 세모녀 11주기 추모제



사회복지 사각지대에서 관련 혜택을 받지 못하고 세상을 달리한 송파구 세모녀를 추모하기 위한 추모제가 열렸다. 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위원장 지몽스님, 이하 조계종 사노위)는 기초법 바로세우기 공동행동, 장애인과 가난한 이들의 3대적폐 폐지 공동행동, 전국장애인부모연대와 공동으로 2월 25일 국회 정문 앞에서 ‘송파 세모녀 11주기 추모제’를 개최했다.

이날 조계종 사노위는 추모제에 앞서 추모 기도회를 진행했다.〈사진〉 서원 스님 및 사노위원스님들은 아미타불을 염송하며 송파구 세 모녀와 빈곤과 차별로 세상을 등진 모든 영가들의 극락왕생을 기원했다.

사노위원 한수 스님은 모두 발언을 통해 “정부와 국회에 요청한다. 가난한 사람들이 장애인들이 죽지 않게 하는 참정치를 해달라”면서 “송파구 세 모녀를 비롯해 가난과 장애 때문에 유명을 달리한 모든 분들의 극락왕생을 기원한다”고 밝혔다.

추모제에서는 빈곤과 차별 없는 세상을 꿈꾸며 연대 발언들도 이어졌다.

신중일 기자

‘평안 기원’ 염불 자원봉사단 모집

제14기 염불자원봉사팀 양성교육
3월 14일까지 접수, 20명 선착순

조계종사회복지재단(대표이사 묘장 스님, 이하 복지재단)이 부처님 가르침을 통해 슬픔을 함께 나누고 교계 상·장례 봉사활동 활성화를 위해 활동 중인 염불봉사팀의 신규 자원봉사자 신규 자원봉사자 장성을 위해 제14기 염불자원봉사팀 양성교육을 진행한다.

이번 양성교육은 3월 25일~5월 2일 매주 화·금요일 오전 10~12시 12회에 걸쳐 진행된다. 서울 전법회관 지하 1층 선운당에서 진행되며 우리 선원명상센터 원장 도영 스님과 국립경찰병원법당 지도법사 무관 스님을 강사로 조가연습, 염불 및 목탁 집전 교육, 상가예절 등의 교육이 이뤄질 예정이다. 3월 14일까지 총 20명 선착순 모집한다. 임은호 기자

“맑고 향기로운 삶, 누구도 대신할 수 없습니다”

길상사 일요가족법회

혜능 스님(울산 람림학당 주지)

서울 길상사(주지 덕조 스님)가 2월 16일 경내 설법전에서 람림학당 주지 혜능 스님을 초청해 정기 일요가족법회를 봉행했다. 길상사는 한 달에 한 번 일요가족법회에 선지식을 초청해 법문을 듣는다. 법석에 오른 혜능 스님은 법정 스님의 ‘맑고 향기롭게’를 열반과 계행을 이루는 삶으로 해석하고 이를 성취하기 위해서는 스스로 정진해야 한다는 법문을 설했다. 이날 법문 내용을 정리 · 게재한다.

〈편집자주〉

정리=김민재 기자



울산 람림학당 주지 혜능 스님이 2월 16일 길상사 일요가족법회에서 법문을 설하고 있다.

길상사하면 법정 스님께서 크게 홍포하셨던 ‘맑고 향기롭게’라는 말씀이 가장 먼저 생각이 납니다. 그래서 길상사는 맑고 향기로운 도량으로 저는 늘 기억하고 있고 그 ‘맑고 향기롭게’라는 말을 참 좋아 합니다. 그럼 ‘맑다’는 무엇이고, ‘향기로움’은 무엇일까요. 맑음은 모든 번뇌의 때가 없어진 상태가 청정한 상태를 말합니다. 인도어로 니르바나(nirvana), ‘열반(涅槃)’이라고도 하지요. 맑음의 경지는 곧 ‘열반’을 이르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열반을 ‘죽음’으로 잘못 이해하곤 합니다. 큰스님이나 부처님이 돌아가시면 저희는 죽는다고 표현 안합니다. ‘열반하셨다’고 합니다. 인도에서 열반이 ‘죽음’을 뜻하긴 했지만, 부처님이 이 용어를 쓰시면서 의미가 바뀌게 됩니다. 바로 ‘번뇌와 생사’가 죽었고 완전히 사라진 것을 의미합니다. 즉 열반의 경지는 어떠한 번뇌, 탐욕, 분노, 어리석음이 사라진 것을 말합니다. 맑음은 단순히 더러움이나 때가 없다는 의미가 아니고, 모든 번뇌가 사라진 맑고 깨끗하고 청정한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열반의 별명이 ‘위숫디(Visuddhi)’라 합니다. 한자로 하면 청정(淸淨)이라 합니다. 그 청정에 이르는 ‘길’은 뭐라고 할까요. 막가(magga)라고 합니다. 이 둘을 합치면, 청정·열반에 이르는 길, 〈청정도론(Visuddhimagga)〉라고 합니다. 유명한 빠알리 논서죠.

일상으로 보게 되면 마음속에, 집안에, 사회에 ‘재난’이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부처님께 나에게, 가정에 재난이 없게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를 소재(消災)라고 합니다. 우리는 해가 바뀌면 세 가지 재난과 여덟가지의 어려움, 즉 ‘삼재팔난(三災八難)’을 걱정합니다. 이런 것을 재난이라고 합니다. 또 우리 몸과 마음을 오염시키는 것을 말하기도 합니다. 자기와 사회에 삼재와 팔난이 없고, 없길 바라며, 슬픔, 비탄, 고통, 근심, 절망이 없는 맑고 청정한 삶을 살자는 게 ‘맑고 향기롭게’ 운동의 기본입니다.

그럼 ‘향기로움’은 무엇일까요? ‘향기롭다’는 바로 계행(戒行)을 지키는 것입니다. 계를 지키게 되면 향기가 나게 되는데, 이를 계향(戒香)이라고 합니다. 부처님께 예불을 드릴 때 제일 먼저 ‘계를 지키는 맑은 향’을 부처님께 올립니다. 그리고 선정의 향(定香), 지혜의 향(慧香), 해탈의 향(解脫香), 해탈지견의 향을 올리는 ‘오분향례(五分香禮)’를 하죠.

‘맑고 향기롭게’는 우리에게 어떠한 번뇌, 슬픔, 비탄, 고통도 없는 맑고 깨끗한 삶을 살아 부처님의 가르침과 계를 지킴으로써 자신과 주변을 향기롭게 만들자는 운동인 것입니다. 막연히 ‘맑고 향기롭게 살자’는 게 아니죠. 그래서 바깥에서 산만해지고 게을러질 때마다 법정 스님의 ‘맑고 향기롭게’를 되새기고 있습니다. 그럼 항상 위안이 되고 정신이 맑아집니다. 이런 수승한 도량에 불자님들이 이렇게 정진하는 모습이 아름답고 고귀합니다.

그럼 ‘맑고 향기롭게’ 살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누가 대신해줄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그 누구도 대신해줄 수 없습니다. 본인이 해야 합니다. 부처님의 아들인 라훌라 존자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부처님은 성불하시고 고향인 가필라국에 방문합니다. 부처님의 아내이자, 라훌라의 어머니인 야소다라가 그 소식을 듣고 8~10살 되는 라훌라에게 “부처님이 너의 아버지이니, 유산을 상속해달라고 하거라”고 합니다. 그 말을 들은 라훌라는 부처님 앞에 서더니 유산을 달라고 곧이곧대로 행동합니다. 부처님이 얼마나 황당하시겠어요? 부처님은 아무 말 없이 계시다가 걸식을 하러 나가십니다. 라훌라는 발우를 들고 부처님을 쫓아갑니다. 그랬더니 부처님이 사리불 존자를 시켜 라훌라를 출가시킵니다.

법정 스님이 남긴 ‘맑고 향기롭게’
맑음은 ‘열반’ 향기는 ‘계행’ 의미
라훌라 일화처럼 法은 상속 안 돼
“스스로 수행해야만 성취하는 것”

유산을 받으러 갔는데, 달라는 유산은 안 주시고 라훌라 머리를 깎이고 출가시켜버려요. 출가한 사람을 뭐라고 합니까? ‘사문(沙門)’ 혹은 비구라 합니다. 여자는 비구니라 하고요. 비구는 ‘걸식하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그 걸식은 아무도 대신 해주지 않습니다. 바로 자기 자신이 해야 해요. 부처님은 왕족이었습니다. 라훌라도 당연히 왕족이죠. 하지만 이런 건 아무 관계없습니다. 귀족, 왕족 출신의, 그 누가 출가했더라도 걸식을 대신할 수 없습니다. 라훌라도 마찬가지예요. 라훌라가 먹을 밥을 부처님이 얻어줄 수 없습니다. 〈금강경〉에도 나옵니다. 부처님이 공양시간이 되니까 걸식하러 스스로 나가십니다. 수보리 존자나 제자들이 대신 걸식 해주지 않습니다.

라훌라도 본인의 생계, 걸식은 본인이 해결해야 합니다. 부처님이 대신해 주지 않습니다. 라훌라는 무슨 생각을 했기에 부처님이 이런 가르침을 주셨을까요. 라훌라는 속으로 ‘나도 아버지 세존처럼 잘생겼다. 부처님의 모습은 아름답다. 나도 그럴 것이다’고 생각합니다. 부처님이 32상 80종호를 갖춘 원만한 분이니까 아들인 자기도 아름답고 원만할 것이라고 착각한거죠. 32상 80종호부터 짚어봅시다. 〈금강경〉에 보면, 수보리 존자가 32종 80종호를 갖춘 사람이 부처님이냐고 여쭤보죠. 32상 80종호를 갖춘 사람은 이 세상에서 딱 두 명 있습니다. 전륜성왕과 부처님이죠. 부처님은 전륜성왕이 부처님이냐고 되묻습니다. 수보리 존자는 이 말에 깨달음을 얻습니다. 외모는 자기 것입니다. 생김새가 같다고 해서 같은 사람이 아니죠.

이어 부처님은 라훌라를 불러 이렇게 말합니다. 라훌라의 마음을 읽으신 거죠. “라훌라여, 어떠한 물질(色)도 그것은 내 것이 아니라고 생각해라. 그것은 나의 자아가 아니고 그것은 내가 아니다. 그렇게 올바른 지혜로 있는 그대로 관찰해야 한다”고 가르침을 주십니다. 물질만 그럴까요? 느낌(受), 지각(想), 형성(行), 의식(識)도 마찬가지입니다. 과거, 현재, 미래의 것이든, 거칠건 미세하건, 멀리건 가까이 있건 상관없습니다. 모두가 자기 것이 아닙니다. 부처님은 라훌라의 자만을 깨뜨려 번뇌로부터 건져주시려고 했던 것입니다.

부처님이 원만하고 아름다우면 부처님이 원만하고 아름다운 겁니다. 라훌라의 것이 아닙니다. 부처님의 유산은, 진리의 법(法)은 상속되는 것이 아닌 거죠. “나는 법정 스님께서 맑고 향기롭게 운동을 주창하신 길상사에 다니고 있으니, 그냥 있어도 맑고 향기롭게 되겠지”라고 생각하면 절대 안 됩니다. 그 수행은 자기가 해야 하는 것입니다.

불경에 보면 한 천신이 부처님께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세존이시여, 참으로 태어나지 않고 늙지 않고 죽지 않고 생성되지 않는 생사가 없는 그 세계의 끝에 도달할 방법이 있습니까?” 부처님은 “세상의 끝, 그 세계에는 갈 수 있고, 알 수 있고, 볼 수 있고 도달할 수 있다고 말하지 않는다. 그러나 세계의 끝에 이르지 않고서는 괴로움의 끝에 도달할 수 없다. 지각하고 사유하는 육척 단신의 이 몸 안에 세계의 발생, 소멸, 소멸에 이르는 길. 그 길이 있음을 나는 가르친다”고 답합니다.

천신은 왜 그렇게 말했을까요? 천신의 전생은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걸을 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세계의 끝에 갈려고 했어요. 화살 같은 속도로 걸어도 걸어도 도달할 수 없었어요. 왜까요? 그 세계는 바깥 세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알 수 없고 걸어서 볼 수 없는, 도달할 수 없는 그 세계는 물질의 세계, 기세간, 바깥 세계를 의미합니다. 우리의 우주, 바깥세계는 우리가 일생을 걸어가도 그 끝에 도달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5온, 12처 18계라고 하는 우리의 내면의 세계에는 자기의 몸과 마음 내 괴로움의 생성, 소멸, 소멸에 이르는 길이 있다고 부처님은 설하십니다. 그러니 바깥으로 가실 필요 없습니다. 내면의 세계에서 괴로움의 끝을 찾으세요. 물론 스스로 찾으셔야 합니다.

우리가 자신에게 당면하고 있는 슬픔, 고통, 근심, 불안, 절망이 없어지는, 즉 ‘고(苦)’를 없애기 위해서 부처님께 귀의하고 공부하는 겁니다. 아까 그런 고통, 재난이 없어진 상태를 맑음과 향기로움이라 했습니다. 한자로 하면 그 상태를 ‘길상(吉祥)’이라 합니다. ‘길상’은 다른 사람이 해줄 수 없습니다. 자기가 맑음과 향기로움을, 소재와 길상을 수행하고 정진해서 이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궁극적으로 자신에게 있는 모든 고통이 사라지는 길상을 성취하기 위해 삼보에 귀의하고 불교를 믿고 공부한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대한불교조계종 인증
승려연수과정

2025년 승려연수교육

현대인을 위한 생활 수행과 포교

▶ 생활수행과 현대적 포교방안
- 화엄세계 : 수행과 담선
- 생활 속의 마음공부 – 치유와 공감
- 현대적 생활 수행과 포교 방안
- 커뮤니케이션과 포교
- 대승기신론과 한마음

*지금 바로 신청해 주세요!
소중한 인연에 감사합니다.

▶ 연수 개요
- 연수인증 : 조계종승려연수과정 (30점)
- 기 간 : 2025년 7월 17일(목) ~ 19일(토) (2박 3일)
- 장 소 : 경주 황룡원 (경북 경주시 엑스포로 40)
- 강 사 진 : 승단 전문강사진 – 청동스님 (동국대 불교학 박사 수료) 등
  재 가 교 수 진 – 이화행 교수 (동명대), 황수경 교수 (동국대) 등
- 교 육 비 : 20만원 (국민은행 292–01–0033–316 (재)한마음선원 한마음과학원)
- 인 원 : 40명 (선착순 마감)
- 문 의 : 031–470–3200/3201 (일, 월 휴무)
- 웹사이트: http://hansi.org

QR코드를 스캔 하시면
바로 신청 접수 가능합니다.

(재)한마음선원
한마음과학원

동국대 WISE 선센터, 간화선 집중수행

2월 20~26일 7일간 집중정진
수불 스님 "눈뜨고 온몸 공부"
100명 참여자 화두 상태 유지
처음 수행하는 마음으로 수행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jayanti@hyunbul.com



동국대학교 WISE캠퍼스 선센터가 2월 20일 '간화선 집중수행' 프로그램을 WISE캠퍼스 선센터 2층 대선방에서 입재했다.

동국대학교 WISE캠퍼스 선센터(센터장 유진 스님)가 2월 20일 '간화선 집중수행' 프로그램을 WISE캠퍼스 선센터 2층 대선방에서 입재했다. 이번 수행은 2월 20일 부터 26일까지 7일간 수불 스님(동국대 불교대학 석좌교수·안국선원장)의 지도 아래 전통 간화선 수행을 현대적으로 체험하는 기회를 제공했다.

수불 스님은 입재 법문에서 스승에 대한 믿음과 초심자의 마음가짐을 강조했다. 스님은 "지금은 길 안내자를 믿어야 한다. 봉사가 눈뜬 사람의 말을 믿지 않으면 공부 자체가 불가능하다"며 "지금껏 해온 수행을 다 버리고, 처음 수행하는 마음으로 정진해야 한다. 마음을 비우고 온몸으로 공부하라"고 강조했다.

안국선원에서 해온 간화선 집중수행 프로그램은 산사(山寺) 선방(禪房) 스님의 전유물로 여겨지던 간화선을 일반인도 수행할 수 있게 한 프로그램으로 35년의 수불 스님의 노하우가 집대성된 결과물이다. 1989년 시작해 국내외 300회 이상 진행했고 6만여 명이 프로그램에 참가했다.

이번 프로그램은 간화선을 통해 전통 선수행의 의미를 재조명하고, 자아성찰을 통해 현대인의 삶의 의미를 새롭게 바라보는 데 목적을 뒀다. 특히 일상에서도 실천 가능한 간화선 수행법을 탐구하는 것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법문, 간화선 수행, 수행점검 등으로 구성됐다.

아울러 수행의 흐름을 이어받아 전통 간화선의 수행법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하고, 실천 가능한 방식으로 다듬어가는 과정을 담았다. 수행자들은 단순히 좌선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화두를 놓치지 않는 상태를 유지하며 일상에서도 간화선을 적용할 수 있도록 훈련받아 눈길을 모았다.

이번 프로그램은 지원자를 대상으로 별도의 선발 과정을 거쳐 100명을 모집했으며, 이 중 30명은 숙박형으로, 나머지 70명은 비숙박형(출퇴근형)으로 참여했다.

유진 스님(동국대 WISE캠퍼스 선센터장)은 "이번 간화선 집중수행은 한국불교 수행법인 간화선을 널리 알리고, 참가자들에게 직접 체험할 기회를 제공하는 데 의의가 있다"면서 "한국불교문화의 중요한 가치를 보급하는 동시에, 간화선의 핵심 이론과 개념을 바탕으로 한 법문을 통해 참가자들이 삶을 깊이 통찰하는 계기가 됐을 것"이라고 밝혔다.

BBS울산불교방송, 신사옥 이전

2월 21일…이전 개국식 성료



BBS울산불교방송이 개국 17년 만에 새로운 사옥을 마련하고 이전 개국식을 개최했다.

BBS울산불교방송은 2월 21일 울산 중구 성안동 백양사 앞 복합문화공간 만디 3층 교육관과 신사옥에서 '이전 개국식'을 봉행했다.〈사진〉

BBS울산불교방송 신사옥은 울산 중구 성안동 복합문화공간 만디 3층에 위치하며, 400m² 규모로 주스튜디오, 제2스튜디오, 조정실, 기계실, 영상편집실, 사무실, 회의실 등을 갖추고 있다. 이곳에서 '아침저널 3부'와 '행복한 오후' 등 지역 맞춤형 로컬 프로그램의 생방송 및 제작이 이뤄지며, 유튜브 송출 및 TV 영상 편집제작 등의 뉴미디어 콘텐츠도 제작된다.

이진용 BBS울산불교방송 사장은 "2008년 남구 달동 시대를 거쳐 2025년 중구 성안동 시대를 열며 새로운 출발선에 섰다"며 "앞으로 더욱 다양한 콘텐츠 제작과 문화행사를 통해 울산 시민과 불자들에게 더 가깝고 친근하게 다가가겠다"고 밝혔다.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신뇨엔, 열반재일 맞아 수행 가치 되새겨

도리카이 국원 차기 후계자 소개



신뇨엔은 2월 15일 종합도량인 응현원과 세계 각국의 정사를 위성으로 연결해 열반재일 법요식을 봉행했다.〈사진〉 이날 법요식은 부처님의 마지막 가르침을 기리는 자리로, 대승불교의 자비 실천 정신을 강조하는 시간으로 진행됐다.

신뇨엔은 〈대반열반경〉을 소의경전으로 삼아 법요식에서 순타품을 독송하며, 부처님께 마지막 공양을 올린 순타의 공덕을 되새겼다. 이를 통해 신뇨엔은 열반의 가르침이 단순한 교리적 이해에 그치지 않고, 삶 속에서 실천되어야 함을 다시 한번 강조하며 대승이타행의 실천을 다짐했다.

한편 이날 법요식에서는 신뇨엔의 후계 구도에 대한 공식적인 발표도 진행됐다. 이토 신소 원주는 도리카이 국원을 차기 후계자로 소개하며, 신뇨엔의 종단 운영이 안정적으로 계승될 것임을 밝혔다.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경선 스님 선화전 '월인청산' 성료

〈月印靑山〉

2월 25일~3월 2일, 금정문화회관 금샘미술관

선 사상의 본질 붓끝을 통해 형상
선화 80여 점 법문의 형상화 극찬


부산 금정문화회관 금샘미술관 제3전시실에서 월인(月印) 경선 스님의 선화전 '월인(月印) 청산(靑山), 일월이 머문 곳에 청산은 푸르구나' 가 개최됐다.

부산 금정문화회관 금샘미술관 제3전시실에서 월인(月印) 경선 스님의 선화전 '월인(月印) 청산(靑山), 일월이 머문 곳에 청산은 푸르구나' 가 개최됐다.

2월 25일부터 3월 2일까지 진행된 이번 전시는 선화를 통해 수행이 예술 속에서 살아 숨 쉬며, 선 사상의 본질이 붓끝을 통해 형상화되는 과정을 탐구하는 자리로 기획됐다.

개막식에는 경선 스님을 비롯해 전 중앙승가대학 총장 태원 스님, 대각회 이사장 장산 스님, 통도사 전 전계사 혜남 스님, 도실 스님, 상운 스님, 노암 스님, 도민 스님, 보타 스님, 일호 스님, 범산 스님, 정산 스님, 고담 스님, 자관 스님 등 승가 내빈과 이준승 부산시 부시장, 전호환 동명대 총장, 강창열 금정문화회관 관장 등 지역 예술계 인사들도 함께 자리해 선화전 개막을 축하했다.

경선 스님은 개막식에서 "10년 후 전시를 열 계획이었으나, 수행의 과정에서 이미 많은 그림이 완성되어 더 이상 미룰 이유가 없었다"며 "금정산 고당봉을 비롯해 수행 중 마주한 자연의 모습을 담아내고자 했다"고 밝혔다. 이어 조주 스님의 투자 선사 이야기를 인용하며 "조주화상이 기름장수에게 투자선사를 아느냐 묻자, 기름장수는 차 한 잔 값이나 달라고 했다. 이에 조주화상은 '투자의 소문은 들었으나, 그 본질은 보지 못했다'고 했다"며 "이는 수행과 예술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이야기로, 형식에 얽매이지 않고 그 본질을 깨닫고자 한다"고 전했다.

이번 전시에서는 스님이 수행 중에 그린 80여 점의 선화 작품이 공개됐다. 작품 속 산과 달, 자연의 요소들은 단순한 풍경이 아니라, 수행을 통해 깨달아 온 법문의 형상화로 표현됐다. 먹과 붓을 사용한 선화는 선(禪)의 사유를 담고 있어 관람객들에게 깊은 울림을 전했다.

경선 스님은 수행과 예술을 병행하며 불법을 전하고 있다. 1970년대 중반부터 청남(菁南) 오제봉 선생과 오진(烏辰) 이웅선 선생에게 서예와 문인화를 사사받으며 예술적 기반을 다졌다. 오제봉 선생은 해방 후 청남묵연회 대표와 동명서예원장을 역임하며 부산·경남 지역 서예계의 발전에 기여한 인물이다. 문인화를 사사한 이웅선 선생은 한국적 산수화의 전형을 완성한 청전(靑田) 이상범 선생의 제자로, 전통 문인화의 기법을 계승하며 자연과 예술의 조화를 탐구한 대가였다. 경선 스님은 이러한 전통적 기법을 바탕으로 수행과 예술의 경계를 넘나들며 선묵화를 통해 불교적 사유를 시각적으로 표현해왔다.

스님은 범어사성보박물관 초대 관장을 맡으며 불교전통문화의 보전과 발전에도 힘써왔다. 20년 넘게 범어사 성보박물관 초대 관장 소임을 맡으며 불교 문화재 보전과 전통문화 계승을 위해 힘써왔다. 범어사 주지로 역임할 당시 신축 범어사 성보박물관을 직접 건립하며 불교전통문화 발전의 초석을 다졌다.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부산불교대학, 수계식 및 합동 졸업식

2월 26일, 33명 수계 받아



부산불교교육대학(학장 범혜 스님)이 2월 26일 부산불교교육대학 교육관에서 '을사년 수계식 및 2024학년도 합동 졸업식'을 봉행했다.〈사진〉

이번 행사는 불자로서 신행을 다짐하고, 수행과 계율을 실천하는 뜻깊은 자리로 마련됐다. 졸업생 40명 중 33명이 수계를 받아 불자로서 첫 걸음을 내디뎠다.

범혜 스님은 "수계를 받는 건 불자로서 길을 가겠다는 다짐"이라며 "불교를 오래 신행했어도 계를 받지 않으면 아직 정식 불자가 아니며, 삼귀의와 오계를 받고 법명을 받아야 비로소 불자로서 첫발을 내딛은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신행을 실천하고 수행과 정진을 이어가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051-711-0700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전북 봉축위, '꿈타는' 연등회 본격 준비

4월 4일~5월 5일 봉축행사 진행
4월 26일 전라 감영서 봉축법요식
전주 전역에 2500여 개 연등 설치
"지역 사회 유대감 강화에 주력"

조동제 전북지사장

전북(전주·완주) 부처님오신날 봉축위원회(공동 위원장 화평 스님·진성 스님)가 불기 2569년 봉축위원회 구성과 봉축행사 계획, 예산안에 대해 심의 의결했다. 2월 26일 금산사 혁신도시 전법도향 수현사 2층 강의실에서 열린 '불기 2569년 전북(전주·완주) 부처님오신날 봉축위원회'는 불기2569년 봉축위원회 구성, 봉축행사 계획안 심의, 봉축행사 예산안 심의, 기타 안건토의 순으로 진행됐다.

회의에 앞서 공동봉축위원장 화평 스님은 "부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우리가 존재하는 가장 큰 이유가 아닌가 생각된다"며 "보다 많은 이에게 부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의미를 잘 전달할 수 있는 봉축 행사에 대해 좋은 의견들을 개진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공동봉축위원장 진성 스님(태고종 전북종무원장)도 "부처님오신날 봉축행사가 범 종단적으로 스님들과 불자들이 동참하는 행사가 되길 바란다"며 "모든 사람이 함께 부처님께서 이 땅에 오심을 찬탄하고 기뻐하는 봉축 행사가 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날 전북(전주·완주) 부처님오신날 봉축위원회는 4월 5일부터 5월 5일까지 한 달을 봉축 기간으로 정했다. 자체 슬로건인 '다시 꿈이 시작된다. 꿈타는 연등회'를 주제로 다양한 봉축행사가 진행될 예정이다.

봉축 기간에는 전주 주요 간선도로인 남부시장-팔달로-버스터미널에 약 2500개의 거리 연등을 설치하고 송천동, 아중역, 팔복동에는 중앙분리대에는 약 1500개의 거리 연등을 설치하기로 했다. 또 전주 혁신도시 수현사와 서고사 주변에도 1000개의 거리 연등을 설치하고 백제교를 비롯한 주요 도로의 교량에는 600개의 LED 연등을 설치해 봉축 분위기를 고조시킬 계획이다.

4월 12일 전주역 마중길 분수대에 설치된 기원탑 점등식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봉축 행사가 막을 올린다. 특히 4월 26일 전라감영에서 젊은이들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아미따유스 청소년페스티벌'이 보컬, 댄스, 밴드, 국악 경연으로 확대돼 열린다. 어린이들을 위한 '전북어린이 큰잔치'와 시민들과 내방객을 위한 사찰음식 만들기 등 문화행사 부스와 어린이대축제가 진행된다. 또 10개소의 전통 문화체험 부스를 마련해 연등 만들기, 지화 만들기, 소원번 쓰기, 관불 및 타종, 전통 등 만들기, 먹거리 부스를 운영한다. 연등축제는 4월 26일 오후 6시 전라감영에서 봉축법요식 봉행을 시작으로 각종 장엄불과 함께 전라감영을 출발해 한옥마을의 주요 도로를 따라 전라감영으로 돌아오는 약 2.5km의 구간에서 열린다.

법정 스님 열반 15주기 추모…부도탑 제막

2월 23일, 송광사서 추모식
전국 불자, 청빈한 삶 다짐


법정 스님이 수행했던 불일암에서 부도탑 제막식이 거행됐다.

"무소유 탑을 세웠네. 돌로 피어난 연꽃 맑고 향기로워라. 삶에 철저해 그 전부로 사셨던 스님, 지금 여기에 계시네."

무소유의 삶을 온전히 실천하며 청빈한 수행자로 살았던 법정 스님의 부도탑이 조계총림 송광사 불일암에 모셔졌다. 조계총림 송광사(주지 무자 스님)는 2월 23일 법정 스님 열반 15주기를 맞아 추모재 및 부도탑 송광사 사자루와 불일암에서 봉행했다.

수좌 현묵 스님은 "스님께서는 수행하는 사람들에게 귀감이 될 만한 법구를 남기셨다"며 "대중과 함께 살아가며 서로에게 배우고, 스스로를 성찰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는 법정 스님의 가르침을 다시금 되새겼다.

문도를 대표해 덕조 스님은 "문도들은 큰스님의 뜻을 받들어 정진하고 수행하겠다"고 다짐했다.

추모재에 이어 법정 스님이 수행했던 불일암에서 부도탑 제막식이 거행됐다. 무자 스님은 "스님께서는 청정한 마음으로 세상을 유랑하시다 모든 것을 훌훌 털어버리고 본래 자리로 돌아오신 것이 아닌가"라며 "우리에게 무소유의 삶과 나눔의 가치를 몸소 보여주신 어른 스님을 기억하며 그 수행의 가풍을 이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대전 형통사, 창건주 형진 스님 3주기 추모다례

2월 22일, 영단불사도 함께
"평생 수행 · 포교 헌신" 애도



대전 형통사(주지 용담 스님)가 2월 22일 경내에서 형진 스님 3주기 추모다례 및 영단불사 회향식을 봉행했다.〈사진〉 형진 스님은 형통사의 창건주로 2006년 형통사를 창건하고, 수행과 포교에 힘쓰며 대전 불교 포교에 크게 기여했다.

형진 스님의 법맥을 잇고, 형통사 중흥을 위해 마련된 이날 행사는 영단불사 점안, 영가 합동 천도재, 추모합창, 법어, '형통사의 노래' 제창 등으로 진행됐다.

영단불사는 기존 법당을 확장해 영구 위패를 모시는 전각을 조성한 불사로, 전각에는 극락구품도, 인로왕보살 탱화, 도자기법 지장보살 부조상 1000불, 크리스탈 영구 위패 1000위를 봉안했으며, 천장에는 티베트 불교의 딱돌다라니를 팔정도 조형물과 함께 모셨다. 전각은 전통과 현대, 한국불교와 티베트 불교가 조화를 이룬 새로운 모습으로 눈길을 끌었다.

이날 행사에는 전 조계종 포교원장 혜총 스님, 성림 스님, 불교인권위원회 공동대표 진관 스님, 석구 스님 등 사부대중이 참석했다.

용담 스님은 "형진 스님은 평생을 수행과 포교에 헌신하며 불교 발전에 힘썼다"며 "이번 영단불사는 형진 스님의 원력과 불자들의 염원이 함께한 결과이며, 산 자와 영가 모두가 해탈하기를 서원하는 미래 불교의 모습"이라고 강조했다. 유재상 충청지사장

송광사, 불교학생회 장학금으로 희망 더하다

전남대생 12명에 600만원 전달



조계종 제21교구 본사 송광사(주지 무자 스님)가 미래 한국의 기둥이 될 대학생과 법조인의 꿈을 준비하는 대학원생에게 장학금을 전달했다.〈사진〉

송광사는 2월 21일 광주 증심사 대웅전에서 전남대 불교학생회(지도법사 진훤 스님)와 법학전문대학원 불교학생회(지도법사 중현 스님) 회원 12명에게 장학금을 전달했다. 이날 송광사는 전남대 불교학생회 6명과 법학전문대학원 불교학생회 6명 등 총 12명의 재학생에게 600만원의 장학금을 전달했다. 송광사는 올해 2회에 걸쳐 1200만원을 전달할 예정이다.

송광사 총무국장 보일 스님은 "종교를 떠나 사회의 큰 일꾼이 돼 모든 사람에게 이익이 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돕고자 장학금을 전달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학업과 인격 수양에 매진하며, 사회와 불교의 발전을 위해 더욱 힘써주기를 바란다"고 격려했다.

전남대 불교학생회 김가은 학생은 "장학금을 받으며 스님들께 좋은 말씀을 들을 수 있어 뜻깊다"면서 "앞으로 학생 활동과 종교 활동에 더욱 열심히 임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승헌 법학전문대학원 부회장도 "로스쿨에서 공부하면서 많은 번뇌와 고통을 느낄때마다 부처님 말씀을 기억하며 이를 극복하려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군산 성흥사, 어려운 이웃에 나눔 실천

임피면 등에 1200kg 쌀 전달



군산 성흥사(회주 송월 스님, 주지 보위 스님)가 지역 내 어려운 이웃을 위해 자비의 쌀 1200kg을 기탁하며 따뜻한 나눔을 실천했다.〈사진〉

군산 성흥사는 2월 25일 임피면 행정복지센터(면장 최금자)에 자비의 쌀 1000kg (10kg 100포)를 전달했다. 군산 장애인복지회 자립생활지원센터에도 쌀 200kg을 기부하며 소외된 이웃들을 향한 온정을 나눴다.

성흥사 회주 송월 스님은 "부처님 가르침을 실천하며 어려운 이웃들과 따뜻한 정을 나누는 것이 불자로서 도리"라고 말했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무등산 만경사, 어린이들에 간식 선물

2월 19일, 어린이집에 핫도그



무등산 만경사(주지 시공 스님)가 2월 19일 광주 광산구 해맑은어린이집을 방문 '시공 스님의 오늘은! 핫도그 DAY' 행사를 열고, 원생 80명에게 따뜻한 핫도그를 선물했다.〈사진〉

이날 행사는 자비신행회와 함께 진행됐다. 시공 스님과 만경사 신도들은 아이들이 좋아하는 핫도그를 직접 만들어 원생들과 선생님들에게 전달했다.

시공 스님은 "미래의 꿈나무인 아이들이 건강하고 즐겁게 간식을 먹는 모습을 보니 더욱 보람을 느낀다"고 소감을 전했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한마음선원 울산지원, UNIST에 발전기금

2월 24일, 1억 3000만원 기탁
마음과학 분야 연구 발전 위해



한마음선원 울산지원이 마음과학 분야 연구 발전을 위해 울산과학기술원(UNIST)에 발전기금 1억 3000만원을 기탁했다.〈사진〉

2월 24일 울산과학기술원(UNIST) 대학본부에서 진행된 발전기금 전달식은 한마음선원 울산지원 총무 혜자 스님과 재무 혜담 스님, 박종래 울산과학기술원(UNIST) 총장, 정웅규 발전기금운영단장 등이 참석했다.

혜자 스님은 "울산과학기술원이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어 기부를 결심하게 됐다"며 "뛰어난 연구 역량을 갖춘 울산과학기술원이 마음과학 분야에서도 큰 성과를 거두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종래 울산과학기술원 총장은 "한마음선원 울산지원에서 보여주신 뜻깊은 나눔에 깊이 감사드린다"며 "기탁해준 소중한 기부금은 마음과학과 의식과학 연구 발전을 비롯해 첨단과학을 포함한 다양한 연구를 지원하는 데 사용하겠다"고 전했다.

전달식 이후 참석자들은 UNIST의 핵심 연구시설인 UCRF(연구지원본부)와 지관 서가를 방문해 연구 환경을 직접 살폈다.

한마음선원 울산지원은 개원 이후 20여 년간 지역 인재 양성을 위한 장학사업을 꾸준히 이어오고 있다. 성낙두 경남지사장

정법사 대자유치원, 제98회 졸업식 개최

국화반 등 3개반 77명 졸업



통도사 마산포교당 정법사 부설 대자유치원이 2월 21일 정법사 만불보전에서 제98회 졸업식을 개최했다.〈사진〉 이날 국화반 26명, 백합반 25명, 연꽃반 26명 등 77명의 어린이가 졸업했다. 대자유치원 이사장 광우 스님과 박선영 원장, 하린영 정법사 신도회장, 조경희 다도회 고문, 졸업생 및 학부모 등이 참석했다.

광우 스님은 "삶의 모든 순간마다 바른 마음을 지니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생활 속에서 실천하는 마음으로 자라나기를 기원한다"고 어린이들을 축하했다.

이날 졸업식에서는 세자녀 모두 대자유치원을 졸업하는 김예준, 김예진, 전지호 가족에게 특별상이 수여됐다. 성낙두 경남지사장

창녕 관룡사 불교대학 제7기 졸업식

2월 22일, 51명 졸업생 배출



창녕 관룡사(주지 정안 스님)가 2월 22일 경내 대웅전에서 관룡사불교대학 제7기 졸업식을 봉행했다.〈사진〉 이날 졸업한 51명의 졸업생을 대표해 하회천, 백성자 불자가 정안 스님으로부터 졸업장과 신도품계증을 받았다.

관룡사 불교대학장 정안 스님은 "여러분은 이미 많은 사람에게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하며 묵묵히 제 역할을 다하고 있다"며 "오늘 졸업은 더 큰 보람의 시작이다. 지난 7기 졸업식이 있기까지 함께한 모든 이들에게 감사하다"고 말했다.

제8기 불교대학의 입학식은 3월 8일에 예정되어 있다. 성낙두 경남지사장

수도사지-괴태곶봉수대 복원 토론회 열려

2월 22일 수도사서 토론회 개최



괴태곶봉수대되찾기&안전대책시민운동본부(상임대표 적문 스님)와 금요포럼(대표 김훈)은 2월 22일 평택 수도사(주지 적문 스님) 경내 원효대사깨달음체험관에서 괴태곶봉수대와 수도사지의 발굴과 복원방안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사진〉

토론회는 괴태곶봉수대와 수도사지의 역사적 가치를 재조명하고, 체계적인 복원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마련됐다.

적문 스님은 "앞으로 우리의 역량을 결집해 수도사지 발굴·복원에 힘쓰자"고 강조했다. 유재상 충청지사장

향덕 스님 "한국·에디오피아 협력 강조"

투자포럼서 양국의 상생 기대



울산 천만사 향덕 스님〈사진〉이 2월 25일 서울 명동 전국은행연합회 2층 국제회의실에서 열린 한·에디오피아 투자포럼에서 한국과 에디오피아의 경제 협력과 상생을 기원했다. 향덕 스님은 UN NGO 세계평화대사와 한국·에티오피아 문화경제교류총영사로 활동하고 있다.

향덕 스님은 "한국과 에티오피아는 한국전쟁을 통해 깊은 인연을 맺은 나라이다"라며 "에티오피아는 풍부한 자원과 젊은 인재를 보유한 국가로 이는 양국 경제 발전의 원동력이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성낙두 경남지사장

印, 라트나기리 유적 1.4m 불두 발견 '눈길'

1961년 조사 후 최근 재발굴
새로운 불교유물들 대거 출토
오대샤 발굴 최대 불두 꼽혀
중국 제작 청자 발견돼 관심

박영빈 객원기자


유적지에서 발굴된 1.4m 높이의 석조불두. 사진출처=더 힌두

인도 동부의 오디샤주에 소재한 불교유적지 라트나기리(Ratna gir)에서 새로운 유적과 유물들이 대거 발견돼 화제다. 인도 고고학 조사국(ASI)은 1961년 마지막으로 발굴조사를 진행한 라트나기리 유적군을 재발굴하는 과정에서 새로운 사원 유적군과 불상, 불탑 등이 대거 발견됐다고 전했다. 이 놀라운 소식을 2월 22일 인도의 '더 힌두'가 특별 보도했다.

현지언어로 '보석의 언덕'을 뜻하는 라트나기리는 자즈푸르 지구의 언덕에 위치하고 있다. 특히 이곳은 반경 10Km 이내에 또 다른 불교사원군인 우다야기리, 랄랏기리와 함께 불교유적의 삼각지로 불리고 있다.

라트나기리는 지난 60년대에 실시한 조사 당시 발견된 비문들에서 '길상한 라트나기리 대사원과 성스러운 비구승가'라는 명문이 나와 이곳이 불교사원임이 밝혀졌다. 학자들은 5세기부터 13세기까지 번성했으며 특히 밀교의 중심지였던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사원들은 이슬람의 침공으로 13세기에 황폐화 됐으나 이 지역의 불교 활동은 16세기까지 계속된 것으로 학자들은 보고 있다.

2024년 12월 1일부터 시작된 재발굴 조사는 기존에 발굴된 유적지의 남쪽 언덕에서 시작됐다. 현재 발굴된 최대 성과로는 1.4m 높이의 불두로 현재까지 오디샤에서 발굴된 불두 가운데 최대 크기로 꼽힌다. 특히 이 불두는 발굴 작업이 개시되던 당시 이곳에서 법회를 봉행하고 있던 티베트 스님들의 제보로 찾은 것으로 전한다. 1500명의 스님들이 모일 법회장을 정비하던 중 지표에서 불두의 나발이 발견되면서 고고학자들에게 제보한 것이다.

불두를 발굴한 수석고고학자 가르나야크는 "당시 사람들이 원시적인 도구로 이렇게 섬세하고 복잡한 조각을 한 것에 대해 경탄을 금치 못했다. 이 불두 외에도 바로 근처에서 다른 불두 2점을 더 발견했다"고 전했다.

약 3개월에 달하는 발굴 과정에서 발굴팀은 수 백 개의 석제 봉헌탑과 불상을 봉안한 것으로 보이는 거대한 사자좌를 비롯해 보생여래, 아촉여래, 마리지천, 타라보살과 같은 밀교의 불상들을 발굴했다. 발굴현장을 지휘 중인 보조 감독관 프라단은 현재 유적지의 발굴 작업은 초기 단계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프라단은 "구조물을 완전히 해독하고 그 목적을 파악하려면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 일부 유구들은 건물을 벽들이 온전하지만 그 모든 구조물이 동시에 지어진 것이 아니다"라며 분석 작업에 어려움이 있다고 전했다. 또한 "유구와 불상들, 불단, 봉헌탑들의 잔해들을 통해 어느 시점에서 사원에 대한 파괴 행위가 있었을 가능성 시사된다"고 설명했다.

학자들은 불교유물 외에도 여러 토기와 도자편들을 대거 발굴했다. 이 가운데는 중국에서 제작된 것으로 보이는 청자편도 있어, 학계의 관심을 끌고 있다. 발굴작업은 오는 3월 말까지 진행될 예정이며 여름이 지나고 다시금 재개된다.

대만 자제공덕회, 룸비니서 여성 무료 진료소 운영

취약여성 건강 관리 장벽 해소
장기적인 의료 지원 계획 예정


여성 건강 무료 진료소에서 진료를 기다리는 네팔 · 인도 여성들. 사진출처=자제공덕회 홈페이지

대만 불교계 비정부기구 자제공덕회 의료팀이 네팔 룸비니에 부인과 무료 진료소를 열어 주민들의 호평을 받았다. 2월 19일 불교전문매체 '부디스트도어 글로벌'은 자제공덕회 의료팀의 여성 건강 무료 진료소 운영 소식을 전했다.

지난해 12월 12~13일 이틀간 운영된 여성 건강 무료 진료소를 통해 총 250명의 여성이 진료받았으며, 약 200개의 약물이 처방되었고 5명의 여성이 추가 치료 진단을 받았다. 9명의 여성은 기저 건강 상태를 파악하기 위해 초음파 검사를 진행했다. 의료진과 자원봉사자들은 이 과정에서 단순한 치료를 넘어 지역 사회와 연대감을 형성하며 여성들이 건강을 중요하게 여길 수 있도록 독려했다. 이는 의료 접근성이 낮고 사회적 편견으로 인해 여성 건강 관리가 소홀히 여겨지는 지역에서 중요한 변화를 이끈 것으로 평가된다.

무료 클리닉이 열린 첫날, 룸비니 인근의 여성들은 이른 아침부터 긴 줄을 서며 의료 상담을 받기 위해 기다렸다. 오전 8시부터 진행된 진료에서 자원봉사자들은 환자 등록, 분류 평가, 검사 등의 절차를 체계적으로 운영하며 원활한 의료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했다.

자제공덕회 의료팀 관계자는 "매우 보수적이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회에서 많은 여성들이 낙인과 여성 의사에 대한 접근 제한으로 인해 부인과 문제를 묵묵히 견디고 있다"며 "절실히 필요한 치료를 제공하고 여성들이 자신의 복지를 우선시하도록 장려하는 것을 목표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 클리닉은 네팔과 인도의 취약 지역 사회에 의료 지원과 인도적 구호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부처님의 고향으로 돌아가기' 프로젝트 일환으로 마련됐다.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네팔의 자원봉사자들이 협력하여 진행했다. 네팔과 인도 국경 지역에서는 의료 인프라가 부족할 뿐만 아니라, 문화적 장벽으로 인해 여성들이 적절한 치료를 받기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자제공덕회는 여성 건강을 중심으로 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며, 여성들이 자신의 건강을 우선시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을 목표로 삼았다.

진료를 받은 비나 쿠마리 하리잔(23)은 "오랜 기간 복통을 참아왔지만 지역 내 여성 의사 부족과 의료 접근성 문제로 인해 적절한 상담을 받을 기회가 없었다"면서 "이번 클리닉을 통해 여성 의사와 직접 상담할 수 있었고, 필요한 치료를 받을 수 있어 큰 안도감을 느꼈다"고 전했다.

김민재 객원기자

호쿠리쿠 신칸센 연장에 교토불교회 반발

"자연 · 문화유산 큰 피해 예상"
'천년의 우행' 강력 비판 나서


교토부 지사에게 신칸센 연장에 반대하는 성명을 전하고 있는 교토불교회 임원들. 사진출처=아사히신문

일본의 고도인 교토, 교토부에 소재한 1100개소의 사찰들이 참가하는 교토불교회가 호쿠리쿠 신칸센의 연장 계획안을 철회할 것을 강력하게 요구하고 나서 논란이 일고 있다. 2월 21일 일본의 '아사히 신문', '산케이 신문' 등 주요 언론은 교토불교회의 행보에 대해 집중 보도했다.

호쿠리쿠 신칸센은 1998년 처음 개통되어 현재 군마현의 타카사키역을 지검으로 후쿠이현의 츠루가역까지 전구간 470km로 동일본과 서일본을 연결하는 주요 노선이다. 2016년 현 종점인 츠루가 역에서 오사카까지 연장 계획이 발표됐고 연장 구간에 대해서는 총 5가지 구간안이 제안되었으나 2017년 오마바역을 경유하는 안이 확정됐다. 이에 따라 환경평가와 공사 안들이 속속들이 발표되면서 논란이 일기 시작했다.

현재 최종 선정된 오마바 경유루트에 대해 반대하는 교토불교회 측은 "2km에 달하는 터널을 뚫어야 하는 등 자연환경을 파괴하는 공사가 상당수"라며 "지하수위의 저하에 따른 싱크홀 문제, 수맥 단절에 따른 공공수원의 고갈, 지반침하 등 교토에 소재한 수많은 문화유산과 세계유산등에 큰 피해가 예상된다"고 지적했다.

더욱이 교토불교회는 지난 12월 공식적으로 교토부 지사와 시장에게 제출한 재고요망서에 "천년의 우행(愚行)이 아닐 수 없으며, 교토불교회는 단호한 결의로 계획안의 백지철회를 요망한다"는 표현을 사용하면서까지 강하게 비판했다. 이에 니시와키 타카토시 교토부 지사는 "불교계의 의견을 진지하게 수용하여 적절하게 대응하겠다"고 답했다.

현재 교토불교회는 지난 재고요망서를 시작으로 호쿠리쿠 신칸센 연장안에 대한 철회를 요구하는 서명운동에 나섰다. 서명은 1년간 50만명을 목표로 진행되며 불교회의 스님들이 가두에서 서명운동을 진행하거나, 회에 동참하는 사찰에서 받을 계획이다.

박영빈 객원기자

남미 최대 불교사원, 브라질서 영향력 확대

대만 불광산 종단 여래사
종교 · 문화 허브 자리매김


브라질 불광산여래사의 명상 수련회. 사진출처=부디스트도어 글로벌

브라질 상파울루 외곽에 자리 잡은 남미 최대 불교사원 '불광산여래사(佛光山如來寺)'가 종교적 영향력을 확대하며 주요 관광 명소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지난 2월 19일 미국 언론 '더 월드'는 불광산여래사의 브라질 내 종교적 영향력 확대에 대해 보도했다.

상파울루 인근 코티아(Cotia)에 위치한 여래사는 대만의 '불광산(佛光山)'이 1992년에 개산한 남미 최초의 불교 사찰이다. 2003년 대대적인 확장 공사를 거쳐 약 3000평 규모의 도량으로 정비했으며 빼어난 경관으로 코티아의 대표 명소가 되었다. 현재 여래사는 매달 1만 5000명 이상의 방문객이 찾는 명소로 성장했다.

여래사 주지 요우 먀오 스님은 "사람들이 이곳에 와서 마음의 평화를 찾고 미소를 지으며 치유하는 공간으로 여긴다"면서 "문화 행사, 교육 프로그램, 사회봉사 활동 등을 통해 지역 사회와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있다"고 밝혔다.

브라질에는 약 25만명의 재가자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는 인구 2억 2000만명이 넘는 브라질에서 비교적 적은 수치지만, 불교의 실질적 영향력은 훨씬 크다는 분석도 나온다.

김민재 객원기자

최고의 연등만을 고집해 온 대광불교

대광불교는 연등전문 기업입니다. 대광불교만의 독특한 디자인과 숙련된 노하우로 각종 연등을 제작 보급하고 있습니다.
항상 등불을 밝히는 마음가짐으로 등 제작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대광불교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매자리길 113 | E-mail : hskhsg@naver.com | 010-9446-1862 | 010-2788-7270 | 031)768-7270 | 031)768-7271

범어사 독립운동 기록들을 망라하다

범어사 성보박물관 '임시정부 기억상자' 순회전

대한민국임정기념관 공동으로
오는 4월 13일까지 전시 진행
"범어사 주요 인물들 독립 활동
숭고한 업적들을 기리는 자리"

신중일 기자 motp79@hyunbul.com

부산 범어사를 기반으로 활동했던 독립운동가 스님들의 삶의 궤적을 한자리에서 만나볼 수 있는 전시회가 열린다.

범어사 성보박물관(관장 정오 스님)은 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과 공동으로 3월 1일부터 4월 13일까지 2층 기획전시관에서 '대한민국 임시정부 기억상자' 순회전을 개최한다. 3.1절 106주년과 광복 80주년을 맞아 열리는 이번 전시는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역사적 의미를 재조명하고, 범어사와 관련된 독립운동의 역사를 널리 알리기 위한 자리로 마련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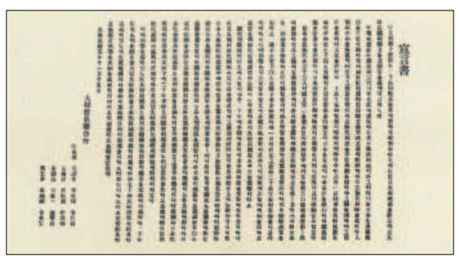
'대한민국 임시정부 기억상자' 전시는 총3부로 나눠 진행된다. 1부 '범어사와 3.1운동'에서는 범어사 근대교육기관의 역할 및 3.1운동 참여와 백용성 스님·만해 한용운 스님·오성월 스님·김법린 등 범어사 관련 인물들의 임시정부 활동을 집중 조명한다.

범어사는 1919년 3월 7일 부산 동래장터에서의 만세운동을 시작으로 독립운동에서 지속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 백용성 스님, 만해 한용운 스님, 오성월 스님, 김법린 등 범어사의 주요 인물들은 불교적 신념을 넘어 민족독립을 위한 활동에 헌신하며 대한민국 임시정부와도 긴밀히 협력했다. 전시에서 이들의 독립 활동을 보여주는 유물이 전시되어 관람객들에게 깊은 감동을 선사한다.

백용성 스님(1864~1940)은 3.1운동 민족대표 33인 중 한 명으로 독립선언서에 서명해 징역형을 선고받고 옥고를 치렀다. 그는 불교를 통해 민족정신을 지키고, 일본의 사찰령에 맞서 '건백서 제출사건'을 주도하며 불교 부흥운동을 이끌었다.

만해 한용운 스님(1879~1944)은 불교계 민족대표로 독립운동과 시문학을 남긴 중요한 인물이다. 1911년 일본 불교의 침탈을 막기 위해 임제종 운동을 주도하고, 범어사와 깊은 인연을 맺으며 3.1운동에 참여했다. 1919년에는 '대한승려연합회 독립선언서'에 서명하며 불교가 독립항쟁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스님은 범어사 경성포교당을 통해 임시정부와 불교계의 연결 역할을 했으며, '용성대선사사리탑비록서문'을 통해 용성 스님의 업적을 기리기도 했다.


범어사 성보박물관 소장 만해 한용운 스님 필첩. '부처님의 빛이 나의 마음 속에 가득히 비치도다' 라고 쓰여있다.


1919년 11월 15일 중국 상하이에서 발표된 대한승려연합회 독립선언서.


김법린의 프랑스 파리 유학시절 사진. 앞줄 오른쪽 두 번째가 김법린이다.

오성월 스님(1866~1943)은 3.1운동을 후원하고 대한승려연합회 독립선언서에 서명한 불교계 독립운동의 선구자였다. 그는 범어사의 선찰대본산의 사격을 확립하고, 명정학교와 지방학림 등 교육기관을 설립하여 민족의식을 고취하고 인재 양성에 힘썼다. 오성월 스님은 임시정부 고문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했으며, 범어사의 자금이 상해 임시정부에 전달되도록 하여 항일운동을 지원했다.

김법린(1899~1964)은 1919년 만세운동 후 중국 상해로 망명, 한국민단본부 대표로 활동하며 독립운동을 했다. 그는 임시정부와 독립운동 단체 간 연결을 시도하고, '화신공보'를 발간해 독립운동 소식을 전파했다.

'군주의 나라에서 국민의 나라로'에서는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설립과 임시정부의 주요 활동을 다룬다.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1919년 4월 11일 상하이에서 수립되어 최초의 민주공화제 정부로서 활동을 시작했으며, 외교, 군사, 행정 등 다양한 분야에서 대한민국을 대표하며 독립운동을 이끌었다. 전시에서는 이 과정에서 임시정부의 행정부 수반으로서의 역할과 그들이 직면한 도전들을 살펴본다.

3부 '임시정부에서 정부로'에서는 1948년 건립된 대한민국 정부는 임시정부의 헌법, 국호, 태극기, 애국가 등 중요한 요소들을 계승한 이야기를 다룬다. 임시정부는 광복 후 한국으로 돌아와 혼란 속에서 새 나라를 세우기 위한 노력을 기울였다. 특히, 임시정부의 민주공화제 정부로서의 의미를 되새기며, 독립운동이 대한민국의 건국에 끼친 영향을 강조한다.

범어사 성보박물관은 전시와 함께 어린이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체험지와 퀴즈를 제공하여 교육적인 효과를 극대화할 계획이다.

범어사 성보박물관장 정오 스님(범어사 주지)은 "독립운동가들이야말로 나라와 민족을 위해 고난 속에서도 굴하지 않으며 희생을 감내한 진정한 보살의 모습"이라며 "독립운동가들의 희생정신을 깨닫고, 우리 모두가 하나 되어 힘차게 나아가기를 소망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전시가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역사와 관련된 다양한 인물들의 이야기와 그들의 희생을 기억하고, 미래로 이어지는 희망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기대했다.

봉선사, 청소년 대상 연극 템플스테이

강윤아 교수 일인극 선보여
'아름다움' 매개로 사유 선사

조계종 제25교구본사 봉선사(주지 호산 스님)가 2월 23일 경내 휴월당에서 청소년을 대상으로 체험형 연극 템플스테이 프로그램을 진행했다.〈사진〉



이번 템플스테이에서는 강윤아 한국예술종합학교 교수가 연극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노래를 찾아 떠난 소녀의 이야기'를 새롭게 선보였다. 연극은 아름다운 노래를 찾아 떠나는 소녀의 여정을 노래와 스토리텔링으로 재현한 소규모 일인극(공연 시간 60분)이다. 청소년 관객을 위한 공연으로, '가장 아름다운 노래는 무엇일까'에 대해 질문들 던지고, 관객들이 각자의 삶에서 아름다운 것을 발견할 수 있도록 꾸며졌다.

강윤아 교수는 한국예술종합학교 연극원에서 아동청소년극을 연구·교육하고 있다. 저서로는 청소년 시절 연극 경험을 다룬 자전적 연구 '그대를 찾아서'와 '유럽 영유아극 예술가들과의 대화' 등이 있다. 강 교수의 창작 희곡인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노래를 찾아 떠난 소녀의 이야기'는 한국아동청소년극협회(아시테지) 창작 희곡선 수록작이다. 종교기관, 수련관, 학교, 도서관 등 청소년이 있는 곳을 찾아 '아름다움'을 매개로 소통하는 2025 순회 프로젝트 '세상에서'의 일환으로 템플스테이도 기획됐다.

연극 템플스테이를 기획한 봉선사 연수국장 청호 스님은 "이번에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정해서 진행했지만, 다양한 문화 콘텐츠를 활용해 여러 계층이 참여할 수 있는 템플스테이를 계획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내영 기자

대행선, 구조로 살펴보다

대행선연구원 계절발표회
3월 15일 안양본원서 개최

묘공당 대행 선사(1927~2012)가 전했던 대행선의 구조를 살펴보는 자리가 마련된다.

한마음선원 부설 대행선연구원(원장 혜선 스님)은 3월 15일 오후 1시 30분 안양본원 3층에서 제22회 계절발표회를 개최한다.

이날 계절발표회에서는 최원섭 대행선연구원 연구원이 '구조로 보는 대행선: 대행선의 대중화를 위한 시론'을 발표한다. 논평자로는 김은영 동국대 불교학술원 교수, 오진영 대행선연구원 연구원이 참여한다.

또한 이번 계절발표회에서는 다양한 주제의 특강도 진행된다. 첫 강사로는 양형진 고려대 교수가 참여하며 '현대물리학으로 보는 불교-양자역학과 상대성이론으로 보는 연기와 무아의 진공묘유'를 주제로 강연한다. 강연 이후에는 정준영 서울불교대학원대학 교수와 대담도 진행된다.

한편, 2023년부터 시작한 한마음선원 지원 소개에서는 중부경남지원장 혜춘 스님이 도량 현황과 불사 과정을 소개할 예정이다.

신중일 기자

예술에 깨달음을 녹여내다

타라하우스, '깨달음 비전'展
이난 작가 1주기 추모 담아

마이트리야 상가 타라하우스는 3월 5일부터 3월 11일까지 조계사 내 나무갤러리에서 '깨달음의 비전-이난과 친구들'이라는 주제로 여류 작가 3인 고(故)이난〈사진〉, 엄승희, 효천 윤석희의 작품을 전시한다.



마이트리야 상가는 붓다의 가르침 아래 함께 수행의 길을 걸어갔던 도반이자 탱화작가였던 고 이난의 1주기를 기리며 그녀의 예술혼을 되돌아 보기위해 이번 전시회를 기획했다.

원래 현대미술 작가였던 이난은 티베트 불교를 접하고 수행을 길을 걸어오며 20여년 전부터 탱화 작가로서 길을 걸어왔으며, 그녀의 작품들은 중앙아시아와 히말라야 지역에 걸쳐져 있는 불교미술의 전통을 녹여내면서도 작가만의 시각과 해석을 통해 독특한 정체성을 가지고 있다.

협업 작가로 함께 전시회에 참여하는 엄승희는 불교미술에 다양한 현대미술의 기법을 적용한 작품을 선보이며, 효천 윤석희는 동판을 소재에 불교미술을 접합한 작품들을 선보인다.

신중일 기자

국내 최초 '불교정신치료'를 개척한 정신과 의사 전현수 박사,
40년간의 공부와 수행으로 검증한 불교를 말하다!

"불교를 공부하면서 부처님이 한 말이니까
그대로 믿어야 한다고 생각한 적은 한 번도 없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우리의 크고 작은 괴로움을 해결하는 데 초점이 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그대로 이해하고 실천하면 괴로움은 점점 줄어든다. 나 또한 부처님의 가르침을 만나기 전에는 괴로움이 있었다. 좋을 때도 있었지만, 괴로움은 계속되었다. 이때는 이래서 괴로웠고, 그때는 그래서 괴로웠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접하고 이해하고 실천하니 그런 괴로움들이 사라지기 시작했다. 괴로움 없이 살 수 있다는 희망이 생겼다." - 본문 중에서

정신과 의사가 들려주는
불교 사용 설명서
삶과 수행으로 검증한 초기불교의 가르침
전현수 지음 | 640쪽 | 30,000원
교보문고 YES24, 알라딘 종교 분야 베스트셀러!

'마음을 씻는 경전' 세심경洗心經 『주역』
핵심만 알아도 세상 문리가 트인다!

동양철학 최고 고전 『주역』의 인문학을 섭렵하는 순간,
세상 이치와 통하는 인생 경영의 키를 쥐게 된다!



세계적 인물들이 극찬한 『주역』
『주역』을 가죽끈이 3번 떨어질 정도로 읽은 공자
"배우게 된다면 큰 허물은 없을 것"
『주역』을 500번 탐독한 탄허 스님
"불교를 제외한 최고의 철학!"
『주역』과 무의식을 접목한 정신분석학자 칼 융
"지혜를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올바른 책"

마음을 씻고 세상을 꿰뚫는 경전
주역의 눈
이선경 지음 | 272쪽 | 20,000원

불광출판사 전화 02) 420-3200 | www.bulkwang.co.kr | 불광미디어

금주의 베스트 불서 10 2/26~3/4

불서총판 운주사 제공 02)3672-7181

순위	도서명	저자	출판사	순위	도서명	저자	출판사
1	불멸(3)아무래도아무렇지않은	이각	지혜의눈	6	불교성전	조계종 포교원	조계종출판사
2	무비스님의임제록강설	임제의현/무비	불광	7	불교와과학(대원불교학술총서21)불교의지혜와서양의과학이만나다	엘런 윌리스 편집	운주사
3	요가디피카(아헹가요가시리즈1)육체의한계를넘어	아헹가/현천 역	선요가	8	불멸(2)실체없는자존심	이각 지음	지혜의눈
4	무비스님신금강경강의(어플경전강의01)큰글자책	무비 스님	불광출판사	9	금강경육조대사구결	육조/백운/이동형운주사	
5	성철스님의신심명증도가강설	성철 스님	장경각	10	아사나쁘라나야마무드라반다	사라스와띠	한국요가출판사

책세상

'광개토태왕릉비·진경대사탑비의 진실은…



비문전쟁
도명 스님 지음
북랩출판사/2만 원

광개토태왕릉비와 진경대사탑비의 변조된 비문 추적 원래 내용 복원
진경대사탑비 변조의 실체 확인해
도명 스님 "역사 있는 그대로 봐야"



저자 도명 스님.



광개토태왕릉비 동쪽 1면 모습.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jayanti@hyunbul.com

한일 역사 왜곡의 도구로 악용됐던 광개토태왕릉비와 진경대사탑비의 진실을 파헤친 신간 〈비문전쟁〉(부제: 광개토태왕릉비와 진경대사탑비의 진실)이 출간됐다.

도명 스님(사단법인 가야문화진흥원 이사장)이 집필한 이 책은 일제가 변조한 비문을 추적해 원래의 내용을 복원하고, 이를 통해 한국 고대사의 숨겨진 조각을 찾아가는 역사서다. 특히 '가야 임나설(伽倻 任那說)'의 근거가 되어 온 광개토태왕릉비와 진경대사탑비를 중심으로 일본 제국주의 참모본부의 역사 조작을 밝혀내며, 한·일 역사 연구의 새 지평을 열었다.

가야 임나설은 고대 가야가 일본의 식민지였거나 일본과 밀접한 종속 관계에 있었다는 주장이다. 이는 일본 학계에서 '임나일본부설(任那日本府說)'과 연결되며, 일본이 한반도 남부를 지배했다는 근거로 활용돼 왔다. '임나'는 고대 문헌에서 가야를 지칭하는 명칭 중 하나다. 특히 일본의 고대 역사서인 일본서기(日本書紀)에서 '임나(任那)'라는 표현이 등장하는데, 일본 학계는 이를 바탕으로 가야가 일본의 지배를 받았다고 해석해 왔다.

임나일본부설은 4~6세기 동안 일본이 한반도 남부(가야 지역)에 일본부(일본의 지방 행정 기관)를 설치하고 다스렸다는 주장이다. 일본 학계에서는 이를 일본의 한반도 지배의 근거로 삼아 왔으며, 일제강점기에는 조선 식민지배를 정당화하는 논리로 사용됐다.

광개토태왕릉비는 한반도 남부와 일본 열도의 관계를 규명하는 중요한 사료로 평가받지만, 19세기 말 일본군이 조작했다는 의혹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도명 스님은 "일본 참모본부가 광개토태왕릉비의 '신묘년 기사'와 '경자년 기사'를 변조해 한반도 남부에 일본 세력이 존재했다는 '임나일본부설'을 정당화하려 했다"고 지적하며, 비문의 원문을 복원하는 작업을 진행했다.

스님은 기존 연구의 모순을 분석하고, 원석 탁본의 신뢰성까지 철저히 검증했다. 특히 "원석 탁본이 변조되지 않았다는 학설은 오류"라며 "일제가 밀정을 파견해 역사 조작을 시도했고, 변조된 원석 탁본을 이미 숨겨놓았을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했다.

진경대사탑비 역시 일본 학자들에 의해 의도적으로 해석이 왜곡되었다는 점을 강조한다. 스님은 "일제가 김유신 장군을 진경대사의 선조로 만들기 위해 비문의 문장을 조작했다"며 "실제 내용은 김유신이 대사의 조상이 아니라, 귀순한 초발성지(初發聲地)와의 관계를 기리는 내용"이라고 설명한다.

일본과 국내 일부 학자들은 진경대사탑비의 잘못된 풀이를 바탕으로 가야 지역이 고대 임나이며, 가야 왕족의 후손인 김유신을 임나의 왕족으로 잘못 인식하고 있다. 그 핵심 근거는 비문 속 다음과 같은 구절이다.

"大師諱審希 俗姓新金氏 其先任那王族草拔聖枝 每苦隣兵 投於我國遠祖興武大王."

일반적으로 '임나 왕족 초발성지(草拔聖枝)'를 "임나의 왕족이요, 풀에서 성스러운 가지를 뽑았다"는 식으로 해석하지만, 도명 스님은 이를 잘못된 풀이로 본다. 그는 초발성지를 인명(人名)으로 해석하면서 새로운 사실을 밝혀냈다.

도명 스님에 따르면 초발성지는 대사의 선조로서 중요한 역할을 했던 인물이며, 일본열도 내 임나 왕족이었으나 주변국의 침략으로 인해 신라에 투항했다. 그리고 당시 신라의 국왕이었던 선덕여왕이 아니라, 김유신 개인에게 귀순하면서 신김(新金) 씨 성을 받게 되었고, 이후 신김 씨 가문의 중시조가 되었다는 것이다. 비문의 정확한 해석은 다음과 같다.

"대사의 이름은 심희요, 속성은 신김씨이며, 그 선조는 임나 왕족 초발성지인데, 매번 주변국 병사들에게 괴로움을 받다가 우리나라의 먼 조상 흥무대왕에게 투항하였다. 흥무대왕은 오산의 정기를 받고 동해의 정기를 타고서 문부를 쥐고 재상의 집안에 태어나 무략으로 왕실을 높이 떠받들었으며."

두 번째 문장에서 주어가 생략되었지만, 앞 문장의 목적어인 '흥무대왕(興武大王)'이 반복되며 주어 역할을 하기 때문에 문맥상 명확하다는 설명이다. 흥무대왕은 신라의 김유신을 추존한 칭호이다.

도명 스님은 이러한 해석을 통해, 일본이 임나일본부설을 정당화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진경대사탑비의 문장을 변조했음을 밝힌다. 특히 명사를 동사·형용사로 바꾸는 방법으로 문장의 의미를 변형시켜, 비문의 본래 의미를 왜곡했다고 주장한다.

도명 스님은 "역사는 있는 그대로의 사실이 가장 중요하다"며, "일제의 역사 왜곡이라는 미망을 걷어내고 두 비문을 있는 그대로 바라볼 때 비로소 잃어버린 한국 고대사를 되찾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도명 스님은 정여 대종사를 은사로 1998년 범어사에서 출가했다. 불국사 승가대학을 졸업한 후 토굴과 선원에서 정진했으며 2009년부터 김해에서 포교 활동을 하며 가야의 역사와 인연을 맺었다. 현재 잃어버린 가야불교의 발굴과 왜곡된 우리 고대사를 바로 세우는 데 힘쓰고 있다.

한국인 사유 근간 '동양사상'



지혜로운 삶을 위한 동양사상 강의
성태용 지음 / 북튜브 / 2만2천원

지난 100년 동안 우리는 급격한 서구화를 겪었다. 하지만 우리 정신세계의 근간은 동양적 가치관에 있었고, 지금도 마찬가지이다. 따라서 오늘날에도 여전히 동양사상은 우리 사회를 이해하기 위한 필수적인 교양이라고 할 수 있다.

책 〈지혜로운 삶을 위한 동양사상 강의〉는 여전히 한국인의 사유 전반에 흐르고 있는 동양사상을 인도와 중국의 사상들을 중심으로 살펴보는 책이다. 저자는 책에서 인도와 중국의 사상을 넘나들고 때로는 서양철학까지 보탬으로써 동양사상 전반의 지도를 그려낸다.

우선 불교를 통해 우리에게 큰 영향을 미친 인도의 사상으로는 〈바가와드 기타〉를 중심으로 베다 전통의 '정통'철학을 설명하고, 그에 대립하며 시작된 '비정통' 사상인 불교의 핵심적 교리와 역사적 전개 과정을 상세히 살펴보고 있다.

중국 쪽 사상은 우선 유가 사상으로는 공자, 맹자, 순자와 같은 선진시대 유학을 설명하고, 각각의 사유가 공유하는 지점과 차이점을 상세히 설명하고 있다. 이런 논의를 바탕으로 노장, 〈주역〉. 성리학까지 한국인의 심성을 이루는 데 큰 영향을 미쳤던 사상들을 총망라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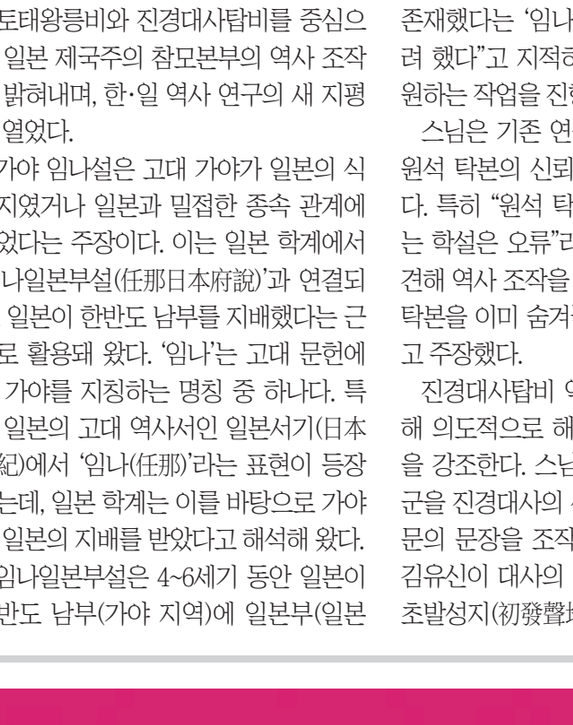
책은 시공간적으로 넓은 범위의 사유들을 다루고 있지만, 책을 관통하는 저자의 일관적인 관점은 '사상과 토양은 분리될 수 없다'는 것이다. 저자는 오늘날 서구화된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는 대개 동양사상에 대해 두 가지 상반된 관점을 가질 수 있다고 이야기한다. '과학의 시대에 어울리지 않는 구태의연한 사상'이라는 생각과 '비인간적인 서양의 가치관을 극복하기 위한 대안'이라는 입장이 그것이다. 저자는 이런 두 가지 유형의 생각이 모두 위험할 수 있다고 이야기한다. 오랫동안 우리의 사유와 심성을 만들어 왔고, 여전히 내면에 저류하고 있는 사상들은 쉽게 사라지지 않을뿐더러 그 훌륭한 점을 돌아보지 않고 무조건 배척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라는 것, 그렇다고 그 사상을 지금-여기에서 바로 적용하겠다고 하는 것도 위험한 일이라는 주장이다. 특정한 사상은 특정한 토양에서 특정한 인간성을 지향하면서 만들어진 것이기에 시대를 뛰어넘어 바로 적용될 수는 없다는 것이다.

이런 관점에서 저자는 균형 잡힌 시각으로 '있는 그대로의 동양사상'을 바라볼 것을 당부한다. 그렇게 했을 때, 동양사상을 낡은 것이라고 무조건 배척하거나 '동양의 것이 가장 좋다'라는 식의 시대착오적인 수용에서 벗어날 수 있고, 동양사상이 오늘날 한국사회를 살아가는 이들에게 실질적이고 실천적인 지침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박재완 기자

화제의 신간

사랑하는 사람을 보호하는 3일 기도

3일이라는 짧은 시간 안에, 삶의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오는 책!
실천 가능한 기도의 방식과, 수행의 가치를 알기 쉽게 설명한 책!



수호신 기도
사랑하는 사람을 보호하는 3일 기도
묘장 편저 | 112쪽 | 10,000원

현재 연화사 주지, 국제구호단체 더프라미스 이사장, 대한불교조계종 사회복지재단 대표이사, 희망브리지 전국재해구호협회 이사, 불교신문 논설위원. 아이티 대지진, 동일본 대지진, 태국 대홍수, 네팔 대지진, 포항 지진, 모로코 지진에 재난구호활동과 우크라이나 전쟁난민 지원 활동을 하였다.
저서로 『도표로 읽는 부처님 생애』가 있으며, '나는 절로' 조계종사회복지재단 대통령상 수상(2024), 조선일보 '아이가 행복입니다' 어워즈 대상을 수상(2024)하였다.



민족사 02)732-2403~4 | www.minjoksa.org

“불교 자체가 훌륭한 정신치료”



불교사용설명서
전현수 지음
불광출판사 / 3만원

박재완 기자 wanihollo@hanmail.net

무언가를 배워서 아는 것과 직접 체득하는 것은 크게 다른 것이다. 전자가 지식이라면 후자는 깨달음이다. 다시 이야기하면 안다는 것과 깨닫는다는 것은 완전히 다른 차원인 것이다. 비슷한 것처럼 보이지만 전혀 다른 이야기다.

깨달음은 불교에서의 궁극적 가치다. 깨달았을 때 비로소 삶이 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저자이자 정신과 의사인 전현수 박사(사진)는 오래 전에 초기불교에 바탕을 둔 ‘불교정신치료’라는 새로운 치료체계를 선보인 바 있다. 40여 년간 부처님의 가르침을 배우고 실천해온 전 박사는 공부가 깊어지면서 자신의 전공이자 직업인 정신의학이 불교와 많이 닮았다는 것을 알았다. 전 박사는 불교 공부와 수행을 하면서 자기 자신과 세상을 이해하는 사고의 폭을 넓힐 수 있었고, 이를 바탕으로 괴로움도 점점 줄일 수 있었다. 그렇게 불교는 전 박사 삶의 중심이 됐다. 그리고 2014년 불교와 자신에 대한 의문이 사라지면서 세속의 많은 괴로움들을 떨쳐냈다. 불교 자체가 훌륭한 정신치료라는 것을 알게 된 것이다.

“정신의학과 정신치료를 하는 나에게 초기불교는 세상의 이치를 밝히는 궁극적 과학이고, 사람들의 괴로움과 정신 문제를 완벽하게 치료하는 궁극의 치료법이다. 그래서 나는 초기불교에 바탕을 둔 ‘불교정신치료’라는 새로운 치료 체계를 세울 수 있었다.”

책 〈불교사용설명서〉는 전 박사가 평생의 불교 공부를 집약해 삶에 도움이 되는 가르침을 가려 뽑아 정리한 책이다. 단순히 부처님 말씀을 전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정신과 의사의 처방

초기불교 바탕 불교정신치료 개발
불교 자체가 훌륭한 정신치료 입증
초기불교 5가지 핵심 가르침 담아
경험 통해 검증한 부처님 말씀 수록

전인 것이다. 정신적으로 힘겨운 사람들을 위한 치료제인 것이다. 단지 부처님 말씀이라서, 경전에 있는 말씀이라서가 아니라 누구에게나 보편적인 인생의 지혜가 될 수 있는 깨달음이라는 차원에서의 의미인 것이다.

“밧디야여, 그대는 소문으로 들은 말을 그대로 따르지 마라. 대대로 전승되어 왔고, 성전에 있는 말이라도 그대로 믿지 마라. 그 말이 논리적이라 생각해도, 추론이나 적절한 이유라고 생각해도, 사색하여 얻은 견해와 일치한다고 생각해도, 또는 유력한 자나 스승이 한 말이라도 그대로 따르지 마라.” 〈앙굿따라 니까야〉 ‘받디야 경’에서 부처님이 하신 말씀이다. 이 말은 부처님의 말씀조차 그대로 믿고 따르지 말라는 얘기나 다름없다. 보통 한 종교의 교조라면, 아니 작은 모임을 이끄는 리더만 하더라도 자기 말을 믿고 따르라고 강조하기 마련인데 부처님은 정 반대로 말했다. 왜 그랬을까. 알다시피 부처님은 세상의 진리를 발견한 사람이지 없던 것을 새로 만들어낸 사람이 아니다. 본래 있던 것을 깨우쳐 알았고, 누구나 그것을 알 수 있다고 일러 주었다. 그런데 이 ‘진리’라는 것은 단순히 머리로 이해하는 ‘지식’이 아닌 온몸으로, 온 마음으로 경험해야 하는 대상인 것이다. 따라서 부처님은 ‘각자 체득을 통한 앎’을 강조한 것이다. 그랬을 때 비로소 앎이 지혜가 되고, 그 지혜로써 삶을 변화



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책 〈불교사용설명서〉는 불교를 알고 싶은 사람은 물론 불교를 실천하려는 사람을 위한 책이다. 집중수행을 위해 두 번이나 진료실 문을 닫았을 만큼 불교에 진심이었던 저자가 40여 년간의 경험을 통해 검증한 부처님의 가르침을 모은 책이다. 책은 총 다섯 개의 장으로 만들어졌다. 인생의 크고 작은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초기불교의 다섯 가지 핵심 가르침을 담고 있다.

1장에서는 역사적 인물인 석가모니 부처님이 깨달음을 이룬 구체적인 과정과 부처님의 능력 등을 밝힌다. 이로써 우리가 지향해야 할 인간상이 무엇인지를 보여 준다. 이어서 2장에서는 초기불교의 핵심 교리를 설명하고, 3장에서는 윤회와 업, 4장에서는 초기불교 수행법인 4념처의 자세한 실천법, 끝으로 5장에서는 유언과도 같은 부처님의 마지막 가르침을 짚어본다. 말하자면 이 책은 부처님의 삶과 가르침의 핵심을 아우른다. 비록 초기불교의 경전에 토대를 두고 있지만 어떤 불교 전통을 따르든 불자라면 누구에게나 귀감이 되는 가르침이다.

저자가 책을 통해 강조하는 것은 ‘체화’다. 아무리 좋은 가르침이라고 해도 그저 읽고 외는 것에서 끝난다면 삶의 변화를 가져올 수 없다는 것이다. 책에 박혀 있는 글자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몸과 마음을 움직이는 ‘자신의 것’으로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다.

“아는 것과 깨닫는 것, 크게 달라”
“깨달았을 때 비로소 삶 변화해”
“좋은 가르침, 온전히 자신 것으로”
“삶 자체가 곧 진리 될 수 있어야”

핵심은 그 좋은 말씀들을 어떻게 자신의 삶에 녹여낼 수 있는가이다. 이 물음에 대한 답을 우리는 이미 알고 있다. 배운 대로 행하는 것이다. 삶 자체가 곧 진리가 되는 것이다. 석가모니 부처님과 그 제자들이 그랬듯이 책이 독자들에게 강조하는 것은 “삶이 곧 진리가 되게 하라”이다. 저자는 그것이 삶을 변화시키고, 풍요롭게 하고, 행복하게 만드는 비결이라고 말한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종교의 테두리를 넘어서 인간의 노력으로 도달할 수 있는 가장 정확하고 심오한 경지라고 생각한다. 초기불교가 종교의 테두리에 갇히지 않고 누구나 자신의 삶에 이용할 수 있는 지혜의 보고가 되었으면 한다. 이 책이 여기에 이바지할 수 있다면 더 없이 기쁘고 보람이 되겠다.” 정신과 의사가 들려주는 ‘불교사용설명서’이다.

저자인 전현수 박사는 1956년 부산에서 태어났다. 경남고등학교와 부산대학교 의대를 졸업한 후에 순천향대학병원에서 신경정신과 수련을 받고 전문의가 됐다. 한양대학교 의대 대학원에서 박사 학위를 받았다. 신경정신과 2년 차 때 불교에 본격적으로 입문했고, 이후 불교 공부와 수행을 통해 경험하고 터득한 보편적 지혜를 정신치료에 적용했다.

2003년 미얀마에서 몸과 마음에 집중하는 수행을 했다. 이 경험을 통해 몸과 마음의 속성, 그리고 인간을 괴롭히는 정신적인 문제가 어디에서 비롯되는지를 알게 되었다. 1990년 전현수정신건강의학과의원을 개원한 이래 수행을 위해 두 차례 병원 문을 닫았다. 이 두 기간에 미얀마와 한국에서 수개월에 걸친 집중수행을 하면서 몸과 마음의 작동 원리를 관찰했다.

저서로 〈정신과 의사의 체험으로 보는 사마타와 위빠사나〉 〈전현수 박사의 불교정신치료 강의〉 〈정신과 의사가 들려주는 생각 사용 설명서〉 등이 있다. 2018년 〈전현수 박사의 불교정신치료 강의〉로 불교진흥원에서 수여하는 ‘원효학술대상’을 수상했다.

한국인의 DNA 속 〈주역〉, 에세이로 풀어내



주역의 눈
이선경 지음
불광출판사 / 2만원

책 〈주역의 눈〉은 2022년~2024년 저자 이선경이 인터넷 한겨레 ‘조현의 휴심정’에 연재했던 ‘이선경의 나를 찾아가는 주역’을 다시 정리하고 보완한 것이다.

책은 ‘왜 〈주역〉인가?’, ‘〈주역〉은 무엇을 말하는가?’에 대한 자세한 노트다. 저자는 학술서가 아니라 에세이라고 이야기한다.

〈역경〉과 ‘역전’으로 구성된 〈주역〉은 사서삼경 가운데 첫 번째로 꼽히는 문헌이며, 가장 유래가 깊은 유교 경전이다. 특히 공자의 방대한 해설 ‘역전’까지 더해진 〈주역〉은 자연, 인간의 이치를 오랜 세월 탐구하고 증명받아온 최고의 철학이자 인문학이다.

책은 〈주역〉의 핵심원리이자 사고방식인 ‘역의 사유’에 〈논어〉 〈맹자〉 〈중용〉 등 동양철학을 대입해 세상의 이치와 음양오행의 묘리를 풀어간다. 한국인의 DNA에 흐르는 ‘역의 사유’를 발견해 우리의 정신과 문화 그리고 삶과 함께 흘러온 〈주역〉을 에세이로써 내려간다. 단군신화와 홍익인간, 그리고 만파식적, 훈민정음의 제작 원리, 태극기의 태극 문양과 4개의 괘에 담긴 자연 순환 등을 ‘역의 사유’로 설명한다. 특히 인간관계, 음주, 이름에 담긴 의미, 화와 복, 죽음 등 누구나 인생에서 겪을 수 있는 여러 상황을 ‘역의 사유’로 풀어가면서 인생을 경영하는 성숙한 지혜까지 알려준다.

책은 〈주역〉을 아직 접하지 못한 독자를 위한 기초지식도 담았다. ‘역전(易傳)’은 무엇인지 등 핵심들을 갈무리하고 있다. 책은 기초지식을 소개하고 있지만 입문서나 개론서가 아니다. 〈주역〉이 왜 ‘세심경’인지, 왜 ‘세상을 꿰뚫는 경전’인지 독자 스스로 깨닫게 한다. 글의 흐름을 따라가다 보면 〈주역〉의 핵심 원리와 의미를 자연스럽게 알게 된다. 자신도 모르게 ‘역의 사유’속에서 살아가는 자신을 발견하고 ‘나를 아끼는 지혜’를 알게 된다.

익히 〈주역〉에 주목한 사람은 많다. 탄허 스님은 “불교를 제외한 최고의 철학”이라고 했고, 이보다 앞서 공자는 책을 묶은 가죽 끈이 세 번이나 끊어질 때까지 〈주역〉을 읽었다. 그리고 세계적인 정신분석학자인 칼 융도 〈주역〉에 주목했다. 그는 〈주역〉을 점목해 MBTI의 이론적인 실마리를 만들었다.

왜 많은 지성들이 〈주역〉에 주목했을까. 저자는 〈주역〉이 주나라의 역이라고 해서 특정 민족이 만들어낸 특정한 시대의 산물로만 이해해서는 안 된다고 말한다. ‘역(易)’은 ‘주나라의 역’이 전부가 아니라, ‘두루 통하는 역’이듯, 그것은 수천 년 동안 동아시아 사유의 바탕을 이뤄온 사유체계이자 문헌이라는 것이다.

저자는 “〈주역〉을 공부하는 목적이 지금 이 시간과 공간에서 자신이 자신의 주인이 되는 힘을 기르는 것”이라고 강조한다. 아울러 〈주역〉을 단순히 점서로만 이해하지 않고, 자기 모습을 찾아가는 인문학이라는 사실을 책을 통해 증명한다.

박재완 기자



한국 관음신앙의 뿌리를 찾아서
관음신앙 경전 연구
불자들이 가장 널리 신앙하고 있는 관음신앙이 고려와 조선시대에 어떤 과정을 거쳐 형성되고 전개되어 갔는지를 경전 성립의 역사적 맥락을 통해 입체적으로 고찰하였다.
김방울 저/신국판/양장/320쪽/값 23,000원

인간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드라마 〈나의 아저씨〉의 감동을 보살의 마음으로 승화시키다!
괜찮아 괜찮아
That's Okay. That's Okay
동훈과 지안을 둘러싼 후계동 사람들의 가슴 훈훈한 이야기, 그리고 그 속에서 배우는 또 하나의 삶, 바로 대승불교의 이상적 인간인 보살의 길이다.
‘각자도생’을 강요하는 지금의 현실이야말로 ‘중생이 아프니 내가 아프다’고 병을 앓는 ‘유마거사’와 같은 보살이 절실하게 필요하다!
장범용 저/국판변형/228쪽/값 14,800원



이것이 천태불교의 핵심이다!
천태불교의 이해와 실천
인도불교를 중국불교로 최초로 정착시키고 토착화시킨 천태불교의 교학체계와 수행체계 전반을 서구 철학자의 안목으로 알기 쉽게 조명한 역작이다!
브룩 지포린 지음/정천구 옮김/520쪽/값 30,000원

도서출판 운주사 | 자유문고 서울시 성북구 동소문로 67-1 성심빌딩 3층 ●전화 (02) 926-8361 ●다음카페:도서출판 운주사 www.cafe.daum.net/unjubooks

총무원장 진우 스님의 Weekly 선명상 ⑨ 아픔을 없애려면



▶한줄 요약
놓음 명상은 모든 것을 흘려보내는 연습입니다. 잠시 조용히 앉아 내 마음을 관찰하며, 내 안에 얽힌 집착과 감정을 비워봅니다.

아픔 없애려면 아픔 종자를 제거하라

> 아픈 기억, 감정 내재돼 있으면
> 어떤 조건에서도 아픔 나타난다
> 아픔 종자를 없애야 아프지 않아
> 놓음 명상으로 집착을 비워내야



해당 삽화는 진우 스님의 한글 게송을 생성형 AI에 입력해 제작했습니다.

[오늘의 명상]
하늘이 무너지고 온 땅이 다 꺼져도
내 마음 무너지고 꺼지는 것만 못하고
온 세상 평화롭고 모든 사람 행복해도
내 마음 속 괴로움 사라짐만 못하네.

상식적으로 생각이나 감정이 일어나는 것은 보고 듣는 대상에 따라 생긴다고 믿습니다.

그러나 지금 눈앞에 보이는 것보다 우선인 것이 있습니다. 잠재되어 있는 업장, 즉 기억하는 마음입니다.

아주 기쁜 기억이나 너무나 아픈 기억의 감정이 마음 안에 잠재되어 있는 한, 그 어떤 조건에서도 나타나고야 맙니다.

극락 가운데 있어도 괴롭고 아픈 마음은 드러날 것이고, 지옥 속에 있어도 기쁘고 즐거운 마음은 생겨나고야 만다는 말입니다.

그러니 마음 밖에서 아픔을 피한다고 하여 아픔이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아픔을 없애려면 마음 안에 있는 아픔의 종자를 먼저 제거해야 합니다.

눈앞에 천금이 있다 해도 죽을 만큼 몸이 아프다면 천만금인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죽을 만큼 몸이 아프더라도 그보다 더 강하게 집착하는 아픔의 기억이 있다면 아픈 몸 또한 뒷전이 되고 말 것입니다.

그러나 몸이 아프다는 것 또한 아픈 기억의 감정이 마음 속에 내재되어 있기 때문이니, 아픈 감정의 마음이 업식에 들어있지 않으면 그 어떤 상황에서도 아픈 감정은 느끼지 못할 것입니다.

마음은 집착하는 정(情)에 의해 지배됩니다. 즉, 각자가 잠재되어 있는 기억 속에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정에 따라 마음이 움직인다는 말입니다.

따라서 생로병사(生老病死)하고 성(成)주(住)괴(壞)공(空)하며 머무르지 않는 대상을 내 마음에 들도록 바꾸려 하는 것은 매우 우매하고 어리석은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니 마음 밖에 있는 것에 집착하기보다, 마음 안에 있는 불편한 감정을 먼저 없애는 것이 우선이라 할 것입니다.

세상은 세상대로 인과의 법칙에 의해 한 치 오차없이 돌아갈 것이니, 굳이 애써서 바꾸려 하거나 간섭함으로써 스스로 마음을 불편하게 할 것이 아니라, 마음 안에 있는 집착하는 정(情)의 마음을 먼저 업멸(業滅)하는 것만이 유일무이(唯一無二)의 지혜가 될 것입니다.

놓음 명상은 이러한 집착을 내려놓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놓음 명상은 모든 것을 흘려보내는 연습입니다. 잠시 조용히 앉아 내 마음을 관찰하며, 내 안에 얽힌 집착과 감정을 비워봅니다. 지금 이 순간, 내 마음 속에 어떤 아픔과 집착이 남아 있는지 바라보며 그것을 천천히 놓아버리는 것입니다. 이 과정을 통해 집착에서 자유로워지고, 내 마음 속 괴로움이 사라질 수 있습니다.

나와 세상을 함께 편안케 하는 방법은 결국 기도 정진(精進)밖에 없습니다. 기도란 인연에 대해 믿고 맡기는 놓고 또 놓는 마음입니다.

마음을 놓는 것에는 참회, 참선, 명상, 염불, 참배, 예불, 정근, 육바라밀(보시, 지계, 인욕, 정진, 선정, 지혜)을 행하는 일이 포함됩니다.

[오늘의 명상]
높고 험한 곳에는 나무가 자라지 않고
물살 급한 곳에는 고기가 살지 못하듯
바라는 바 최고의 기쁨을 삼고자 하는 것은
마치 극락이 지옥을 부르는 것과 같다.

내용 그대로 이해하면 될 것입니다. 이 또한 마음의 모습을 말하는 것이니 굳이 덧붙이자면 이렇습니다.

높은 산에 오를수록 풀과 나무가 잘 자라지 않아 삭막하듯이, 마음의 이상이 높을수록 내려오는 길이 멀고 또 위험하다 할 것입니다.

높은 자리에 오를수록 더 높이 오르려 하는 마음은 조급함을 부르게 되고, 한편으로는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제약이 많아져서, 빈 자리는 더욱 커지고 고독할 따름입니다.

또한 급한 물살과 같은 조급한 마음을 갖는다면 마음의 양식이 남아 날 수 없으니, 마음은 더욱 메마르게 되어 편안한 마음자리는 사라지고 말 것입니다.

업(業)이 두터운 사람일수록 짜릿한 기쁨과 즐거움을 찾으려 합니다. 그러나 기쁨과 즐거움은 슬픔과 괴로움을 반드시 의지해야 생기는 고로, 극락과 천당을 찾을수록 지옥의 맛을 함께 맛볼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얼음을 녹이려 겨우내 물을 끓여 붓는 사람은 욕심을 부린 만큼의 얼음만 녹일 수 있겠지만, 욕심을 놓고 제 할 일을 열심히 한 사람에게는 어느덧 봄이 다가와 두꺼운 얼음은 스스로 사라지고 말 것입니다.

〈계초심학인문(誡初心學人文)〉에 우음수(牛飮水)하면 성유(成乳)하고 사음수(巳飮水)하면 성독(成毒)이라 했습니다. '소가 물을 먹으면 우유가 되지만, 뱀이 물을 먹으면 독이 된다'는 뜻입니다.

소같이 욕심 없는 마음을 가지면 하는 일마다 저절로 이로움이 생기지만, 뱀과 같은 탐심, 욕심을 부린다면 설사 일이 성취된다 하여도 결국 마음에 독을 쌓게 된다는 말입니다.

세상은 인과(因果)의 법칙에 따라 인연의 순리로서 움직이고 있으니, 굳이 애써서 억지로 만들어진다 한들 그 대가는 혹독한 과보(果報)로 이어질 것이므로, 그저 삼보(三寶)에 귀의하여 마음을 맡기고 욕심 내지 않는 이가 참 지혜인이라 할 것입니다.

쉘패스 명상은 욕심을 내려놓고 현재를 받아들이는 데 도움을 줍니다. 쉘패스 명상은 욕망과 집착으로 어지러운 마음을 잠시 쉬게 하고, 깊은 호흡과 함께 스스로를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연습입니다. 하루 중 잠시라도 쉘패스 명상을 통해 욕심을 다스리고 평안한 마음을 회복해 보십시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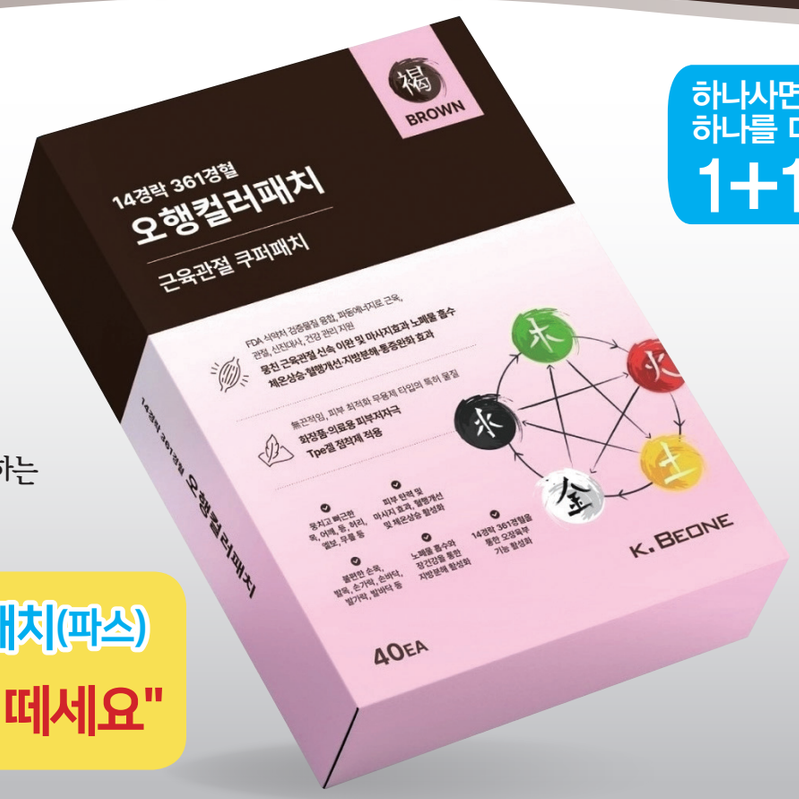
그래도 욕심을 버릴 수 없다면 기도로서 극복하십시오.

〈조계종 총무원장〉

'재구매율 1위로 입증한 건강지킴이' 오행컬러패치 2025 할인가

국민대 스포츠건강재활 전공
심영세원 교수가 개발한 오행컬러패치!!
PDA식약처 검증된
피부 친화 Tpe겔 접착제 사용!!

천연광물의 원적외선 파동에너지 기술과
한의학 14경락 361경혈 기반
색상학, 수리학, 명리학을 접목하여
경직된 세포를 마사지하고 통증을 예방 · 완화하는
기술을 패치(파스) 한 장에 담았습니다.



하나사면 하나를 더 1+1

소비자가 ~~₩99,000~~ → 60%할인
₩39,600 총 80매

자면서 저절로 건강해지는 패치(파스)
"취침 전 붙이고, 기상 후 떼세요"

QR코드를 카메라로 찍어보세요
사용법이 자세히 나옵니다

허리통증
무릎통증
어깨/목통증
손목/발목통증

NAVER 마하몰

주문은 마하몰! 1688-9099 / (02)732-1520 인터넷 주문은 www.mahamall.co.kr / 신한은행 100-036-429749 (예금주 : 현대불교신문사)

큰스님께 길을 묻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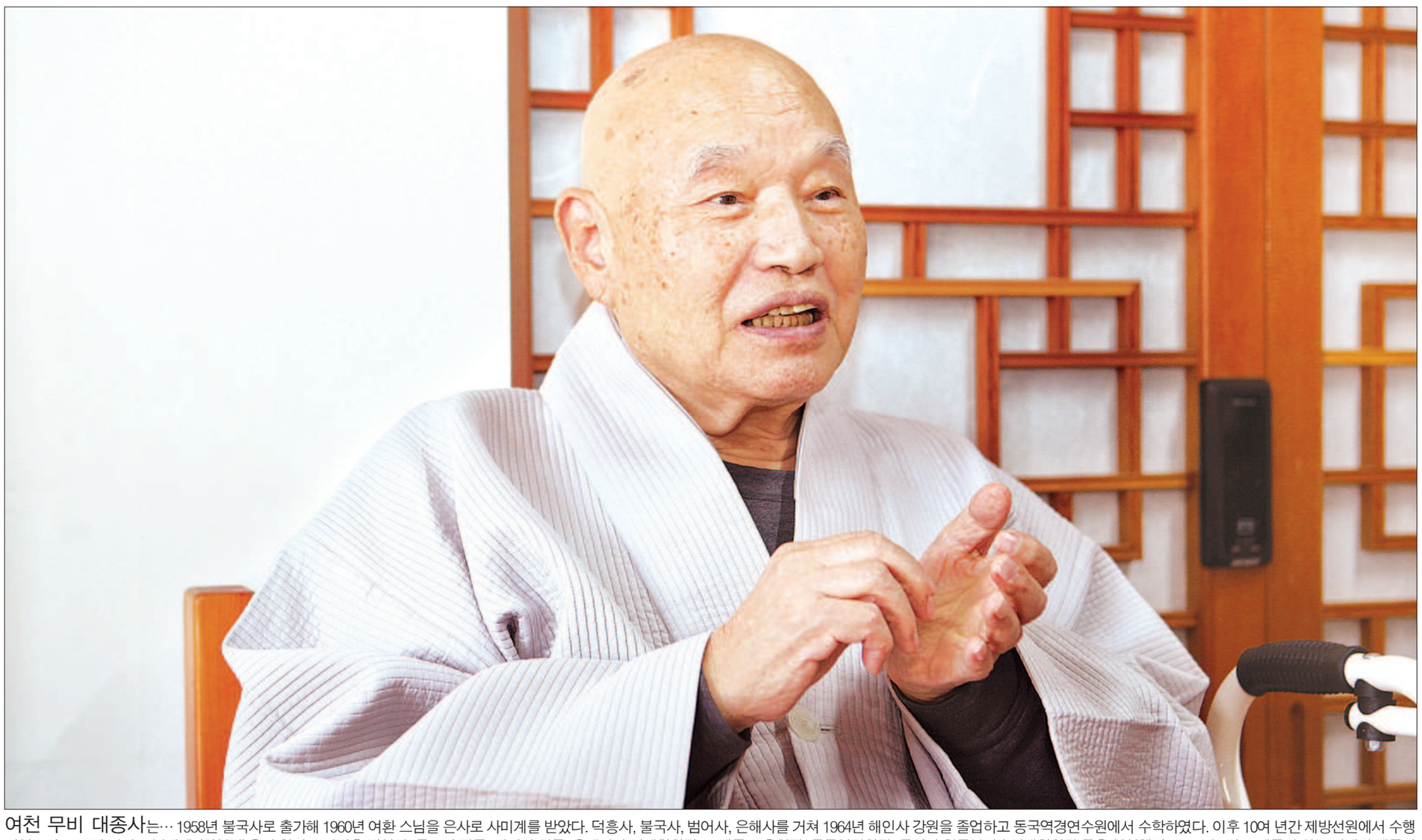
여천 무비 대종사

“부처님 가르침 널리 펼쳐 모든 생명 교화합시다”

〈張大敎網漉人天之魚〉

법시 · 재시 · 무외시 중에서
가장 제일은 ‘법보시’에 있어
모든 저작, 육성강의 등 DB화
USB 담아 ‘법보장’ 보급 추진
불교박람회서 1만개 무료 배포

1988년 불교 알리기 운동 시작
2000년대 병마 겪으며 원력 강화
‘화엄경’ 강설집 81권 종단협 보시
“법공양은 불자의 본업이자 의무
복 받고 싶다면 복부터 지어내라”



여천 무비 대종사는… 1958년 불국사로 출가해 1960년 여환 스님을 은사로 사미계를 받았다. 덕흥사, 불국사, 범어사, 은해사를 거쳐 1964년 해인사 강원을 졸업하고 동국역경연수원에서 수학하였다. 이후 10여 년간 제방선원에서 수행하였으며 1976년 탄허 스님에게 〈화엄경〉을 수학하고 전법을 받았다. 통도사 강주, 범어사 강주, 은해사 승가대학원장, 조계종 교육원장, 동국역경원장, 동화사 한문불전승가대학원장 등을 역임했다. 2018년 5월 조계종단 최고 법계인 대종사 법계를 품수했다. 현재 부산 범어사 화엄전에 주석하고 있으며, 문수선원 문수경전연구회에서 수백 명의 스님과 재가신도들에게 〈화엄경〉을 강의하고 있다. 또한, 인터넷 카페 ‘염화실’(2004년 개설)과 유튜브 채널 ‘무비 스님’(2020년 개설)을 통해 ‘염화실TV’라는 제목으로 동영상 강의를 제공하고 있다.

부산 범어사=신중일 기자 · 사진=하성미 기자

강백(講伯)은 스님들에게 경론을 가르치는 강사스님 중 존경받는 스님을 부르는 존칭이다. ‘대강백(大講伯)’은 말그대로 존경을 넘어서는 의미다. 그래서 ‘대강백’이라는 존칭을 대중들에게 받는 선지식은 손에 꼽는다. 조계종 제14교구본사 범어사 화엄전에 주석하며 대중들에게 경론을 가르치는 여천 무비 대종사는 세간과 출세간에서 공히 ‘대강백’으로 존경하는 선지식이다.

2월 21일 범어사 화엄전에서 친견한 무비 스님은 ‘법공양(법보시)’의 중요성을 설파하며 말머리를 풀었다. 이야기는 이내 법문이 돼 흘렀다.

무비 스님 ‘법의 창고’ 개방

최근 무비 스님은 ‘법보장(法寶藏)’이라는 USB를 배포하는 법공양 불사를 펼치고 있다. 무비 스님이 평생에 걸쳐 쓴 저작과 강의집, 육성강의 등을 모두 데이터베이스(DB)화해 USB에 담아 무료 배포하는 법공양 불사의 실무는 범어사 승가대학장 용학 스님이, 제작은 무비 스님의 법문 녹음을 해왔던 삼영불교음반이 맡았다.

USB에는 △다음 카페 ‘염화실’ 소개 영상 △무비 스님의 사자후-〈화엄경〉 초발심공덕품 영상 강의 △전집 〈화중연화(火中蓮花)〉(PDF) △〈화엄경〉 강설집 전81권(PDF) △법화경 강의(mp3) △임제록 강의(mp3) △〈화엄경〉 세주묘음품 강의(mp3) △월간 염화실(PDF) △화엄경 기신론 도표자료 등이 수록됐다. 또한 무비 스님의 사진자료인 ‘포영집’과 〈화엄경〉 강설집과 전집 〈화중연화〉 봉정법회 영상과 BBS불교방송·BTN불교TV 인터뷰 영상 등 스님의 기록들도 담겼다.

무비 스님이 평생에 걸쳐 공부하고 강의했던 모든 것을 담아낸 USB는 그야말로 ‘법의 보배창고(法寶藏)’다. 우선 스님은 4월 3~6일 열리는 서울국제불교박람회에서 ‘법보장’ USB 1만개를 무료로 배급한다. 누구나 와서 부처님 법을 만나고 가져갈 수 있도록 스님 자신의 ‘법의 보배창고’를 활짝 개방한 것이다.

“서울국제불교박람회에서 ‘법보장’ USB를 1만개를 무료로 배급하려 합니다. 그런 뒤에는 다음카페 ‘염화실’에 ‘법공양란’에 신청하면 누구에게라도 ‘법보장’ USB를 보내려고 합니다. 부처님 법은 참으로 위대합니다. 이 위대한 법에 저작권이 어디 있습니까? 누구나 와서 만나도록 해야죠. ‘법보장’ USB를 통해 위대한 부처님 법을 모든 중생들이 알아갔으면 해요.”

‘법공양’, 불자라면 해야 할 일

스님에게 법공양의 의미에 대해 물었다. 스님은 “불자들의 본업”이라며 말을 이어갔다.

“불교에서 보시하는 방법이 법시(法施), 재시(財施), 무외시(無畏施)가 있습니다. 재시는 재물을 보시하는 것이고, 무외시는 사람들의 두려움을 없애주는 것이고, 법시는 부처님 법을 대중들에게 전하는 것입니다. 이중에 최고는 부처님을 법을 전하는 법보시입니다. 부처님 제자라면 부처님의 위대한 법을 전하는 데 매진해야 합니다.”



지난해 11월 23일 열린 무비 스님 전집 〈화중연화〉 봉정법회 직후 이뤄진 기념촬영 모습.



원효 대사 옥인과 날인의 모습. ‘장대교망녹인천지어’이라는 〈화엄경〉 경구가 새겨져 있다.



무비 스님의 〈대방광불화엄경 강설〉81권 전집. 화엄경 강설집 완간은 국내서는 처음이다.

이어 ‘법을 공양하기 위해서는 자신이 법을 갖춰야 하지 않는가’를 물으니 무비 스님은 〈백유경〉에 나오는 ‘말라버린 소젖’의 비유를 소개했다. 비유의 내용은 이렇다.

옛날 어떤 사람이 손님들에게 소의 젖을 모아 대접하려 했다. 소젖을 짜려는 순간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다.

‘날마다 미리 소젖을 짜 두면 소젖은 점점 많아져 둘 곳이 없을 것이다. 또한 맛도 변해 못 쓰게 될 것이다. 그보다는 소젖을 소 뱃속에 그대로 모아 두었다가 필요한 때에 한꺼번에 짜는 것이 낫겠다.’

그리고는 곧 어미 소와 새끼 소를 따로 떼어 두었다. 한 달이 지난 후 손님을 초대했다. 잔치를 베풀고 소를 끌고 와서 젖을 짜려고 했다. 그런데 그 소의 젖은 어찌된 일인지 말라 없어져 버렸다.

“내가 재물이 많이 쌓인 뒤에 법이 생긴 뒤에 보시하겠다는 것은 소젖을 짜지 않고 모아두는 것과 같습니다. 재물을 모으기 전에 법을 갖추기 전에 죽을 수도 있고, 변고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보시는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마음을 낼 수 있을 때 바로바로 하는 겁니다.”

“나는 박복한 사람이었다”

말을 마친 무비 스님은 차를 한 모금 마시고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줬다. “저는 참 박복(薄福)한 사람이었다”라고 운을 던진 스님은 왜 우리가 보시를 하며 복전(福田)을 일궈야 하는지를 설명했다.

“재물로만 보면 어릴 적에도 풍족하게 살지 못했고, 출가 직후에도 사정이 참으로 어려웠어요. 한마디로 박복했죠. 학인 때 편지를 보내야 하는데 우표값이 없어서 우표를 빌려서 보냈어요. 그때 우표값이 2, 3원하던 시절이었는데, 이것도 한동안 갚지를 못했습니다. 이후 스님이 되고 부처님 법을 공부하고, 사람들에게 법을 전해왔습니다. 법보시 운동도 펼쳤는데, 그때마다 도움을 주는 사람들이 생겨났습니다. 저 은하수의 별만큼 많은 것이 ‘복’입니다. 그 복을 전부 부처님이 가지고 계십니다. 부처님 법을 보시하는 것만큼 큰 공덕은 없습니다. 복을 받고 싶어요? 그럼 복을 지어야죠. 밭을 일구지 않았는데 수확을 기대할 수 있겠어요? 복을 지으면 복을 받습니다.”

법보시(법공양)는 무비 스님이 일궈온 복밭이다. 무비 스님은 1988년 서울올림픽 개최 당시 범어사를 소개하는 표지판이나 안내서가 없는 것을 보고 범어사 영어 안내서와 〈법구경〉 구절을 영어로 번역해서 부산 주요 법당 등에 비치하며 법보시를 시작했다.

이후 법보시의 원력이 더 커진 것은 2000년대 병고를 앓으면서다. 2003년 12월 교육원장 소임을 내려놓고 스님은 꽤 오랜 시간 병고에 시달렸다. 똑바로 서서 걸을 수 없었고, 오래 공부할 수도 강의할 수 없었다. 병원에서 돌아온 날 스님은 염화실 칠판에 ‘감인대(堪忍待)’라고 적었다. 그리고는 곧장 집필에 몰두했다. 〈법화경 강의〉를 다듬고 〈임제록 강설〉을 탈고했다. 부처님 가르침에 대한 글을 쓸 때만 고통을 잊을 수 있었다.

“죽을 고비를 넘기고 나니까 살아 있는 동안 내가 가진 모든 것을 회향하고 가겠다는 생각을 갖게 됐습니다. 모든 생애를 다 바쳐서 부처님 가르침을 배워왔으니 이제는 힘닿는 데까지 세상에 다 돌려주고 가야죠.”

실제, 무비 스님은 자신의 저서를 대중들에게 꾸준히 법보시해왔다. 지난 2019년에는 한국불교종단협의회 소속 종단에 〈화엄경〉 강설 81권을 각 1질씩 보시하기도 했다. 앞서는 조계종단 사찰 1000곳에 법공양해 큰 감동을 알렸다.

무비 스님의 법공양은 비단 책뿐 만이 아니다. 법회와 강설을 녹취해 전 세계에서 볼 수 있도록 했다. 인터넷 카페 염화실에는 스님의 경전 강의 녹취부터 시작해 〈금강경〉 〈화엄경〉 〈법화경〉 〈지장경〉 〈유마경〉 등 대부분의 경전 강의를 보고 공부할 수 있다. 특별한 조건은 없다. 그저 카페에 가입만 하면 된다.

코로나 팬데믹에는 유튜브 법회도 시작했다. 유튜브 채널 ‘무비 스님’에서는 매일 아침 〈화엄경〉을 무비 스님과 함께 읽기 위한 불자들의 행렬이 이어진다. 매일 160여 명 가량이 스님의 경전 읽기 스트리밍에 동참하고 있다.

모든 건 마음먹기 달렸다

무비 스님의 주석처는 ‘화엄전’이다. 무비 스님이 자신이 주석하는 전각에 ‘화엄’을 붙일 정도로 〈화엄경〉을 오랜 기간 천착해 왔다. 이는 탄허 스님의 영향이 크다. 무비 스님은 탄허 스님의 강맥을 이었으며, 각성·통광 스님과 함께 ‘탄허삼걸’로 이름을 알리기도 했다.

무비 스님에게 〈화엄경〉이 가진 요체가 무엇인지를 질문하자, 스님은 책 한 권을 소개했다. 바로 얼 나이팅게일의 자기계발서 〈사람은 생각하는 대로 된다(We become what We think about)〉였다. “인생이 바뀔 것”이라면서 “속가 조카에게 100번 사경하라고 했다”는 말도 덧붙였다.

“책 제목이 ‘We become what We think about’인데 해석해보세요. ‘우리는 우리가 생각하는대로 된다’로 번역이 되죠. 이것이 바로 ‘일체유심조(一切唯心造)’입니다. 〈화엄경〉의 요체이자 원효 스님이 강조하신 일구(一句)입니다. 모든 인생의 문제 해법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마음을 먹느냐에 따라서 세상은 바뀝니다. 마음을 잘 써야합니다.”

‘화엄전’ 곳곳에는 원효 스님 옥인의 날인이 보자기, 액자 등에 새겨져 있다. 옥인의 내용은 ‘장대교망녹인천지어(張大敎網漉人天之魚)’라는 〈화엄경〉의 경구다. 무비 스님은 이를 ‘부처님의 높고 큰 가르침을 널리 펼쳐서 모든 사람과 생명을 다 교화하리라’고 해석했다. 최근 무비 스님이 경구를 많이 인용한다. 스님의 법보시 원력이 이 경구에 그대로 투영되기 때문일 것이다.

“원효 스님의 옥인은 범어사 원효암 우물에서 발견됐다고 해요. 아마도 원효 스님이 만드시고 사용하다가 원효암에 불이 났을 대 도장을 우물 속으로 던졌을 겁니다. 화엄의 그물을 크게 만들어 던져 놓으면 그 그물에 사람도 동물도 걸릴 것입니다. 이곳에서 일체만물이 위대한 부처님 법을 알고 교화됐으면 합니다. ‘장대교망녹인천지어(張大敎網漉人天之魚)’는 원효 스님의 깃발이고, 제 원력의 깃발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부처님 법을 접하고 공부하길 바랍니다.”

인터뷰 말미, 혼란스런 현재 한국사회에 대한 당부의 말씀을 청했다. 무비 스님은 곧장 “사람이 부처임 알라”고 설했다.

“우리가 수행을 해서 도를 통한다, 도인이 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거 다 허황된 소리입니다. 사람은 태어난 그대로입니다. 거기서 한 걸음도 옮겨가지 않아요. 사람이 그 자체로 부처(人佛)인 것입니다. 여기서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가지도 않고 뒤로 나아가지 않아요. 사람을 부처님으로 이해하고 받들고 섬겨보세요. 가정에서부터 남편, 아내, 자식, 부모님 등 가까운 인연부터 부처님으로 받드세요. 가정이 행복지고, 내가 행복해집니다. 이웃과 타인도 부처님으로 생각하는 의식들이 커지면, 이것이 세계 평화의 시작점이 되는 것입니다. 모든 갈등을 푸는 해결의 열쇠는 여기에 있습니다.”

이일야의 詩, 불교를 만나다 ❹ 서정주의 '국화 옆에서'



▶한줄 요약
천둥과 먹구름이 있으므로 국화꽃이 존재하며, 벌이 있으므로 맛있는 딸기를 먹을 수 있는 이치와 같다. 이런 점에서 보면, 서로가 서로의 존재 이유이자 근거가 되는 셈이다.

연기적 시점으로 세상을 노래하다

〈緣起〉



해당 삽화는 생성형 AI를 통해 제작했습니다.

연기의 진리가 작동하는 세계

그동안 부처님의 가르침을 좀 더 쉽게 전하겠다는 작은 소명의식을 가지고 나름 노력해 온 것 같다. 아무리 좋은 내용이라도 어려워서 이해할 수 없다면 의미가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불교에서 사용되는 용어는 대부분 한자로 되어있어서 처음 접하는 이들에겐 낯설고 어렵게 느껴진다. 사찰의 고요하고 평화로운 분위기는 좋지만 교리는 이해가 안 된다고 호소하는 이들이 적지 않다. 부처님은 가장 쉬운 언어로 대중에서 전했는데, 시간이 흐르면서 오히려 어려운 불교로 변질된 것 같다. 오늘날 사람들은 쉬우면서도 삶의 의미를 담은 불교를 원하고 있다.

개인적으로 철학이나 문화, 종교 등 인문학과의 관계 속에서 불교를 해석하는 일에 관심을 두고 신문이나 잡지에 글을 쓰고 책을 출간해왔다. 불교의 외연을 넓히는 일이 불교와 대중의 거리를 좁히고 전법에도 좋을 것이라 생각했기 때문이다. 실제 포교 현장에서 적용해보니 효과도 괜찮은 편이었다. 그런데 어느 날 관념 속에 빠져있는 나 자신을 발견하게 되었다. 불교의 중요한 사상들을 공부하고 전하면서 모르는 사이에 일상과 멀어지고 있었던 것이다.

오래 전 벗이 운영하는 딸기 농장을 방문한 적이 있다. 비닐하우스에서 딸기를 재배하는 모습을 본 것은 처음이었다. 하얗게 핀 딸기 꽃과 빨간 색의 열매는 묘한 조화를 이루고 있었다. 당시 비닐하우스 안에는 여러 마리의 벌들이 날아다니고 있었다. 문득 어린 시절 벌에 쏘인 기억 때문인지 무섭다는 생각이 들어 밖으로 나왔다. 나오면서 입구에 놓인 벌통이 눈에 들어왔다. 딸기밭에서 양봉도 하고 있다는 단순한 생각에 언제 꿀을 먹을 수 있냐고 친구에게 물었다. 돌아온 답은 다름 아닌 '무식한 놈!'이란 핀잔이었다. 벌이 있어야 딸기가 수정하는 이치도 모르냐는 것이었다.

망치로 한 대 얻어맞은 느낌이었다. 아무리 농장 방문이 처음이라지만, 벌과 딸기의 관계를 생각하지 못했다는 사실이 부끄러웠다. 그저 벌은 우리에게 꿀을 가져다주는 곤충 정도로만 생각했던 것이다. 불교의 핵심 가르침인 연기(緣起)의 진리가 바로 이곳에서 작동하고 있었는데, 그것을 놓치고 있었다. 그동안 수업시간에 모든 것은 관계 속에서 더불어 존재한다는 연기에 대해 얼마나 많이 말해왔던가. 그런데 정작 연기의 현장에 있으면서 그것을 몰랐으니, 결국 부처님의 가르침을 관념으로만 알고 있었던 셈이다.

그 일이 있은 후부터 우리들 일상에서 불교적 의미를 찾으려 좀 더 애썼던 것 같다. 관념이 아니라 살아있는 글을 쓰기 위해서는 현장이 중요하다는 것도 새삼 느끼게 되었다. 그래서 연기에 대해 설명하거나 글을 쓸 때면 딸기밭에서의 경험을 자주 이야기하곤 했다. 이번에 소개하는 서정주의 '국화 옆에서' 역시 그때의 경험이 떠올라 선택한 것이다. 경우만 다를 뿐 농장에서 본 딸기와 벌, 그리고 시에 등장하는 국화와 소쩍새는 연기적 관계 속에서 깊은 인연을 맺고 있었다.

서정주는 김소월, 한용운과 함께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시인으로 자주 거론되는 인물이다. 하지만 그에 대한 평가는 갈리는 편이다. 천재적인 시적 감성을 지닌 인물이라는 평가와 함께 시류에 편승한 작가, 친일문학에 근거를 둔 작가라는 비판적 시각도 적지 않다. 일제강점기의 친일 행적과 해방 이후 독재정권에 부역했던 모습에서 나온 평가라 할 것이다. 이는 시인이 감내해야 할 과보다. 그래서 역사가 무섭다고 하는지도 모르겠다.

'국화 옆에서'는 서정주라는 시인을 생각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시다. 1947년 〈경향신문〉을 통해 처음 발표되었으며 1956년 발간된 〈서정주시선〉에 실려 있다. 아름답게 피어난 한 송이 국화꽃에는 봄부터 겨울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인연이 담겨있다는 시인의 통찰이 돋보이는 시다. 학창시절을 떠올리며 읽어본다.

"한 송이 국화꽃을 피우기 위해 / 봄부터 소쩍새는 그렇게 울었나 보다 / 한 송이 국화꽃을 피우기 위해 / 천둥은 먹구름 속에서 또 그렇게 울었나 보다 / 그립고 아쉬움에 가슴 조이던 / 머언 먼 젊음의 뒤안길에서 / 인제는 돌아와 겨울 앞에 선 / 내 누님같이 생긴 꽃이여 / 노오란 네 꽃잎이 피려고 / 간밤에 무서리가 저리 내리고 / 내게는 잠도 오지 않았나 보다"

국화꽃은 그냥 피는 것이 아니라
수많은 인고의 세월 이겨낸 결과
무언가 이루기 위해 풍파 넘어야
국화, 소쩍새 등 서로 존재 이유
인간과 자연 둘이 아님을 알아야

국화에 담긴 소쩍새와 천둥, 무서리

이 시는 교과서에 실려 있고 시험문제에도 여러 번 출제되었기 때문에 기성세대에겐 익숙한 작품이다. 한 송이 아름다운 국화꽃은 그냥 피는 것이 아니라 수많은 인고의 세월을 이겨낸 결과물이다. 무섭게 울어대던 천둥과 하늘을 새까맣게 뒤엎고 있는 먹구름, 그리고 간밤에 내린 무서리는 꽃이 피기까지 인내해야 했던 인고의 상징이었다. 우리들의 삶 역시 마찬가지다. 무언가를 이루기 위해서는 세상의 온갖 풍파와 시련을 이겨내야 한다. 한 송이 국화꽃에서 인간의 삶이 조명되는 것이다. 누구나 쉽게 공감할 수 있는 부분이다. 그런데 불교라는 렌즈를 통하면 조금은 다른 느낌으로 다가온다. 앞서 말한 것처럼 '국화 옆에서'는 연기의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노래한 작품이다.

연기는 불교의 세계관을 간명하게 보여주는 가르침이다. '이것이 있으므로 저것이 있고(此有故彼有), 이것이 생기므로 저것이 생긴다(此起故彼起)'는 연기의 공식이 이를 잘 보여주고 있다. 우리는 보통 국화꽃과 소쩍새, 천둥, 먹구름, 무서리 등이 개별적으로 존재한다고 생각한다. 내가 벌과 딸기를 독립적인 존재로 여긴 것처럼 말이다. 하지만 모든 것은 홀로가 아니라 수많은 인연 속에서 관계를 맺고 있다. 천둥과 먹구름이 있으므로 국화꽃이 존재하며, 벌이 있으므로 맛있는 딸기를 먹을 수 있는 이치와 같다. 이런 점에서 보면, 서로가 서로의 존재 이유이자 근거가 되는 셈이다.

이처럼 모든 존재는 서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나의 행동 하나도 세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불교에서는 이를 인드라망에 비유하기도 한다. 그물마다 종이 매달려있어서 하나의 종을 쳐도 모든 종에서 소리가 난다는 것이다. 우리가 사는 세상 또한 시, 공간적으로 서로 얽히고 얽히면서 영향을 주고받는다. 오늘날 자연에 대한 무분별한 개발로 기후위기와 환경오염, 생태계 파괴와 같은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지 않은가. 이미 임계점을 넘었다는 평가와 함께 인류의 생존을 걱정하는 처지에 몰려있다. 인간과 자연이 둘이 아니라는(不二) 연기적 세계관을 등진 결과라 할 것이다.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내란 상황과 이를 극복하는 과정 역시 마찬가지다. 계엄령 발동이라는 위험한 상황에서 어떤 시민은 슬리퍼를 신은 채 여의도로 달려왔다. 국가의 위기가 곧 나의 위기라 생각했기 때문이다. 계엄은 정치와 경제, 문화, 외교 등 모든 분야에 엄청난 영향을 미치는 사건이다. 이런 상황에서 시민들은 집에만 있을 수는 없었다. 이 마음들이 거리로 모이고 모여 결국 계엄군을 막아냈다. '중생이 아프니 내가 아프다'는 보살심이 작동한 것이다. 문득 영화 〈1987〉에서 이한열 열사 역을 맡은 강동원의 대사가 생각났다. 아무리 학생들이 시위를 해도 세상은 바뀌지 않는다고 말하는 여주인공을 향해 강동원이 답한다.

"나도 그러고 싶은데 마음이 아파서 잘 안 돼. 너무 마음이 아파서."

나도 모르게 울컥해진 순간이었다. 모른 채 하면서 살고 싶은데 마음이 너무 아파서 그럴 수 없다는 것이다. 나와 아무런 관계가 없다면 마음이 아프다는 생각을 할 수 없다. 연기적 사유가 작동했기 때문에 시대의 아픔에 공감했던 것이다. 부마항쟁과 5·18민주화운동, 그리고 12·3 사태에 이르기까지 많은 사람들이 위험하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뛰쳐나왔던 이유다. 어쩌면 그 희생의 역사가 연기적으로 이어져 그날의 위기를 막아냈는지 모를 일이다. 차마 모른 채 할 수 없었던 그 마음이 유학에서 강조하는 불인지심(不忍之心)이자 천성(天性)이다. 달리 표현하면 불성(佛性)과 양심의 발로라고 할 수 있다.

시인은 한 송이 국화꽃을 피우기 위해 소쩍새와 천둥이 울어대고 간밤엔 무서리가 내리며 잠도 오지 않았다고 노래했다. 사람 사는 세상 역시 자연의 이치와 크게 다르지 않다. 민주주의라는 꽃을 피우기 위해 수많은 시민들이 소쩍새와 천둥, 무서리의 마음이 되어 불면의 밤을 지새우고 울어댔던 것이다. 한강 작가는 과거가 현재를 돕고 죽은 자가 산자를 구했다고 했다. 작가의 지적처럼 부산과 마산, 광주에서 죽어간 이들과 민주화를 이룬 과거의 역사가 오늘의 우리를 지켜준 것이다.

앞서 말한 것처럼 적지 않은 이들이 서정주를 천재적 감성을 지닌 시인이라고 평가한다. '국화 옆에서' 역시 연기적 세계관을 관통하고 있는 아름다운 시다. 하지만 시와 시인의 삶 사이에 간극이 느껴지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일이다. 누님같이 생긴 꽃이 피려고 잠도 오지 않았다고 표현한 것처럼 시대의 아픔에 공감하는 삶이었다면, 이 시는 훨씬 감동적으로 다가왔을 것이다. 이러한 간극을 보면서 나 자신을 돌아보게 된다. 그동안 써왔던 적지 않은 글과 일상 사이에 존재하는 실존적 간극을. 이를 줄이기 위한 성찰을 게을리 하면 안 될 것 같다. 그 일환으로 블로그나 카카오톡 대문 창에 이런 글을 써놓고 자주 쳐다보곤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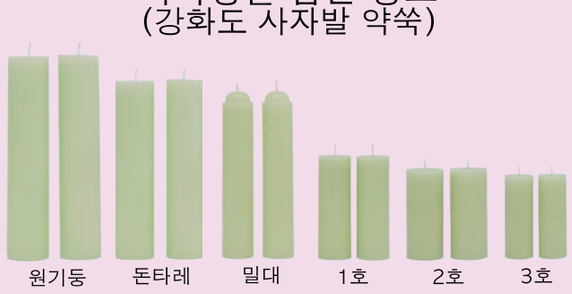
'앎과 삶, 그 간극을 줄이기 위해 오늘도 난 산책을 한다.'

〈전북불교대학 학장〉

해광산업
해광양초는 특별한 양초로 양초에 정성과 향을 담습니다
"자연친화적향의 향기가 법당에 스며들다"

침향향을 담은 양초

육각 원기둥 돈타레 밀대 1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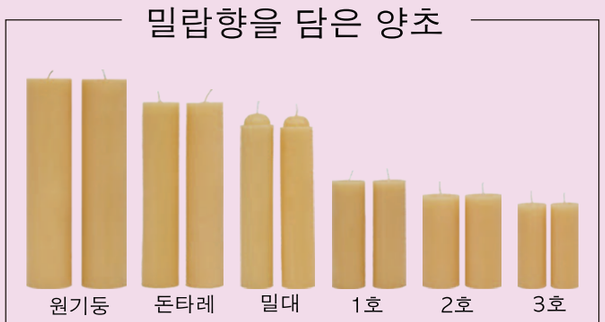
약쑥향을 담은 양초 (강화도 사자발 약쑥)

원기둥 돈타레 밀대 1호 2호 3호

PC 팜 원통초

대 중 소

연꽃향을 담은 양초

육각 원기둥(중) 원기중(소) 1호

밀랍향을 담은 양초

원기둥 돈타레 밀대 1호 2호 3호

밀납향을 담은 초

대 중 소

해광산업 주문전화번호 031-333-0242, 010-5848-0189

(구)삼환양초가
중국 대련에서 40년 기술 노하우를
현지 공장에 전수하여 관리 생산한
최고급 중국산 대련양초를 자신있게 소개합니다.



WWW.SHCANDLE.COM

NAVER 삼환양초


원기둥 돈타레 밀대 쌍대

*유통 마진 없이 소비자 여러분께 합리적인 가격으로 공급합니다

삼환양초 주문전화번호
031-337-0243, 010-2308-0189

2025년 3월 5일 수요일 | 불기 2569년

접 수 문자 010-4648-8200 팩스 02)737-0698
이메일 hyunbul1994@naver.com
게 재 접수 후 다음 주 수요일 문 의 010-4648-8200
가 격 ◆가로 6㎝: 5만원/회 ◆가로 12㎝: 10만원/회
계 좌 ◆농협 : 053-01-269088 ◆국민 : 222-25-0005-381
◆예금주 : 주식회사 현대불교신문사

불자정보

1521호 | 15 | 전면광고

이 세상에서 으뜸가는 재산은 믿음이다.
덕행을 쌓게 되면 행복이 찾아온다.
진실이야말로 맛 중의 맛이며 지혜롭게
사는 것을 최상의 생활이라고 할 수 있다.



부처님 말씀 읽기 -《법구경》에서

광 진 불 사

- 위치 : 경기도
- 부지 : 700평
- 건평 : 150평 외
- 산 밑 차량진입, 주차가능
- 매가 : 25억

- 위치 : 부산포교원건물
- 면적 : 120평실평
- 3층/5층, ev유
- 공원옆 건물, 주차가능
- 매가 : 13억

※40년세월 신용과 믿음으로 일합니다. 출장상담 받습니다.
※사찰관련 컨설팅, 채권상담 등 상담받습니다
※전국 사찰, 땅, 다량 보유 *부전, 공양주, 처사 소개합니다.
신행상담, 사찰순례, 채권상담, 종교법인 상담받습니다.

010-4586-4525

사 찰 안 내

★전통사찰, 요사채불사 진행중★

- 위 치 : 경기도 하남시 (전통사찰 선법사)
- 평 수 : 1,700평(법당, 산신각, 요사채, 화장실, 주차장 등)
- 가 액 : 상담 후 결정

보물 981호 마애약사불좌상

010-3340-2654

사 찰 안 내

- 위치 : 충북 청주시 상당구
- 대지 : 약 320평
- 건물 : 1, 2층 – 1층 26평, 2층 법당 20평, 요사채 15평(거실2칸, 해우소 3칸)
- 가격 : 상담 후 결정

010-8914-1762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북 북부 지역
- 부지 : 약 1300평 대웅전 약사전 산신각 요사채2동
- 석등 포대화상 황토방
- 명혈 명당 경관수려함
- 납골당 · 봉안당 허가 가능
- 가액 : 8억 절충

010-4599-0103

사 찰 안 내

- 위 치 : 부산시 북구 구포시장 농협 옆
- 1층 법당 外 약 60평, 신축 빌라식 3층건물
- 보증금 : 6000만원
  월 세 : 70만원(1층 근린)
  (별도 각각 30평 2,3층 복층 가능/매매가능)

010-5511-7000

사찰(급)안내

- 위치 : 경남 하동군 옥종면 궁항리 삼신봉 주산
- 면적 : 약 360평
- 법당 : 20평, 산신각, 요사채, 공양간, 창고, 화장실(2개)
- 해수관세음보살상 7m
- 즉시 법회 가능. 땅값만 받습니다.
- 매매가 : 8000만원(대출 2천만원 포함)
- 청정 기도도량 입니다

010-2807-0509

사 찰 안 내

도심 포교불사에 함께 동참 운영 하실 뜻있는 출가자 및 재가불자님을 정중히 모십니다.

- 위치 : 충남 부여
- 금강이 시원하게 내려다 보이는 8층 건물에 3층 154평의 넓은 법당
- 시설완비, 주차공간 확보
- 개원식 앞두고 (사정상) 전세 운영 가능
- 절충 협의

010-7174-1711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북 고령군 덕곡면 인곡1길33–12
- 대지 310평 / 법당 20평 산신각 / 요사, 별채 50평
- 가액 : 2억2천
- 수도 가스난방

010-2369-3382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북 포항시 북구 흥해읍 금장리 127–1번지
- 총평수 470평(대지 340평, 평밭 130평)
- 대웅전 20평, 요사채 50평, 산신각 5평
- 칠포해수욕장 차로 7분 거리, 시내 10분, 죽도시장 30분
- 가액 : 3억 3천(대출 2억 천육백만원)
- 매매 · 월세 가능합니다.
- 물은 지하수입니다.

010-3741-3567

사 찰 안 내

- 위치 : 경기도 양평군 양평읍 용문산 자연휴양림 초입 소재 (양평역 5분거리)
- 대지 : 300평 현대식 건물
- 건물 : 대웅전 30평 1동 / 카페, 공양간 30평 / 요사채 23평 2층 건물 1동 종무소, 객방 13평 1동
- 가액 : 12억원(답사 후 인연되는 분 절충)
- 법회 즉시 가능합니다.

010-4461-3825

사찰(급)안내

- 위치 : 충남 논산시
- 가액 : 7억
- 대지 780평, 실사용 1000여 평
- 사찰 정리후 주지스님은 원하는 만큼 거주 할수있음
- 모든 시설 완벽함

사 두실분이나 좋은절 갖고저 하시는 불자님 연락 주시면 자세한 안내드리겠습니다

010-9477-0375

좋은인연 대출안내

☑ 대출이 더 필요하십니까?
☑ 불사자금이 부족하십니까?
☑ 사찰구입자금이 필요하십니까?

1980년 설립하여 전국의 많은 사찰과 인연을 맺고 있는 사찰전문 은행인 **형산새마을금고**와 의논해주시면 좋은 인연이 되어 드리겠습니다.

사찰을 매매하실때 문의해 주세요~

부동산권리분석 · 매매관련세금 · 감정평가



형산새마을금고 본점 전경

- 대출기간 최장30년
- 설정비,감정료 면제
- 제주도까지 전국가능
- 타은행대출 전환가능
- 법인,단체사찰 가능
- 종단사찰 가능

365 친절상담

이사장 이강욱 ☎ 010-9842-4200
상 무 김상민 ☎ 010-7314-2522

형산새마을금고

본 점 054)282 9600
제1지점 054)282-9601
제2지점 054)282-9602

사찰 요양원 (급) 안내

- 위 치 : 경남 밀양시 부북면 퇴로로 171–8
- 사찰 요양원 일체 매매(명당터) / 주차장 포함 대지 900평 / 사찰 2층 총 54평, 황토방 포함 요사채 42평 / 요양원 2층 180평 (25명 정원 및 신도 많고, 요양원 베드 만석) / 인수시 원장, 부원장 바로 월급 받음
- 건강상 이유로 내놓습니다
- 앞 저수지 뒤 황학산 배산임수
- 가 액 : 13억원(절충 가능)

010-9234-0811

사찰(급)안내

- 위치 : 서울시 세검정 (광화문까지 자동차 10분)
- 대지 84평/국유지 50평(사용가) 법당/요사채 76평
- 양도시 모든 기물포함 (불상, 불화 등)
- 가액 : 9억5천만원

010-6325-5112

사찰(급)안내

- 위치 : 전남 화순 군청 종합민원실 맞은편 능인선원 3층 건물 전체
- 3층 대웅전, 2층 아미타전
- 법당 및 고가 불교용품 포함
- 금액 : 7억 5천

010-2967-0879
"문자주시면 전화드리겠습니다"

사 찰 안 내

- 위치 : 세종시
- 부지 : 405평
- 대웅전 : 20평, 외5포, 내7포 일주문 주3포, 창건 50년
- 가액 : 13억

010-4600-7084

포교당(급) 안내

- 위치 : 경기 시흥시 정왕동(정왕역 차로5분)
- 주변 : 정왕동아파트 대단지, 대형마트, 대형병원 월곶, 배곧, 아파트 신도시
- 규모 : 4층 전체, 옥상 사용 엘리베이터, (총 : 110평) 사용.
- 법당 : 삼존불, 신중단, 산신단, 약사여래불, 영단 큰방 3개, 사무실, 창고방, 에어컨법당 2개, 각방마다
- 보증금 : 1000, 월세 150(보증금, 월세조정)
- 권리금 일체시설, (법당, 각방, 일체 집기시설) 5500만원 (바로 법회 가능)

※통화 안될때 문자로 문의 부탁드립니다.

010-8599-9468

포교원 안내

- 경남 밀양시, 5층 중에 2층, 70평
- 삼존불, 인등, 원불, 영가위패인등, 산신인등, 각방 에어컨, 방 4개, 냉장고, 세탁기 등 시설완비 (시설비 1억 7천만원)
- 무료 주차장 약 50대, 병원, 은행, 마트 1분 거리, 사주 하시는 분 강력 추천, 비품대 확실히 잘 해드리겠습니다.
- 보 5백만원, 월 43만원, 시설비 2천 5백만원

010-9424-4777

포교당 안내

- 위치 : 서울시 노원구 덕릉로
- 67평 동불 삼존불
- 보증금 : 5000/월세 : 180만원
  시설물 : 2500만원 상당
- 지하철 4호선 당고개역 1번 출구 300m
- 지하주차장, 엘리베이터, 남녀화장실

010-3102-5102

포교원 안내

- 위치 : 울산 태화강 부근 2층 법당포함 35평
- 도시가스 사용
- 보증금 1천, 월세 44만원
- 시설비 : 600만원
- 즉시 법회 가능

010-9416-1046

사 찰 안 내

대구광역시 도심 內 전통사찰

- 불심 강하신 보살님이 창건한 사찰 상속분
- 일반주거지역 : 1500평 추가 매입 가능
- 대웅전(전통기와 고급단청) 지하높이 4m, 산신각
- 종무원(전통기와 고급자재) 지하높이 3m, 요사채
- 문학관(전통기와 고급자재) 지하있음, 기타건물 등
- 천왕문 전각 • 뒤 대나무 숲 • 옆 실개천
- 천하명당 • 대구시 관리 명산등산로 입구

꼭 사찰을 보존 · 운영할분에게 인연을 드립니다
교환도 가능하고 땅값만 받고, 문의하시면 사진 보내드립니다.
010-2512-7777 huhuhu1199@daum.net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북 갓바위 뒷길 근처
- 총 평수 453평, 현대식 건물 3동
  1층 요사30평, 14평, 산신각 2평
  2층 법당28평
- 건물 대지 종교건물
- 가액 : 4억5천(절충가능)

010-5804-5100

토 지 안 내

- 위치 : 연천군 왕징면 무등리 산5–1
- 매매금 : 3억원
- 2000평 규모, 대지 600평 건축허가 취득

010-4727-6065

❖ 본 지면의 불자정보 광고는 광고주의 요청에 따라 게재한 것이므로, 광고지면 제공 이외에 광고주와의 거래 및 기타 사항에 대해서 일체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젠 인터넷 뉴스사이트 현불뉴스 hyunbulnews.com에서도
불자정보·생활안내를 생활안내
찾아보실 수 있어요

NAVER 불자정보·생활안내 검색

스마트폰으로
QR코드를 찍어보세요

'생활안내'
'불자정보'를
보실 수 있습니다

2025년 3월 5일 수요일 | 불기 2569년

접 수 문자 010-4648-8200 팩스 02)737-0698
이메일 hyunbul1994@naver.com

게 재 접수 후 다음 주 수요일 문 의 010-4648-8200

가 격 ◆가로 6㎝: 5만원/회 ◆가로 12㎝: 10만원/회

계 좌 ◆농협 : 053-01-269088 ◆국민 : 222-25-0005-381
◆예금주 : 주식회사 현대불교신문

생활 안내

1521호 | 16 | 전면광고

사람의 수명은 짧고 반드시 죽게 마련이다. 늙음과 쇠함이 침범하면 구할 수 있는 자가 없다. 그러므로 죽음을 두려워해서 빨리 불법에 들어가야 한다.



부처님 말씀 읽기 -《별역잡아함경》에서

부산광역시 지정 무형문화재 제9호 부산영산재 학인모집

1. 부산영산재의 각 전승 교육사 의식 염불, 사물
2. 천수바라 · 오공양작법
3. 다게작법 · 운심게작법

- 특별반 3개월과정모집
- 사) 대한불교문화 전통불교조계종
※ 사찰등록 및 승려증 발급

부산영산재 (전수장학생 한시적 등록추천)
사무국 총무원 010-5511-7000

누구나

인생의 기로에서 지표가 되는,
그리고,
누구라도 쉽게 볼 수 있는 삶의
나침판이라 할 수 있습니다.



위치 : 창원시 · 경남 고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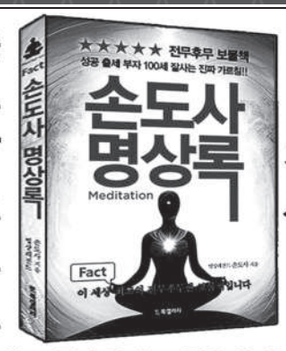
상담 : 010-2090-4030

사찰행사(불교의식)

49재, 천도재, 점안식
바라, 나비무, 전통살풀이
정성껏 해드립니다

연암당 스님
010-6219-4757

손도사 유튜브



책이름 검색해보세요
010-5105-5000 요

의식은 불교의 꽃 (행사대행)

49재, 점안, 기타, 바라, 살풀이

30년 수행 공덕으로 귀사찰에 불사를 성취해 드리겠습니다.

문의 010-5270-8260 / 010-6785-1130

양 도 공 고

(등록된 종무법인임)

개인사암, 단독법인 가능함

종무업무를 국가기관에 등록받은 불교법인, 불교연합회, 불교종단 양도함

010-5412-8040 법광

불교 의식 학인 모집

- 영남 범음 범패
- 49재 · 천도재 · 사시불공 등
- 북 · 징 · 경쇠 · 요령 · 목탁
- 매주 화요일 · 금요일 3시~5시
- 일반불자 수강가능

조은사 (경산역 부근)

010-5315-3589

불공 저렴한 보시금으로 여법하게 집전하여 드립니다

49제, 점안, 살풀이, 바라

이 인연으로 성불의 씨앗 되십시오

010-2168-2800

승가 유품정리 안내

스님 일반인 유품정리
사찰 법당 철거 해드립니다

최대한 정성껏 최소의 비용으로 부담없이 해드립니다

주소 : 부산시 동래구 동래로 159번길 58-7 동호(A) 309호

010-5507-7080 이주현

관상(손금) 성철사주비법 전수

- 얼굴만 보면 모든 것을 알 수 있다
- 태아령 유산낙태, 남 · 여 구별법(예방법), 산소 무덤 물찬곳, 송사 재판, 암, 자궁암, 유방암
- 이혼수, 부도 • 배우자가 일찍 죽는 상 • 귀신 붙은 상
- 자살상, 중풍, 뇌졸중 상, 자식이 일찍 죽는 상 • 조상기도특수비법

출장개인지도 관상학, 손금, 성명학, 사주명리, 구성학

- 스님, 법사, 무당, 일반인, 특별책임 개인지도

상담문의 010-4014-8822 작명, 아기이름, 개명

365일 무료 숙식제공 교육장. 상술, 언변 비법 개인지도

이조불교 재활용센터

- 대불, 소불, 동불, 탱화, 법당 제작 (수미단, 닷집, 운각)
- 법당 철거, 오래된 불서 고가 매입

*사찰 사고팝니다.

010-9177-7842

스님을 구합니다

오래 계시면서 조용한 절 찾으시는 스님 모십니다.

대구 동구 백안삼거리 인근 사찰

010-9363-2292
010-3805-2778

사찰 운영하실 주지, 비구니 스님 모십니다

조건 없음

위치 : 경북 성주군

010-6263-2425

한국불교태고종 경남교구 염불교육원 제2기 수강생 모집공고

1.모집대상
- 한국불교태고종 스님. 전법사. 교임 • 타종단 승려(참여가능)
- 불교신자 및 부처님의 교법을 배우고자 하는 일반인

2. 모집학과 및 교육내용
- 경전반 : 천수경, 반야심경, 예불제반의식
- 의식반 : 영남범패 전통의식, 다비식, 재의식(시다림,49재), 점안의식, 불교사물 등

3. 교육일정
- 경전반 : 2025년 3월 17일(월) 개강/ 2025년 7월 22일(화) 수료
- 의식반 : 2025년 3월 11일(화) 개강/ 2025년 7월 22일(화) 수료

4. 교육장소 : 한국불교태고종 경남교구 종무원사 3층 태고사 (창원시 마산합포구 남성로 93)

5. 접수 및 문의처 : 한국불교태고종 경남교구 종무원(☎298-3634)
한국불교태고종 경남교구 교무국장 법륜스님(010-9233-8371)

한국불교태고종 경남교구 염불교육원

〈법화경 길라잡이〉 출간



- 발간일 : 2024.11.27
- 편역 : 도우 법사 • 추천 : 활안 스님
- 펴낸곳 : 우리출판사 • 정가 : 28,000

※(010-4030-3399 기업은행/김병태) 〈계좌번호〉에 책값을 입금한 후 〈받을주소〉를 문자로 알려 주시면 다음날 〈우체국택배〉 (택배비 무료) 편으로 우송해 드리겠습니다.

010-4030-3399 (道友 法師 合掌)

최고급 암컷흑염소 전문 염소명가

식품안전관리인증 HACCP 식품의약품안전처

해썹(HACCP) 인증업체

현대해상 식품배상책임보험 3억원

국내산 암컷흑염소와 30가지의 전통원료로 소화잘되는 진액

흑염소진액 골드





할인행사
2박스 (60포)
240,000원

농업회사 (주)미성팜 택배가능
충주시 주덕읍 충청대로 2236-1 나동
043)845-5596 / 010-2136-9889

❖ 본 지면의 생활안내 광고는 광고주의 요청에 따라 게재한 것이므로, 광고지면 제공 이외에 광고주와의 거래 및 기타 사항에 대해서 일체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육임 정확도 효과성 착목도 속도성 보장

익명성 지피(知被:감추는 상대의 비밀 · 고민사 판단됨-생년월일시 불필요함)

검증 30년의 신뢰! 분실 파손 재실행 영구사용!

1. 상대(방문 전화)가 누구든, 언제 어디서든, 무슨 문제이든 실시간으로 미리, 또는 즉시 판단됩니다.
2. 오늘 몇 시, 내일 몇 시, 방문, 내방, 전화이든, 지난 또는 다가올 당시의 연월일시든, 상대 속마음, 용건, 사안의 대소, 가부 호악 진퇴 희비 및 감추는 비밀사까지 미리 또는 즉시 화면에 나타납니다.
3. 상대가(전화포함) 해당 사안에 대한 이익 될 人 인지, 피해줄 人 인지, 손해나게 할 人 인지, 무력 人 (지위고하세력 막론, 해당사안 위주) 인지가 미리 또는 즉시 화면에 나타납니다.
4. 동일한 시간에 여러 사람이 오거나 찾아가거나 전화통화를 하더라도 '다음사람' 버튼만 누르면 자동으로 해당인의 여러 내용이 즉시 나타납니다.

- 왜 왔는가?
- 상대의 신뢰심(진위고집불성등) 여부
- 주요상담성취 안좌방위 및 회의 안건 반대자 여부
- 교섭 전후난이 상대진위 여부
- 소송 승패(구속 불구속) 여부
- 주식 이익종목 선택 및매도 매입 시기
- 상대 충성배신 여부
- 남여 성력(性力) 및 선호 태위 여부
- 주요 공사책임자 선정 및 무사고 개시 일시여부
- 깃발 착복색 선택 당선 승진 취직시 험사 여부
- 생업가정흥쇠여부
- 남녀 독신 고독 생사별자 여부
- 부부 동시 색정 1남2녀 1녀2남 삼각관계 여부
- 사안의 대소규모 여부
- (상대 현재실정)
- (상대구체 사안)
- (상대적확성)
- 상대 계획 도모사 측정 여부
- 전화 친견 상담용
- 면접사 여부
- 모망사 여부
- 구재사 여부



50일간 특별할인가격 90만원(업데이트 완성)
카드 3개월 결제 – 결제 즉시 소지 휴대폰에 실행파일 전송



50일간 특별할인가격 200만원(완결판) 교환 30만원
육임 USB 프로그램 – 인터넷 없이 영구 사용
02-567-3850 / 010-7596-5146
한국육임학회(육임쇼핑)

- 귀신침해 부정 침범 산소탈(묘지속水蛇)여부 및 해소 방편
- 수법(천도 시식기도) 효과 유무
- 효과기도 분류
- 이혼 승패(유리 불리 여부) 운세 명암 지점 여부
- 임대 임차 이해친소 가옥 사옥 이전 길방여부
- 상대 신분(대통령, 장관급, 차관, 고위급, 지방관서장, 사계실력인, 우고인) 여부
- 목적 성취기도 일시 지정
- 금융재 금액 대소여부
- 선출직 성격 실적 사전 판단
- 뇌물 증여 가납 효과 여부
- 질병치유 여부
- 가출 귀가사 여부
- 혼인사(용모 가문 시기)
- 연년세세 1년 월별 신수
- 친화 구해 자녀 여부
- 혼인 부부 성격-궁합 여부 등등
- 우고사 해소되는 방문(전화) 시간 명시
- 무성(無聲:헛소리)에 불과한 방문(전화)시간 명시
- 임신사 여부
- 출산 길일 길시 선택 지정

육임AI 순회 효능 설명회
서울지역 월요일 14시 대전지역 화요일 14시 전주지역 수요일 14시 광주지역 목요일 14시 부산지역 금요일 14시 대구지역 토요일 14시 강원지역 일요일 14시



최원섭의
불교, K-드라마로 만나다

⑤ '낮과 밤이 다른 그녀'(2024)

우리는 누구나 가능성을 가진 존재다

지난 지면에서 드라마 〈나의 해리에게〉를 통해 같은 외모에 다중인격을 지닌 인물을 소개한 데 이어 이번에는 하나의 인격에 외모가 변하는 인물을 만나보자.

드라마 〈낮과 밤이 다른 여자〉(2024)의 주인공 28세 이미진(배우 정은지)은 무려 8년째 공무원 시험에 도전 중인 '공시생'이다. 번번이 낙방의 고배를 마셔온 그녀에게 남은 것은 각종 아르바이트로 얻은 잡다한 지식과 가산점이라도 받겠다며 따낸 숱한 자격증뿐. 그렇게 절망과 희망을 오가던 어느 날 아침, 눈을 뜬 미진은 50대 중년이 된 자신을 발견한다.

충격과 혼돈의 시간도 잠시, 때마침 서한시의 '시니어 인턴 채용' 공고문을 본 미진은 수십 년 전에 가출해 소식이 끊긴 이모 임순(배우 이정은)의 이름으로 '시니어 인턴직'에 지원해 합격한다. 28세 이미진이 이루지 못한 공무원의 꿈을 50대 임순이 단번에 이룬 것이다.

한편 서한지검에 자청해서 내려온 검사 계지웅(배우 최진혁)은 능력은 출중하지만, 실무관들이 3개월도 버티지 못하고 그만두게 만드는 괴팍한 성격의 소유자다. 일명 '개검사'로 불리는 까칠한 지웅이지만 우연히 만난 사기 피해자 이미진에게는 자꾸만 마음이 쏠린다. 그러던 중 미진이 자신이 좇던 연쇄 부녀자 실종사건 범인의 목격자임을 알고 그녀의 신변을 지키다가 점점 사랑이 싹튼다.

그런데 낮 동안 임순이 되고, 밤이 되면 본래 모습으로 돌아가는 미진이 발령받은 곳이 하필이면 지웅이 근무하는 서한지방검찰청이다. 첫 업무는 단순한 청소용역이었지만 그동안 경찰공무원, 법원공무원에 도전하며 법대생 못지않은 법학 지식을 쌓아온 덕분에 검사실 실무관의 보조원으로 활약을 시작한다. 물론 50대 임순의 모습으로, 그것도 지웅의 검사실에서 말이다.

검사실에선 여전히 '개검사'인 지웅에게 나이 든 실무관 보조가 마음에 들 리 없고, 지웅은 별의별 잡무를 모조리 떠넘기면서 임순이 스스로 그만두길 종용하지만, 외모만 50대인 임순은 엄청난 능력을 보여주며 불가능해 보이는 모든 업무를 말끔하게 해치운다.

가족에게도 비밀로 한 채 낮에는 검사실에서 지웅과 함께 일하고 해가 지면 지웅과 데이트를 하는 미진. 지웅은 임순과 미진을 모두 만나지만 둘이 같은 사람임을 전혀 눈치채지 못한다.

자, 여기에서 지난번 드라마 〈나의 해리에게〉에서와 같은 질문을 해보자. 지웅이 만나는 사람은 과연 누구인가? 같은 외모에 다른 인격을 지닌 경우에는 '진정한 나'가 누구인지에 대한 고민의 여지가 있지만, 인격이 같은데 외모가 다를 뿐이라면 비교적 답이 분명해 보인다. 겉모습이 아무리 달라진다 한들 지웅이 만나는 사람은 '미진'이기 때문이다.



JTBC 드라마 '낮과 밤이 다른 그녀'.

육신보다는 정신을 정체성으로 받아들여
오온이 임시로 화합된 상태가 진정한 '나'
고정된 '나'는 없어…순간순간이 '나'일 뿐

흔히 사람은 육신과 정신(혹은 영혼)으로 이루어졌다고 하지만 실제로 우리는 육신과 정신 중에 정신을 '그 사람의 정체성'으로 받아들인다. 드라마 속에서 '임순'이 친구 도가영(배우 김아영)에게 자신이 '미진'임을 입증할 때도 마찬가지다.

50대 임순의 모습을 한 미진은 가영의 전 남자친구 이름라든지 생년월일, 집의 비밀번호 등을 줄줄 읊어대고, 둘만의 비밀과 추억들을 정확하게 맞춘다. 그리고 해가 질 무렵, 임순에서 미진으로 변하는 모습을 직접 보여준다. 귀로 듣고 눈으로 보면서도 쉽게 믿기지 않는 기이한 현상에 혼란스러워하면서도 가영은 '임순이 곧 미진'이란 사실을 받아들이고, 50대 임순도 친구로서 스스럼없이 대한다.

불교에서는 누구나 육체적인 요소 한 가지와 정신적인 요소 네 가지로 구성되어 있다고 한다. 우리가 매일 독송하는 〈반야심경〉에도 나오는 '색(色)-수상행식(受想行識)'의 5온(蘊)이 바로 그것이다. 그리고 5온이 '화합'한 상태를 '그 사람'으로 판단한다. 5온은 어느 한 요소가 다른 요소들을 지배하지 않는다. 어느 것 하나가 중심이 되어 모여 있는 것이 아니라 색, 수, 상, 행, 식이 동등한 자격으로 만난다. 이때 화합이란 찰흙 덩어리 다섯 개를 뭉쳐놓은 것과 같은 물리적 혼합이 아니라, 각각의 특징이 서로 녹아서 융합된 화학적 변화를 가리킨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모두 동일한 다섯 가지 요소로 이루어져 있으면서도, 같은 모습이나 같은 생각을 하지 않고 오온의 화학적 변화에 따라 각자의 개성과 특성을 드러낸다. 그저 순간순간 변하고 있는 나의 5온이 있을 뿐이다.

그래서 불교의 오온설은 다섯 가지 요소가 임시로 화합된 상태가 '나'이지 영원하고 변하지 않는 고정된 '나'라고 부를 만한 것이 없음을 알려주려는 가르침이다. 이는 우리가 고정불변한 유일무이한 존재라고 생각하는 '나'는 진정한 내가 아니고, 오히려 임시로 화합된 상태가 진정한 '나'라는 가르침이기도 하다. 어릴 적 '나'와 나이 든 '나'를 외모와 상관없이 같은 사람이라고 부르는 것과 같은 의미에서 낮의 임순과 밤의 미진이 다르지만 같은 사람으로 볼 수 있는 것이다. 사실은 순간순간이 그저 '나'일 뿐이다.

다시 드라마로 돌아가보자. 20대의 미진은 아무리 노력해도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지 못했지만 50대 임순이 되자마자 자신의 꿈을 이룰 수 있었다. 그렇다면 원하던 일을 하게 되었으니 행복한 것일까? 그렇지 않다. 50대 모습의 임순은 미진의 본모습이 아니니, 아무리 능력을 인정을 받아도 미진의 것이 아니다. 미진의 입장에서는 20대 모습이든 50대 모습이든, 자신의 가치를 온전하게 인정받지 못한다는 사실에는 차이가 없다.

드라마 〈낮과 밤이 다른 그녀〉는 20대 미진을 통해 '현실의 나'와 '이상의 나' 사이의 갈등을 보여준다. 번번이 취업에 실패한 '현실의 미진'에게는 공무원으로 당당하게 살아가는 '이상의 미진'이 있다. 그런데 정작 미진의 이상이던 공무원이 된 것은 임순으로 변한 미진이다. 임순의 상태에서도 마찬가지이다. 꿈꾸던 삶이지만 임순에겐 50대의 외모와 육체적 한계라는 힘든 '현실'이 있고, 낮과 밤이 바뀌는 상황을 해결하여 본래의 미진으로 돌아가야 하는 '이상'이 있다.

20대 미진과 50대 임순 사이의 비틀어진 이상과 현실은 그 어느 쪽에서도 진정한 '나'를 찾지 못하는 상황을 상징한다. 대부분 사람은 지금의 삶이 만족스럽지 못하면 이상을 동경하며 현실을 한탄한다. 심지어 스스로를 비하하며 마음의 병이 생기기도 한다.

드라마 속에서 결국 미진은 미진의 모습으로 자신의 꿈을 이루어낸다. 우리는 누구나 가능성을 가진 존재다. 여러분이 꿈꾸는 나와 지금의 나는 어떤가?

〈대행선연구원 연구원〉

유력 후원자 고경의 실각
삼계교 탄압·쇠퇴 시작



법공 스님의
〈지장십륜경〉 강의

⑨ 삼계교에 대한 탄압

가혹한 수행과 함께 삼계교도들의 중심사상인 보불보경(普佛普敬)의 신념은 당시 수도인 업도(鄴都)를 비롯해 각지에 널리 유포됐습니다. 철저한 수행과 민중을 위한 보살행을 펼치던 삼계교가 왜 위정자들에게 탄압을 받고 결국에는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게 되었을까요?

먼저, 원인을 생각해 볼 때, 추측해 볼만한 것이 유력 후원자 '고경'의 실각입니다.

그는 신행선사가 업도에 처음 입성할 때에 선사의 수행을 흠모하여, 자신의 집을 헌납해 사찰(진적사·眞寂寺, 598년)로 만들었습니다. 무엇보다 그는 수 문제(隋 文帝)를 도와 일등공신이 된 사람으로서 삼계교도에겐 막대한 후원자였습니다.

황제의 총애를 받던 신하인 고경이 신행 선사를 돕기 시작하자 삼계교는 빠른 속도로 교세가 안정화되고 부흥이 이뤄졌습니다. 신행 선사 역시 수많은 제자를 얻게 되는데, 이때가 삼계교의 중흥이 이뤄지던 시기였습니다.

그러면, 삼계교의 탄압과 고경의 실각은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이는 삼계교 첫 탄압의 시점이 유력 후원자의 실각 시기와 겹치기 때문입니다. 이는 '큰 시주에 기울지 말고 십시일반의 자그마한 시주를 소홀히 말라'는 어른스님들의 오랜 경책을 되새기게 합니다.

삼계교 창시자 신행 선사를 도운 후원자 '고경'의 실각 이후 삼계교는 5회의 금압(禁壓)에 처해집니다. 물론 모든 탄압은 신행 선사(540~594)의 적멸 이후 이뤄집니다. 삼계교에 대한 탄압을 연도별로 정리하면 이와 같습니다.

① 수 문제(600): 삼계교 유행 금지. 599년에 고경의 실각.

② 측천무후(695): 이단으로 규정. 전적이 위경(僞經)으로 치부.

③ 측천무후(699): 활동을 걸식, 지계. 좌선에 한함. 전적은 삭제.

④ 현종(721): 화도사·복선사의 무진장을 없애고 재물을 분산시킴.

⑤ 현종(725): 활동 금지된 삼계원의 격장(隔障)을 제거.

이와 같이 시간이 흐를수록 탄압은 수위는 높아졌습니다. 721년에 이르러서는 교단의 경제적 기틀인 무진장을 없애고 재물마저 분산 당하게 됐습니다. 삼계교의 장안 입성을 589년 전후로 볼 때, 약 130년 동안만 교세가 유지됐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특히 위정자들은 삼계교의 '무진장'을 썩 좋아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헌종 때 이르러서 무진장을 없앤 뒤 4년 만에 삼계교도의 전체 활동이 금지한 것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삼계교의 무진장에서 실행한 '무진장행'은, 그 연원을 거슬러 올라가면 인도의 초기불교사상에서 그 영향을 받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인도에서 이뤄진 목적과 달리 중국에서는 전란과 관리들의 횡포로 어려움을 겪던 민중들에게 삼계교의 무진장은 좋은 양약으로 다가왔습니다.

무진장의 뜻은 원래 〈화엄경〉 〈유마경〉 등의 대승경전에 나타나있는 용어로 위로는 삼보, 밑으로는 빈궁에 보시하여 결함이 없음을 그 원의(原義)로 삼습니다. 삼계교 화도사(化度寺)에서는 이 경지에 입각하여 '대승무진장행'의 출처로 삼고 있습니다. 경전이 아닌 율부의 〈근본설일체유부비내야〉에는 이 같은 내용이 있습니다.

세존께 이르대, "만일 승가를 위해서라면 응당히 이윤을 추구해야합니다." 불(佛), 이 말을 듣고, "신심 있는 바라문 거사로 하여금 불법승을 위한 고로, '무진물'을 삼보에 보시하여 응당 회전(廻轉)하여 이(利)를 구해, 이물(利物)을 얻어 삼보 전에 회향하여 공양을 지으라."

삼보에 보시한 무진물(無盡物, 다함이 없는 물건)이란, 삼보를 위해 출식(出息)해서 이윤을 허용하고 있는 유부(有部)와 대중부 율전 등의 내용에서 알 수 있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있음(有)를 더욱 키워서 불전에 공양을 올리고, 그것에 이윤을 붙여 더욱 불려서 다시 그것을 공양물로 올리고 하는 모습을 상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송림사 주지〉

사찰 연등 및 전선 법당용, 외곽용

생산에서 시공까지 책임지겠습니다





공단연등(고리용)
노랑(오렌지) 진분홍 백색 연분홍 금색

제등행렬용품
일자A형 S형 T분리형 LED바A형 LED홀더B형 건전지 초

전선간격
22cm, 25cm, 28cm, 30cm, 40cm, 50cm, 1m, 2m, 3m, 5m, 8m, 10m, 기타주문

LED태양광 솔라
(국산정품)

LED전구 국산인증
고추구 12E 인지구 26E

도량(만월등)조립식 프레임(간편한 설치 및 높낮이 조절)





안전인증 ISO9001 ISO1400 특허청

정직과 신뢰의 불자기업
불제대원산업
BULJE DAEWON CO.LTD

구 입 문 의 031-986-0277~8, 02-2266-2634
032-582-6235~6, 02-2263-2638
문의핸드폰 010-3630-7092
http://www.bulje.co.kr 본사·공장 : 경기도 김포시 양촌읍 모산로 17-1

이승혜의 그녀, 붓다를 만나다 ❺ 사찰에 깃든 여왕의 향기: 분황사와 선덕여왕

▶한줄 요약
분황사 석탑에서 보이는 새로운 조형감각과 내부에서 발견된 독특한 사리공양품은 이 탑이 안팎으로 모두 여왕이 이끄는 새로운 시대의 상징물이었다는 점을 여실히 보여 준다.



선덕 여왕, 불탑에 '군주의 위엄' 담다

경주 분황사(芬皇寺)는 634년에 선덕여왕(善德女王, 재위 632-647)에 의해 창건되었다. '분황'이란 독특한 사명에 대해서는 '향기롭고 아름다운 절', '세상의 괴로움과 번뇌에 물들지 않은 분타리(芬陀利, 흰 연꽃)와 같은 부처님의 도량', '향기로운 임금의 절', '여왕의 사찰'과 같은 다양한 풀이가 있다. 어느 것이나 이 절이 선덕여왕을 위해서 건립되었다고 본다는 점에서는 공통된다. 창건 당시 분황사 옆에는 왕실과 나라를 위해 창건된 황룡사가 이미 번영을 구가하고 있었다. 왕위에 오른 지 3년이 되는 해, 선덕여왕이 막대한 인력과 재원이 필요한 토목공사를 벌여 굳이 자신을 위한 사찰을 건립한 이유는 과연 무엇이었을까.



분황사 석탑 전경. 사진출처=Wikimedia Commons



분황사 석탑 사리장엄구, 신라, 632년경. 사진출처=국립경주박물관

국왕 위엄 정치 상징 담긴 불탑
통치자 권한·위엄 드러낸 조형물
분황사 탑에 담긴 선덕여왕 흔적
신라 왕실, 석가족 후예임을 강조



분황사 석탑 사리장엄구 중 원반형 귀고리. 사진출처=e뮤지엄

'덕만우바이'처럼: 군주의 운명을 타고난 공주

신라시대에는 신분제인 골품제가 사회생활 전반을 규제했다. 신라의 제26대 왕인 진평왕(眞平王, 재위 579-632)대에 이르면 모두 8개의 신분 계층 중에서 가장 상위인 성골(聖骨)만이 왕위에 오를 수 있다는 인식이 팽배했다. 이 시기 신라 왕실에서는 석가모니의 권위를 빌려 왕권을 강화하고자 했다. 이는 이름에서 확연히 드러난다. 진평왕의 이름은 석가모니의 아버지인 슈도다나, 즉 백정왕(白淨王)에서 따온 백정(白淨)이었다. 그의 왕비는 석가모니의 어머니를 본떠 이름을 마야부인(摩耶夫人)이라 했다.

분명 석가모니와 같은 아들을 바랐을 진평왕과 마야부인의 슬하에는 딸밖에 없었다. 진평왕은 아들을 얻고자 두 번째 왕비까지 맞이했지만, 끝끝내 바람을 이루지 못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진평왕은 맏딸을 덕만(德曼 혹은 德萬)이라 이름했다. 아마도 〈대반열반경〉에 나오는 덕만우바이(德鬘優婆夷)에서 따온 이름이리라. 중생들을 제도하려고 일부러 여인의 몸으로 태어났다는 덕만우바이처럼 신라의 백성들을 다스리고 이끌어주기를 바라면서 말이다.

당시 신라에서 성골이란 특수한 신분 조건은 여성에 대한 차별을 이길 만큼 힘이 셌다. 진평왕이 세상을 떠나자 덕만공주가 즉위했다. 우리 역사상 첫 번째 여성 군주가 탄생하는 순간이었다. 그러나 여왕의 치세는 출발부터 순탄하지 못했다. 신라의 귀족 세력과 백성들은 물론, 이웃인 고구려와 백제, 중국의 당나라에서도 전례 없는 여성 통치자의 등장을 쉽게 받아들이지 못했다.

선덕여왕은 즉위 과정과 직후에 제기된 여러 반발을 적극적인 불교정책 추진을 통해 돌파하려 했다. 즉위 3년째인 634년은 이 같은 정책이 본격화된 해였다. 이해 정월, 여왕은 인평(仁平)이란 새 연호를 선포했다. '어진 정치'에 대한 굳은 의지를 대내외에 천명한 것이다. 개원(改元)에 맞추어 낙성된 분황사는 선덕여왕의 군주로서의 포부를 기념하는 상징물이었다.

탑으로 보인 국왕의 위엄

고대 동아시아 불교문화권에서 사리는 곧 부처 그 자체로 믿어졌다. 사리를 호지(護持)하고 공양할 수 있다는 것은 곧 부처가 함께한다는 증명이었다. 이 때문에, 고대 국왕들에게 있어 사리를 지니고 공양하는 일은 자신의 성덕(聖德)을 대내외에 알릴 수 있는 수단이었다. 그런데 사리의 공양은 역설적으로 사리를 감추는 일이다. 일단 탑 안에 봉안된 사리는 지진이나 전쟁과 같은 이유로 탑이 무너져 우연히 그 존재가 드러나기 이전에는 시야에서 사라지기 때문이다.

역설적으로 우리가 보는 것은 사리가 아니라 불탑이다. 바로 이 같은 이유로, 고대와 중세의 동아시아 군주들은 경쟁적으로 웅장한 불탑을 세웠다. 불탑이야말로 이미 우리 시야를 벗어난 사리의 시각적이고 건축적인 연장이자 사리를 수호하는 국왕의 정당성과 위엄을 드러내는 조형물이었기 때문이다.

단층 건물이 주를 이루었을 고대 사회에서 하늘 높이 치솟은 장중한 불탑은 통치자의 권위와 위세를 드러내기에 부족함이 없었으리라. 기존에 없었던 새로운 형식의 탑인 분황사 석탑과 유례가 없는 최고 높이의 탑인 황룡사 구층목탑의 건설이 시사하듯이, 선덕여왕은 누구보다도 불탑이 지닌 정치적 상징성을 잘 알고 있는 군주였다.

분황사의 중심은 석탑이다. 현재는 3층탑이나 본래는 9층 또는 7층의 장중한 탑이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돌을 네모난 벽돌 모양으로 다듬어 쌓아 올린 이 탑은 기존에는 없었던 과감한 시도였다. 전례가 없는 여왕체제의 신라에 걸맞은 새로운 형식을 찾으려는 실험이 아니었을까. 한 변의 길이가 13m에 이르는 널찍한 기단의 네 모퉁이에는 화강암으로 조각된 사자상이 한 마리씩 놓여 있다. 1층 탑신 안에는 감실을 만들고 네 면에 출입문을 만들었다. 네 문의 좌우에는 불법을 수호하는 금강역사(金剛力士)가 각각 한 구씩 배치되어 있다. 입체적이고 생동감 넘치는 모습에서 새 시대의 기상이 느껴진다.

탑 안에 담긴 여왕의 흔적

분황사 석탑의 사리장엄에 대해서는 1669년에 간행된 〈동경잡기(東京雜記)〉에 흥미로운 언급이 있다. 임진왜란 때 왜군이 탑의 반을 허물어뜨렸고, 이후 승려가 이를 다시 고쳐 쌓으려다가 그만 또 그 반을 허물어뜨렸다는 것이다. 이때 탑에서 바둑알 같고 수정처럼 빛나는 구슬, 즉 '화주(火珠)'를 얻었는데, 이를 백률사로 옮겨 보관했다고 한다. 조선 중기의 문인인 김수흥(金壽興, 1626-1690)이 남긴 '남정록(南征錄)'에 의하면 백률사에는 화주 외에도 은합과 거기 담긴 사리 등 여러 유물이 보관되어 있었다. 이 사리장엄구는 18세기 후반에 분황사 석탑이 중수될 때 탑 안에 다시 봉안되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1915년, 일본인들에 의해서 분황사 석탑이 해체 보수될 때 2층 탑신 중앙에서 석함이 발견되었다. 석함 안에서는 녹색의 유리병 조각, 사리가 들어 있는 은합, 수정(화주), 금바늘과 은바늘이 든 은제 바늘통, 가위, 옥과 구슬류, 집게, 패각, 금동 장식품, 동전 등 많은 수량의 유물이 발견되었다. 대부분 유물은 창건기인 선덕여왕대에 봉안된 것으로 생각되나, 중국 송나라 때 주조된 숭녕중보(崇寧重寶)나 코일 형태로 말려 있는 유리구슬 등은 후일에 석탑을 중수할 때 추가로 봉안한 것으로 추정된다.

분황사 석탑에서는 다른 석탑에서는 발견되지 않은 독특한 공양품이 다수 포함되어 있다. 그중 가장 눈길을 끄는 것은 '은제이전(銀製耳栓)'이라 지칭되는 원반형 귀고리이다. 초기 연구에서는 이 유물을 석함 안에서 나온 바늘이나 가위와 마찬가지로 재봉도구인 실패로 봤다. 그러나 근래에는 인도에서 유래한 귓불에 뚫은 구멍에 끼어 착용하는 귀고리란 해석이 설득력 있게 제기되었다. 5세기 후반에 그려진 것으로 추정되는 인도 아잔타석굴 제1굴 벽화에서는 같은 모양의 귀고리를 착용한 인물들이 여럿 보인다.

원반형 귀걸이는 경주 안에서는 분황사 석탑과 황룡사 구층목탑지에서 발견되었다. 두 유적 모두 선덕여왕과 관련이 있고, 두 유적에서 모두 귀고리가 한 짝씩 발견되었다는 점이 주목된다. 진평왕이 본인과 직계 왕실 가족에게 석가족의 이미지를 투영했던 걸 상기하면, 인도에서 유래한 원반형의 귀고리에는 단순한 장신구 이상의 의미가 담겼을 가능성이 있다. 당시의 신라 왕실 가족이 석가족의 후예임을 시각적으로 보여 주는 장치였던 것은 아닐까.

또 한 가지 주목해야 할 유물은 금, 은 바늘이 담긴 바늘통, 가위와 같은 재봉도구이다. 여성이 사용하는 물품이자, 금과 은이라는 귀한 재료가 사용된 점으로 보아 아마도 분황사를 창건한 선덕여왕의 공양했을 가능성이 크다. 흥미롭게도 선덕여왕이 건립한 황룡사 구층목탑 터에서 발견된 공양품에도 청동바늘통과 철제 가위가 포함되어 있다. 곁에 두고 사용했던 물품을 사리탑 안에 공양하는 것은 지역을 막론하고 나타나는 보편적인 현상이다. 분황사 석탑에서 보이는 새로운 조형감각과 내부에서 발견된 독특한 사리공양품은 이 탑이 안팎으로 모두 여왕이 이끄는 새로운 시대의 상징물이었다는 점을 여실히 보여 준다. 〈리움미술관 큐레이터〉

민속죽염 30년 전통
조상의얼과혼이담긴 우리민족의대표죽염

인체건강의 4대 요소는 "맑은 물, 맑은 공기, 맑은 음식, 질좋은 소금" 인데 이 중 "질 좋은 소금" 자색죽염은 총 아홉 번의 가열 과정을 거쳐 독성의 완전 제거와 약성의 완전 합성이 이루어지며 마지막 아홉 번째는 극강한 열에 의한 용융과정을 거쳐 탄생된 품질이 가장 우수한 죽염입니다. 이 죽염은 다음과 같은 기능이 있기에 일반인 및 환자들에게 꾸준한 섭취를 권장 할 수 있는 좋은 식품이라 할 수 있습니다.

① 강한 해독작용을 하며 간 기능을 좋게 한다.
② 소염작용을 하며 잇몸과 치아를 튼튼하게 해 준다.
③ 위장을 튼튼히 하며 식욕을 촉진시킨다.
④ 정혈작용 등 체질개선에 도움을 준다.



생명 에너지를 굳건히 지키면 약이 입에 이르기 전에 병이 낫는다. 환인동 요가마을

"죽염을 꾸준히 섭취하시면 인체의 자가 면역력이 높아져 감기 등 기타 질병 예방에 크게 도움이 됩니다"



◈ 9번 구운 민속죽염 ◈

가루자죽염	125g	45,000원
가루자죽염	230g	82,000원
알갱이자죽염	125g	50,000원
알갱이자죽염	230g	90,000원
휴대용 알갱이 자죽염	20g	9,000원

◈ 2번 구운 민속죽염 ◈
◆ 음식조리용 · 양치용 · 피부미용

보급형 민속죽염	500g	20,000원
	250g	10,000원

※ 단체 선물용으로 적합합니다. ※ 구입가 5만원 미만은 배송비 3천원 적용됩니다.

주문 및 상담 010-2823-0483 입금 : 농협 150012-56-086122 예금주 : 김용희(민속죽염)
경북 영덕군 지품면 속곡길381-4 www.msjy.co.kr



윤인수 원장 연구개발

겨우살이환
재료명: 겨우살이, 느릅나무뿌리껍질, 도라지, 더덕, 모과, 천문동, 맥문동, 비파잎, 삼백초, 뽕나무뿌리껍질, 둥굴레뿌리, 무화과, 탱자, 대추, 산사나무열매, 맥아
비염이 있습니까? 숨이 차십니까? 기침,가래가 힘드십니까? 천식에 힘드십니까?

여주환
재료명: 여주, 돼지감자, 바나바잎, 민들레, 복분자, 옥수수수염, 오미자, 구기자, 천문동, 창출, 뽕나무뿌리껍질, 음나무줄기, 독활, 작약, 칡뿌리, 감초, 산사나무열매, 맥아
당뇨 있으신 분 혈당수치관리에 좋습니다. 다이어트가 필요하신 분은 꼭 드세요

전복껍데기환[석결명 스틱]
재료명: 전복껍데기, 마리골드, 국화, 민들레, 엉겅퀴, 백작약, 다시마, 톳, 산사나무열매, 맥아
백내장, 녹내장, 황반변성, 당뇨망막병증 등 눈에 문제가 생기면 석결명환으로 해결하세요.
세종대왕께서도 드셨다고 세종실록에 나와 있습니다. 추사 김정희 선생도 애주도 유배시 석결명환을 드셨다고 방송되었습니다.

폐청소법, 치매·중풍 예방법 등 성인병에는
윤인수 원장의 경혈자극요법을 활용하세요.
기침, 가래, 기관지염, 비염, 폐렴, 기관지폐렴, 폐 화농증, 편도선염, 축농증, 천식, 불면증, 수면장애, 어지럼증, 두통, 이명(귀울림), 구안와사, 조현병, 협심증, 위염, 위경련, 변비, 어깨·관절통증, 발목관절통증, 오십견, 목이 쉬었을때, 전립선 질환, 요실금, 콩팥위축, 방광염, 신장염, 황달, 간경화, 피부가려움증, 다이어트, 생리불순, 백내장, 각막염, 결막염, 녹내장, 황반변성, 야맹증, 원형탈모증, 삼차신경통(상지, 중지, 하지) 등
전화주시면 간략하게 설명드립니다

골담초환
재료명: 골담초분말, 쇠무릎뿌리, 황칠나무, 두충, 가시오가피, 참당귀, 울금, 덩이뿌리, 쇠비름, 독활뿌리, 개다래열매, 천마뿌리, 율무, 질경이, 음나무줄기, 왕느릅나무껍질, 엉겅퀴, 산사나무열매, 맥아
허리, 다리가 불편하십니까? 오래 걷기 힘드십니까? 계단 오르기 힘드십니까?

산수유환
재료명: 산수유, 호박씨앗, 옥수수수염, 복분자, 사상자, 토사자, 구기자, 오미자, 천궁, 우슬, 복령, 산청목, 질경이, 뽕나무뿌리껍질, 두충, 산사열매, 맥아
소변때문에 밤에 몇번씩 일어나십니까?

어성초환
재료명: 어성초, 적하수오, 자소엽, 측백나무잎, 서목태, 원지, 우슬, 천문동, 마가목열매, 복분자, 솔잎, 뽕나무뿌리껍질, 녹차잎, 창출, 구기자, 산사나무열매, 맥아
머리카락이 많이 빠지십니까?

하지·아이케어센터 | 구입문의 : 02-969-9007 / HP.010-3245-0118
농협 : 301-0234-9633-61 / 예금주 : 윤제하

독자들의 질문을 받습니다. 불법을 수행하시는 중에 의문이 생기거나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서신이나 팩스 또는 인터넷으로 보내 주십시오. 조계종 한마음선원 대행 스님의 법문 중에서 발췌하여 답변드립니다. 삶의 고뇌에 대해서도 상담해 드립니다. 〈글책임 편집자〉 ●보낼곳 우 03131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 6길 36, 월드오피스텔 606호 현대불교신문사 '길을 묻는 이에게' 담당자 앞 ●인터넷:www.hanmaum.org 또는 한마음선원 ●FAX (031)470-3116



대행 스님

여러분! 한군데다 뭉쳐서 놓는 작업을 열심히 하십시오

말 한마디가 법이 되게

질문 제가 말을 좀 많이 하는 편이라 사람이 좀 가벼워 보이는 것 같습니다. 한마디를 해도 좀 진중하고 무겁게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말 한마디가 법이 될 수 있게 할 수 있을까요.

답변 나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말을 좋게 해서 여러분의 귀만 즐겁게 한다면 잘못이다 하는 것을 느낍니다. 여러분이 마음으로 스스로 절감하고 감응이 돼서 여러분 마음에서 스스로 한생각을 낼 때에 그것이 법이 됩니다. 여러분이 체험하고 차츰차츰 삶의 보람을 느끼면서, 또는 허망함을 느끼지 않는 법이 거기에서 나오는 거지 다른 게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우리가 업보를 지니고 나왔으면은 팔자 운명을 어떻게 할 수 없지 않습니까?" 하는데 그거는 모르면 그렇다 이겁니다. 바깥으로 끄달리면 더 업보를 지을 뿐, 그것을 무마시킬 수 없고 녹일 수는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하나 들어오는 대로 바깥에서 오는 경계도 안에서 일어나는 경계도 모든 것을 거기에다 놓는다면 모든 업보가 무너지는 거죠, 지옥고가.

천차만별로 돼 있는 지옥고가 무너지게 되자 고르고 골라서 씨를 뿌린 밭에다 물을 주면 싹이 모락모락 나오듯, 내 마음의 근본이 바로 모락모락 나오게 되죠. 그럼으로써 지혜가 생기고 남을 원망하지 않게 되고 묵묵히 걸어가게 되고, 한 발을 떼어 놓을 때에 무겁게 떼어 놓게 되고, 말 한마디 할 때 한 번 굴려서 무겁고 지혜 있게 말을 하게 되고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말 한마디가 법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분들도 많을 테죠. "저 스님은 이거는 이렇고 저거는 저렇다고 똑 떨어지게 말하지 않고, 항상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게 얼버무려 놓는 사람이야." 이렇게 말입니다. 그러나 딴 사람들이나 여러분은 모르겠지만 내가 여러분이 나쁜 짓을 했다고 해서 나쁘다고 한 번만 말을 해 놓고 한번 생각했다면 그 사람은 좋아질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좋다'고도 아니 하고 '나쁘다'고도 아니 하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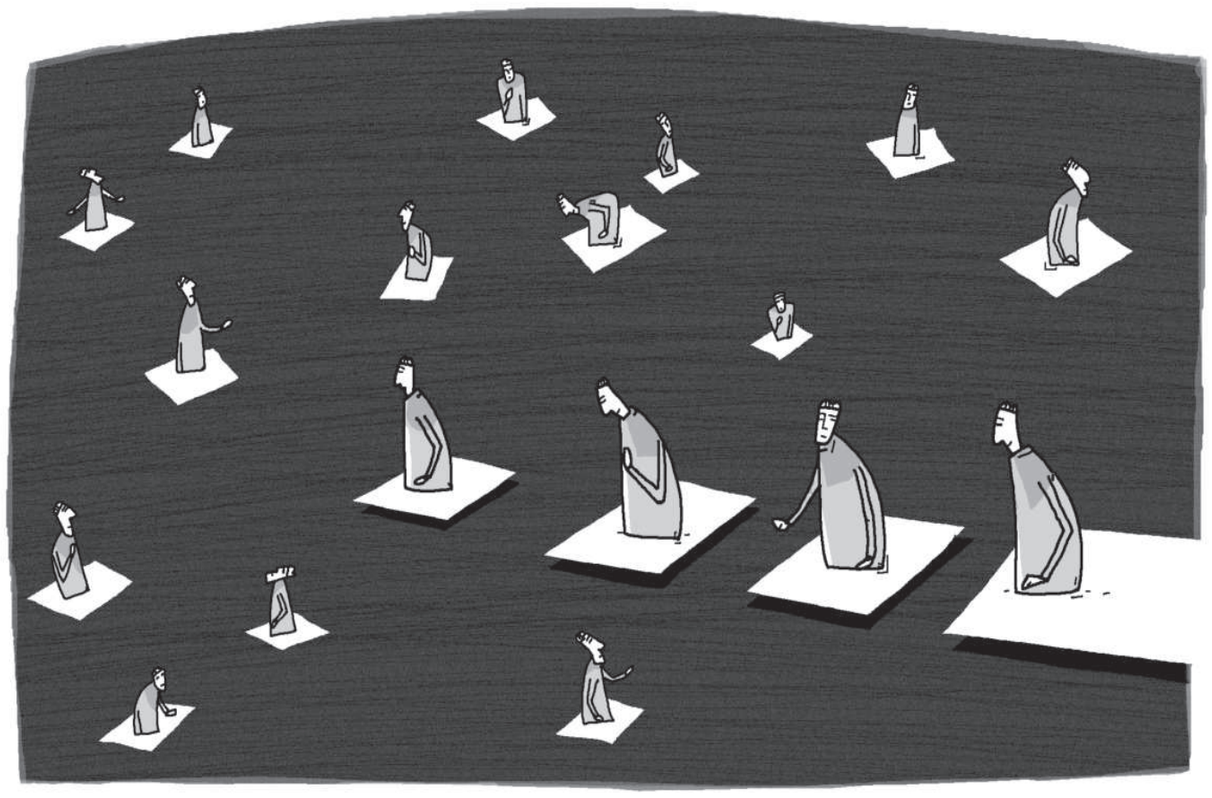


그림 · 최주현

강도도 강도가 아니라고 하지도 않고 강도라고 하지도 않습니다.

이런 공부를 하고 있는 사람이 어찌 마음으로 '저건 강도다' 그러고 생각을 하겠습니까? 그리고 말을 하겠습니까? 이건 '선자'고 이건 '악자'다, 이렇게 어떻게 말을 합니까? 그러면 그분은 몸을 벗어도 그 차원에서 벗어나지 못해서 요다음에 또 그렇게 곡경을 당할 테니 그것을 왜 그렇게 해야만 합니까?

말 한마디 해서 법으로 딱 떨어질 땐 그게 무서운 말인데 어떻게 이건 옳고 이건 그르다고 하겠습니까?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나쁜 일을 했다가도 좋은 사람이 될 수 있고, 좋은 사람일지언정 때로는 나쁘게 돌아갈 수 있다는 그 사실을 여러분은 잘 파악하고 계시겠죠. 장차 좋은 것도 아니고 장차 나쁜 것도 아니다 이겁니다. 한 찰나입니다. 나쁜 짓을 했다 하더라도 그 사람이 항상 나쁜 짓만 하는 게 아닙니다. 금방 어떠한 지경에 도달해 '나는 이렇게 해서 안 되겠다' 하고 돌아섭니다. 그렇게 돌아설 사람을 '이 사람은 나쁘다' 그러고 꼭 찍어 놔야 옳겠습니까?

이건 그럴 수가 없죠. 법을 다루는 사람으로서, 길잡이로서, 여러분한테 부처님의 참뜻, 이 좋은 법을 전달하는 사람으로서 어떻게 그렇게 말 한마디 할 수 있느냐? 여러분은 못 믿겠지만 정말 법이라는 것은 그렇게 무섭습니다.

이 손이 손이 아닙니다. 손 아닌 손이 손이지. 손가락 하나 가지고도 하늘을 받칠 수가 있다는 그 사실, 하늘을 뚫을 수가 있다는 사실. 백지장 하나를, 산을 넘어가는 게 무서운 게 아니라 백지장 하나 넘어서기가 어렵다는 얘깁니다. 산을 넘어가는 거야 넘어갈 수가 있지만 백지장 하나 넘어서기가 그렇게 어려운 것이니, 여러분이 그것을 다 놓고 그 백지장 하나 사이를 넘어선다면 여러분은 정말 대인이 되실 것입니다.

환희심이 지속되지 않아…

질문 참나를 발견해 보겠다고 좌선을 하고 앉아 있으면 마음이 고요해지면서 환희심이 생기는데 그게 오래 지속되지 않고 다시 화내고 감정적인 내 습성대로 돌아오게 됩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답변 그런데요, 이 참나를 발견하는 이 문제는요, 성내는 거든 성을 안 내는 거든, 환희심이 나는 거든 환희심이 안 나는 거든 무조건 거기 맡겨 놔야 됩니다. 왜냐하면 악과 선도 다 놔야 되니깐요. 그래서 안 되는 것도 거기서 하는 거, 되는 것도 거기서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 되는 것도 '어, 거기서밖엔 해결하지 못하겠구나. 나를 테스트해 보려고 그러는 거지.' 하고 선 거기 넣고, 잘됐으면 감사하게 거기 놓고. 이렇게 두 가지 요건이 다 그렇게 돼야 됩니다. 내가 했다는 거는 없습니다. 내가 한 것도 없고, 내가 했다는 생각조차 또 안 된다는 생각조차, 빨리 하겠다 하는 생각조차도 놔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아주 구태연한 얘기지마는 맷돌을 굴리는데 심봉이 아래 위 꿰지지 않는다면 절대로 이건 맷돌을 굴릴 수가 없습니다. 어떠한 기계도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지금부터라도 작업을 하시려면 모든 것을 평등하게 보시고 마음을 넓게 지견으로 쓰시면서 좀 더 생활 속에서도 모든 것을 용광로에다가, 내 가슴속의 용광로, 제일 최초의 용광로에다가 작업을 하는데 모든 것은 거기서 나오는 거니까 '주처에서 나온 거니까 주처에서 다 알아서 거기서밖엔 해결할 수 없다.' 하고 거기다가 일임하고 놨을 때 비로소 그 작업만 한다면 그 쇠는 저절로 생산이 돼서 나갑니다. 여러 가지 이름을 가지고 출현하죠. 그런데 모두 그저 용광로에 넣는 것만 놨으면 좋겠는데 저기 생산돼 나가는 것까지 걱정을 하는 거죠. 왜 그리 걱정을 많이 하고 사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일체 실험해 보십시오. 모든 걸 거기 맡겨 놓고 거기서부터 감사하다, 거기서밖에 못 한다, 물러서지 않는다, 믿는다 이거를 꼭 하세요.

악한 세상이 두려워요

질문 태초에 어쩌다 생명이 생겨서, 어쩌다 우리는 이렇게 인간으로 태어나서 이 험난한 세상을 살아가는 것일까요? 갈수록 악한 세상이 되어 가는 것이 두렵기

☞ 20면으로 계속



삶의 고해(苦海)를 건너가는 지혜의 가르침

삶은 苦고가 아니다(개정판)

세상 모든 생명들에게
바치는 대행스님의
생활속 불법이야기

"살아있는 탑에는
개개인의 살림살이와
보이지 않는 곳의 마음이
같이 돌아가고 있습니다.
탑은, 거꾸로 세워놓아도 바로 세워놓아도
모로 세워놓아도 뒤집어서 세워놓아도
세상을 모두 하나로 돌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2009년 4월 9일, 책 표지에 탑을 형상화하여 넣으라시며
탑의 의미에 대하여 말씀하신 대행 스님의 법문입니다.

대행스님 법어집 '삶은 苦가 아니다' 오디오북 출시

대행스님의 법어집인 '삶은 고가 아니다'를 오디오북으로 제작하였습니다.
전문 성우의 목소리가 아니라 대행스님의 가르침을 따라 마음공부 하는
이들이 수개월간의 정성과 노력을 담아 완성한 이 오디오북을 통해
불교를 더욱 편안한 마음으로 접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 오디오북 소개 |

제1장 나는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고 있는가
• 내가 누구인지 모른대서야 00:03:13
• 누구나 부처 될 자격이 있으니 00:33:47
• 통하는 길은 오직 마음뿐 00:51:17
• 마음의 안테나를 세워라 1:26:20

제2장 누구에게나 똑같이 부여된 능력
• 생명의 에너지와 주인공 01:37:30
• 자신의 뿌리를 굳게 믿고 01:54:07

제3장 다 놓고 얻는 도리
• 놓고 가는 생활선 02:11:58
• 고정관념부터 깨라 03:03:44
• 삶은 고가 아니다 03:36:59

제4장 서로 돕고 사는 세계
• 공생 공용의 이치 04:23:15
• 생활 속의 마음 도리 05:00:41

제5장 가르침의 바른 이해
• 마음 밖에는 부처가 없다 05:43:54
• 불법의 바른 이해 06:05:10
• 실참 수행 06:49:56

제6장 고에서 벗어나는 길이 있으니
• 고에서 벗어나는 길이 있으니 07:23:00

정가 ~~14,000~~원 → 특판가 12,600원 / 신국판 / 314쪽 (배송비 별도)

『삶은 고苦가 아니다』는 1996년 9월에 처음 발행되어 초판 22쇄라는 기록을 남기고 스테디셀러로 자리매김한 대행스님 법어집 입니다.
2015년의 3판 개정판에 이어 2022년 4월에 개정 제4판을 내놓으며 읽기에 좀 더 편하도록 글자 크기를 키우고 잘못된 부분들을 수정하여 페이지 수를 추가하였습니다.

주문은 마하몰! 02)732-1520 인터넷 주문 : www.mahamall.co.kr 신한은행 100-036-429749 (예금주 : 현대불교신문사) ※ 전국 대형서점 및 인터넷 서점에서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내 마음이 따뜻지 못하면 남의 마음도 따뜻지 못합니다

☞ 19면에서 계속

만 합니다.

답변 우리 몸뚱이도 지수화풍으로 뭉쳐져 있습니다. 또 몸뚱이 속에 들어 있는 생명들도 지수화풍으로 뭉쳐진 것입니다. 그런데 바깥에, 외부에 있는 지수화풍을 먹고 삽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원 고향은 어딘가? 자기 몸뚱이가 그냥 고향입니다. 왜냐? 여러분은 지수화풍 속에서 나왔으니까 말입니다. 이 물컵도 지수화풍이 계합이 됐기 때문에 하나 나왔습니다. 모든 것이 지수화풍이 아닌 물질이 없습니다.

그러면 지수화풍끼리 전부 헤어져서 살다가 야, 이렇게 따로따로 이러다 보니깐, 우리가 우리를 탄생시키지 못한다 이겁니다. 그래서 자기네들끼리 모아서 자기네들끼리 한 물건을 내놨을 때에 그때에, 즉 말하자면 미생물의 존재라고나 할까요? 그렇게 해서부터 생겨나기 시작이 된 거라고 하죠.

그러면 우리가 수억겁 광년을 거쳐 오면서 나쁜 일도 하고 좋은 일도 하고 또 어리석은 일도 하고 어리석지 않은 일도 하고 이러다 보니까 한 생각의 진화력을 갖게 됐고, 바로 그것이 우리를 인간까지 이끌고 나온 게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그러면 그 경험을 쌓은 우리 인간은 고등 동물이라고 하죠. 그렇다면 여러분은 한 생각으로서, 내가 그전에 그랬죠? 토끼가 다리가 다 똑같았는데 내리막을 뛰다 보니깐 앞다리가 똑같으니깐 뛰어지질 않아요, 잡아먹히기 똑 참하거든. 그래서 고다음서부터 '나는 앞다리가 조금 짧게 나와야겠다. 짧게 했음 좋겠다.' 하니까 그다음에 나올 때 짧게 돼 가지고 나왔더래요.

이해가 안 가신다면 또 하나, 태교를 예로 들겠습니다. 어느 부부가 쌍꺼풀도 하고 얼굴도 아주 미인으로 만들고 미남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어린애를 낳아 놨는데 아주 보기 싫었습니다, 자기 본 얼굴이기 때문에. 그래 남들이 볼 때에 저 부부는 저렇게 잘생기고 미인인데 어째서 애는 이렇게 메주덩이같이 낳았느냐고 질문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양심들은 있죠.

그랬는데 그 후에 두 번째 애를 가졌을 때 누가 이렇게 일러 줬습니다. "당신은 당신 얼굴 그림 그려 가지고 나온 것을 생각지 말고 당신 할아버지가 참 잘생겼으니 할아버지 그 얼굴대로 그대로, 몸집 그대로 모든 것을 태교하면서 생각해라. 그렇게 그림을 그려라." 그래서 딴은 그렇게 그림을 그리니깐 아주 잘생긴 그 할아버지를 닮아서 나왔더랍니다.

이것은 즉 마음입니다. 마음은, 손도 없고 발도 없고 내 몸뚱이도 없건만 그렇게 잘 그려 가지고 나올 수 있는 것이 바로 태교입니다. 그래서 태 안에 있는 어린애, 그 자라는 어린애의 마음, 그것은 바로 그 어린애의 마음이나 우리 산 사람들 마음이나 모든 게 같이 늙어서 둘이 아닌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태교가 가능한 것입니다. 이것도 여러분 젊은 분들도 노인네들도 우리가 지금만 살고 요다음에 그냥 잎이 떨어졌다고 그 이듬해 봄에 잎이 안 피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잘 그려 가지고 나오시길 바랍니다.

나라의 모든 것들도 이 마음에 달려 있어요. 그런데 투표를 해도 많은 쪽으로, 국회의원이든 대통령이든 뽑힙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지금 우리의 마음들이 악으로 많이 기울어지면 그 악의 무리들로 인해서 천지가 산란해지고 지금 세상이 모두 산란하게 됩니다. 그러니 마음에 달렸다고 하지 않겠습니까? 전체 말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잘 쓰고 돌아간다면 무의 세계의 내 마음이 바로 잘 알 거고, 무의 세계의 내 마음이 유의 행으로 나오니 그것이 잘 될 텐데….

때마다, 천 년만큼씩도 되고 오백 년만큼씩도 되고 십만 년만큼씩마다 그런 문제가 생긴다고 봅니다. 우리가 참 경제적으로나 모든 면에서 발전이 많이 됐다고 하지만 그거를 수용할 수 있는 그릇이 채 못 되기 때문에, 넘쳐흐르기 때문에 부작용이 일어나는 거죠. 발전은 성급하게 되면서 그릇은 작으니 그게 넘쳐흐르게끔 돼 있는 것에서 이러한 발단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릇부터 크게 만들어야 합니다. 그릇이 요만하다면 요만한 거밖에 담기지 못하는데, 요만한 그릇에다가 그냥 빨리 성장하라고 막 그 에너지를 들이부으니까 이게 넘쳐흐르게 되는 것이니 말입니다.

동생과 마음이 맞지 않아서…

질문 저는 동생이 하나 있는데 서로 마음이 맞지 않아 늘 다투는 것이 일상입니다. 잘해 주려고 마음을 먹는데도 막상 하는 행동을 보면 분별심이 일어나서 거친 말부터 나가기 일쑤입니다. 마음공부 하면서 좀 덜해지긴 했는데, 이제는 동생에게 공부하는 언니로서 자비로운 모습을 보여 주고 싶습니다.

답변 여러분은 가정에서 살면서, 또는 입산을 해서 어느 도량에서 산다 하더라도, 형제들이나 한 가족에서 차이를 두고 항상 '내가 이만큼 하니까.', '너는 내 아래야.' 하고서 이렇게 할 게 아니라 내 아래가 바로 내 스승이란 걸 아셔야 합니다. 풀 한 포기도 내 스승이요, 내 아랫사람도 내 스승이요, 잘못하는 걸 봤을 때에 그 잘못하는 걸 보고도 스스로 느끼는 바가 있고 잘하는 걸 보고도 느끼는 바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스승 아닌 게 하나도 없습니다. 모든 것이 나 아님이 하나도 없고요.

그래서 말을 하자면 일체 만생, 만 중생이라고 해도 되지마는 만물만생에 들고 나면서…, "들고 나며" 하는 것은 이게 보통 얘기가 아닙니다. 들고 나면서 찰나찰나 화하면서 나투는 부처님의 뜻은 불바퀴가 돌아가는 사이 없이 돌아가면서 나투는, 화해서 나투는 그것뿐입니다. 우리가 이러니저러니 이게 잘하느니 저게 잘하느니 하고 이렇게 논의를 한다면 부처님의 발 꼬리도 못 쫓아갑니다. 부처님의 모습은 없다 할지라도, 우리들의 모습이 있는 한 부처님의 모습도 계신 겁니다. 풀 한 포기가 살아 있다 하더라도 부처님은 계신 거고, 지수화풍이 있는 것도 부처님이 계신 겁니다.

그러니까 부처님이 돌아가셔서 이제는 말세가 됐다 이러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마음이 부처님의 마음이요, 여러분의 행동이 부처님의 법이요, 여러분의 그 모든 움죽거리는 그것이, 바로 화해서 돌아가는 것이 바로 보현신입니다. 화신 말입니다.

그 마음의 뜻을, 부처님께서는 삼천 년 전부터 '마음 떠나서는 일체 만법을 행하지도 못할 뿐 아니라, 설하지도 못할 뿐 아니라, 법이라고 말할 것도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을 겁니다.

자비라는 것은, 가정에서도 무조건 내 탓으로 돌리고 모든 것을 무조건 조건 없이 사랑하는 것이 그게 바로 자비입니다. 무조건 그렇게 자비를 베풀어야 마음과 마음이 서로 불이 들어오게 돼 있습니다. 그럼으로써 내 아들이 잘못되지 않고 잘 나갈 수 있고, 내가 술 먹지 않고 또는 화투 치지 않고, 하하하, 또 나가서 잘못되지 않고, 가다가도 그냥 차에 잘못되거나 하지 않고 이렇게 할 수 있는, 뭐든지 여러분의 마음에 달려 있습니다. 그것은 마음먹기에 달려 있는 거지 누가 갖다 주고 뺏어 가는 게 아닙니다.

> **우리가 이러니저러니, 이게 잘하느니 저게 잘하느니 하고**
> **이렇게 논의를 한다면**
> **부처님의 발 꼬리도 못 쫓아갑니다.**

그래서 바로 우리가 이 마음의 암흑 속에서 벗어나는 것이 달과 같다고 했습니다. 달과 같이 밝음, 어둠을 비춰 주는 달과 같이 밝음이라고 했습니다. 해가 거기에 속해 들어가는 것은 뭐냐 하면 일체 만 중생을 따뜻하게 키워 주고 비춰 주고 있어서입니다.

그러면 그것이 우리 마음에 어떻게 속해 있느냐? 우리 생활 속에서도 따뜻한 마음씨로 따뜻한 지혜로써, 말도 부드럽게 하고 행동도 부드럽게 하고 생각 생각이 부드러운 지혜로써 서로 융합해 나간다면 그것이 바로 해와 같은 겁니다. 내 마음이 따뜻하지 못하면 남의 마음도 따뜻하지 못합니다. 내 마음이 따뜻하지 못한데 어찌 남의 마음이 따뜻할 때를 바라겠습니까?

내 마음이 악하게 되면 그건 무간지옥이라 그랬습니다. 지옥이 따로 있는 게 아닙니다. 반면에 선하고 착하고 밝고 깨끗하게, 정심으로써 지혜롭게 따뜻한 마음으로 모든 사람들을 대하고 일체 중생을 대하고, 가정을 대하고 모든 상대를 대할 때, 따뜻한 마음으로 둘이 아닌 도리로 대한다면 마음은 체가 없는 거라 스스로 상대도 밝아져서 나와 더불어 밝게 불을 켤 수 있다 이 소립니다.

하여튼 여러분, 한군데다가 뭉쳐서 놓는 작업을 열심히 하십시오. 일체 만법을 오는 대로, 용도에 따라서 모든 걸 닥치는 대로 거기 맡겨 놓는 것 말입니다. 그럼으로써 거기서 다시 생산이 돼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용광로에다가 전부 넣으면, 그냥 넣기만 하는 작업을 하면은 생산이 되는 건 저절로 생산이 돼서 다시 나오죠? 연탄도 그냥 가루로다가 다 몰아서 넣으니까 연탄이 되어서 나오고, 연탄이 되어서도 차곡차곡 나가는데, 연탄을 만드는 데서는 다 같이 만들지만, 집집마다 나누어 가는 데는 다 각자 집으로 갑니다. 모습은 다르고 모양은 다르고 생각도 다르고 모두 다르지만 말입니다.

비가 내리면 일체 만 중생들이 다 그 물을 먹고 살죠. 그러면서도 물을 감사하게 생각도 안 합니다. 모두 식물이나 동물이나 모두 그 빗물을 아니 먹는 게 없는데도 그러니 그렇게 양식을 내려주는 것도 감사하다고 생각 한 번도 해 본 예가 없고, 또는 온기가 항상 꺼지지 않게 여러분 앞에 있는데도 감사한 줄 모르고, 불도 감사하게 쓸 줄 모르고, 바람 공기도 감사하게 생각지 못하고, 딛고 다니는 자기 흙도 감사하게 생각하지 못하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실정이라고 봅니다.

모든 게 나 아님이 없습니다. 인연에 따라서 전부 나 아님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독불장군처럼 나 혼자 내가 잘나서 산다고 한다면 먹지도 말고 입지도 말고, 뭐 땅을 딛고 다니지도 말고 물도 먹지 말아야 하고 아예 그냥, 그렇게 해야죠, 뭐.

그러니까 그 뜻을 잘 아셔서 먼저 작업할 게 바로 그거라는 말입니다. 과거 씨는 현실의 싹이 돼서 그 싹에 열매가 열려서 그 열매 속에 씨가 들어 있는 줄 모르고 과거로, 바로 내가 나기 이전 그 과거로 돌아가서 찾으려고 한다면 절대로 그건 오산입니다. 그리고 나를 끌고 다니는 놈이 그 놈이라는 걸 알고 무조건 '그놈으로부터 나온 거니까 그놈으로부터 해결해라. 그놈으로부터 나 아닌 내가 있다는 걸 증명을 해 줄 수 있다.' 하고 일체 만법을 다 거기다가 놓는 작업으로써 생활해 가기를 바랍니다.

대행 스님 법어집

다만 그윽한 마음을 내라

대행스님 초창기 법문의 정수가 담긴 결정판

"얕은 물도 깊은 물도 갈 수 있는 자유로운 배가 되어라."

마음의 길, 주인의 삶으로 이끄는
대행 선사의 가르침

스님께서 30여 년에 걸쳐 설하신 방대한 법문을
근간으로 하여 그동안 여러 형태의 책들이 나왔습니다.
생생한 육성 그대로 담아 낸 법문집들은 마음공부를 하는 이들에게
든든한 길잡이이자 무한량의 자원이 되어 줍니다.
그러나 스님은 알음알음에 빠지는 것을 늘 경계하셨습니다.
경을 보되 누가 보는가를 바로 알아야 하고, 목마를 때 스스로
물 한 컵 들이킬 수 있는 그런 공부를 해야 한다고 하셨지요.
또 한권의 책을 세상에 내놓으며 그 말씀에 담긴 깊고 간곡한 뜻을 다시 새겨보게 됩니다.

〈책을 펴내며〉 중에서

정가 18,000원 / 375쪽 / 출판사 (재)한마음선원 출판부



주문은 마하몰! 02)732-1520 인터넷 주문 : www.mahamall.co.kr 신한은행 100-036-429749 (예금주 : 현대불교신문사) ※ 전국 대형서점 및 인터넷 서점에서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하성미 기자의
心 心 talk talk

㉝ 분노의 화살을 멈추게 한 부처님, 분노 시리즈 (6)

자기 가치, 타인 평가로 결정되지 않는다

"나를 왜 무시하는 거야?" "어쩌라고? 난 원래 이런 사람이야" "내가 뭘 그리 잘못했는데?"

이런 말들을 자주 하는 사람을 만난 경험이 있는가? 피드백 혹은 충고를 하려해도 돌아올 분노가 두려워지는 사람이 주변에 있는가? 누군가 자신의 의견을 반박하거나 작은 충고를 건넸을 때 격한 반응을 보이는 사람이 있다. 이들은 사소한 지적에도 쉽게 분노하며, 자신이 무시당했다고 느낄 때 더욱 예민하게 반응한다. 이러한 분노는 단순한 감정 폭발이 아니라 '수치심 기반형 분노(shame-based anger)', 즉 수치형 분노라 부른다.

대학교 시절 동아리 선배는 평소에는 온화한 성격이었지만, 후배가 자신의 의견을 반박하면 격렬하게 반응했다. 친구와의 대화에서도 사소한 지적을 참지 못하고 언성을 높였다. 곰곰이 생각해보면 선배의 반응이 전형적인 수치심 기반형 분노였다.

그들은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방어 수단으로 화를 내고 분노를 표출한다.

수치심은 단순히 "내가 잘못된 행동을 했다"는 일반적인 죄책감과 다르다. "내 존재 자체가 결함이 있다"고 느끼는 깊은 감정을 동반해 자신의 존재 자체를 스스로 경멸하는 경우가 많다. 즉, 특정한 행동이 아니라 자신의 전체를 문제 삼고, 가치 없는 사람처럼 느끼는 감정이다.

수치심 기반의 분노는 주로 자신이 무시당한다고 느낄 때, 실수했을 때 남들에게 평가받는 상황, 자신의 부족한 점이 드러날 때, 혹은 타인이 자신을 낮게 평가한다고 생각될 때 촉발된다. 이 분노는 겉으로는 공격적으로 보이지만, 내면에서는 극도의 불안을 동반한다. 타인의 반응에 지나치게 예민하게 반응하고, 스스로 '분노 조절을 못 하는 사람'이라고 자책하는 경우도 많다.

수치심은 완벽주의와도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 수치심은 "나는 부족한 사람이다"라는 감각에서 비롯된다. 반면 완벽주의는 그 부족함을 감추기 위해 "나는 완벽해야 한다"는 신념을 형성한다. 수치심이 강한 사람들은 자신의 결함이 드러나는 것을 두려워하며, 이를 숨기기 위해 높은 기준을 설정하고 완벽을 추구하는 경향이 있다. 하지만 아무리 노력해도 완벽할 수 없기에, 결국 또다시 실패를 경험하며 수치심이 강화된다. 완벽주의는 결국 수치심을 감추기 위한 전략이 되며, 두 감정은 동전의 양면처럼 맞물려 작동한다.

수치심에서 비롯된 분노를 조절하려면, 단순히 분노를 억누르는 것이 아니라 수치심의 근원을 탐색하고 이를 다루는 과정이 필요하다. 특히 자신의 사고 과정을 점검하고 신념을 수정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

완벽 강박, 수치심이 만든 방어 전략
타인평가 담담, 수치심 분노 이겨내야

분노가 치밀어 오를 때, 자신이 무시당한 것 같아서 화가 났다면, 그것이 진짜 '무시에 대한 반응'인지, 아니면 어린 시절의 경험이 다시 떠올라 자동적으로 작동한 것인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두 번째로, 수치심을 객관적으로 다루어야 한다. 어린 시절 부모나 주변 환경으로 인해 형성된 '내면의 목소리'는 때때로 현실과 다를 수 있다. "넌 부족해", "너는 항상 실수만 해", "다른 사람처럼 잘해야 인정받아" 같은 생각들은 과거의 경험이 만들어낸 왜곡된 신념일 수 있다. 이를 알아차리고 "나는 충분히 괜찮은 사람이다"라고 스스로에게 말하는 연습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타인의 반응에 과도하게 의미를 부여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모든 사람의 말과 행동이 나를 공격하기 위한 것은 아니다. 상대가 내 의견을 반박했다고 해서, 그것이 나를 무시하는 의미는 아닐 수 있다. "나는 나의 가치를 다른 사람의 평가로 결정하지 않는다"라는 말 처럼 스스로에게 이렇게 다짐해 보는 것은 분노를 해결하는데 큰 도움이 된다.

부처님 당시, 인도의 카스트 제도 아래에서 불가촉천민은 가장 천한 신분으로 여겨졌고, 상위 계급과의 접촉조차 허용되지 않았다. 그 중에서도 똥을 치우는 일을 하던 사람들은 더욱 심한 차별을 받았다.

어느 날, 부처님과 제자들이 길을 가던 중 한 남성이 그들을 피해 숲길로 들어갔다. 그는 똥을 나르는 일을 하던 니이다이였다. 부처님은 그를 보고 깨달음에 이를 가능성이 있음을 직감하고 직접 찾아가셨다. 그러나 니이다이는 부처님을 피해 급히 도망치려다 넘어져 똥물을 뒤집어썼고, 부처님의 옷에도 튀고 말았다.

두려움에 떨던 니이다이에게 부처님은 조용히 냇가에서 옷을 빨아오도록 하셨다. 니이다이가 깨끗한 옷을 입고 돌아오자, 부처님은 "옷이 어떻게 되었느냐?"고 물었고, 니이다이는 "깨끗해졌습니다"라고 답했다. 이에 부처님께서는 "본래 더럽거나 깨끗한 것은 없다. 더러워졌다면 씻으면 될 뿐이다. 마찬가지로 사람도 태생에 의해 귀하거나 천한 것이 정해지지 않는다. 스스로 천하다고 여기는 마음을 버린다면 누구나 해탈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다.

자신의 가치를 스스로 낮추는 것은 무의미하다. 신분이나 출신에 의해 인간의 존엄이 결정되는 것은 아니다. 우리는 모두 성장하고 깨달음을 얻을 수 있는 가능성을 지니고 있으며, 다른 사람의 평가에 휘둘리는 대신 스스로 본래의 가치를 깨닫는 것이 중요하다. 자신의 가치를 타인의 기준으로 재단하지 않을 때 비로소 자유로워질 수 있다.

건강 365

㉞ 우울증에 대하여

서로에게 '작은 부처'가 됩시다

우울증은 두 명 중 한 명이 일생동안 한 번 정도는 겪는 흔한 질병이라는 연구결과가 있다. 또한 원인도 한 가지가 아니라 여러 가지 요인과 심리·육체적 복합적 형태로 다양하다. '우울'이라는 말은 침체된 마음(憂)과 막힌 상태(鬱)를 의미한다. 정신과 정서적 원인뿐만 아니라, 외부 환경과 계절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

사람의 삶에서 사춘기, 출산 후, 갱년기 등 인체 주기에 급격한 변동이 있을 때에도 우울증상이 나타나는데, 이 시기에 경험하는 우울증의 공통점은 신체 내부에 있는 호르몬의 급격한 변화로 본인의 의지와는 다르게 감정 기복이 심하게 나타난다.

하루 종일 우울한 기분이나 슬픈 일에 눈물을 자주 흘리거나 흥미와 즐거움을 상실할 때, 피로감이나 무력감이 심한 경우, 빈번한 불면이나 과수면을 겪고, 매번 폭식하거나 아예 입맛을 잃어 식음을 끊는 등의 증상이 나타나면 우울증이 아닌지 의심해 볼 필요가 있다,

우리는 흔히 우울증을 우울감이나 고독감과 혼동하는 경우가 있는데, 마음의 감기와 같이 쉽게 걸리고 수월하게 치료되는 경우도 있지만 심한 경우에는 회복이 어렵고 위험할 수도 있으니 전문가의 집중적인 치료가 필요하다.

우울증과 우울감과 고독감을 대비해 보며 그 차이점을 명확히 알아보자. 우울증은 감정이나 사고뿐만 아니라 이에 수반되는 신체적 증상이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우울감은 직접적인 원인이 분명히 인지되어 상황이 전환되면 사라지는 일시적인 감정이다. 이들과 달리 고독감은 자기 의지와 선택에 의해 홀로 있는 상태라 구분할 수 있다.

우울증을 앓는 사람의 표현에 의하면 깊은 늪 속으로 빠져 들어가는, 아주 기분 나쁜 느낌을 호소하고 본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워하는 사람을 많이 볼 수 있다. 이때 주위 분들 특히, 가족들의 따뜻함이 절실히 필요하다.

우울은 만병의 원인이 되고 불면증, 노화, 치매를 촉진시키도 한다. 따라서, 평소에 우울을 미리 예방해야 한다. 왜냐하면, 우울은 전염이 되기 때문이다. 귀여운 손자, 손녀뿐만이 아니라 소중한 주위 사람에게 우울을 전염시키면 안 되니까, 항상 본인의 건강한 정신을 위해 감정을 잘 관리하고 조절하는 것이 필요하다.

한의학적 관점인 음양적 사고로 살펴보면, 매사는 항상 양면을 지니는데, 절대적인 양이나 음은 존재할 수가 없다. 지금 힘들고 눈앞이 컴컴할 정도로 막막하더라도 또다시 그 어둠을 밀고 해가 뜨고, 반대로 아무리 젊고 강하고 잘나가도 멀지 않아 쇠퇴의 길이 온다는 것이다. 음양적인 유연한 사고를 가지면 정신적 육체적으로 힘든 고비에 도움이 될 것 같아 환자에게 음양의 이치와 사고의 유연함에 대해 자주 이야기한다. 오히려 사람에 따라서는

누구든지 겪을 수 있는 우울증
가족 등 주위사람 관심도 중요
주위 기분 좋게하는 부처님 되자

우울증을 잘 다스려서 자기의 삶에 더 큰 성장의 계기로 삼기도 한다.

체질에 따라 우울에 대처하는 방식도 다를 수 있다. 외부에서 오는 강한 충격이나 만성적인 스트레스에도 음적인 체질은 풀이 바람이 지나가듯이 다시 제자리를 찾는다. 하지만 양적인 체질은 강건하여 웬만하면 잘 스러지지 않지만 한 번 크게 무너지면 다시 일어나기가 어렵다. 물론 사람의 체질에 대해 단순히 양단으로 명확히 가를 순 없다. 음과 양이 어떻게 조합하느냐에 의해 다양한 반응이 나타난다.

우리의 인체는 음양의 편차에 의해서, 기와 혈이 끊임없이 순환되고, 순환에 장애가 생기면 질병이 오는 것이다. 임상적으로 우울은 허증(虛症)이라는 신체적 증상으로 볼 수 있는데, 최근에 연구 실험을 통해 우울증 모델의 운동 시간 증가, 혈액과 뇌 단백질에 미치는 영향 등에서 동국경옥고가 항우울 효과가 있음을 'Ethnopharmacology'이라는 국제 의학술 저널에 논문으로 발표했다. 동국 경옥고는 홍삼, 생지황, 복령, 꿀을 함께 넣어 72시간 동안 중탕하여 끓인 후 하루 동안 식히고 그 다음에 24시간 중탕을 하는 과정을 거쳐 제조했다. 이번 논문을 통해 경옥고가 항우울 효과뿐만 아니라 신경보호, 항산화 및 항염증에도 효능이 있음을 밝혔다.

주위에 안타까운 소식을 접할 때가 있다. 우울이라는 것이 개인의 문제를 넘어서 가족이나 사회의 문제로 커질 위험이 도사리고 있어 늘 경계해야 한다.

우울은 불교의 삼독(三毒)에서 살펴보면, 화내는 마음의 일부인 질투하는 마음과 나태하고 산만한 마음으로 이루어진 것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이를 치료하기 위해 사무량심(四無量心) 즉, 자애와 사랑하는 마음(慈), 연민과 보살피는 마음(悲), 기쁨을 더불어 하는 마음(喜), 수용과 평정의 마음(捨)을 제안하고 있다. 그러나 이것은 한 번에 갑자기 되는 것이 아니라. 미리 준비하며 꾸준히 실천하는 연습이 필요하다.

매 순간 자기를 스스로 살펴서 인생의 방향을 점검하고 수시로 자기와의 대화를 통해 자신을 보듬는 것을 두고 우리 선인들은 '돌이켜 살핌(반성:反省)'이라 일컬었다.

예전에 양산 통도사에서 연수를 받을 때 스님이 '작은 부처'에 대해 하신 말씀이 떠오른다. 부처님같이 위대한 존재는 아니더라도 부처님 닮은 마음을 가진 사람이 작은 부처이며, 어려움을 겪는 사람에게 도움의 손길이 필요할 때, 따뜻하게 기꺼이 그 손을 잡아 줄 수 있는 우리가 작은 부처라고 했다. 지금이야말로 우리 주위에 기분을 좋게 하는 작은 부처가 필요한 때가 아닌가 생각이 든다.



구병수 동국대일산한방병원
한방신경정신과 교수

"세상에 단 하나뿐인 특별한 이야기, 바로 당신의 삶입니다"

삶은 스쳐 가는 순간들의 연속이지만, 그 안에는 잊혀서는 안 될 소중한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법보신문은 스님과 불자들의 수행 여정, 지혜의 말씀, 사찰의 역사와 전통을 한 권의 책으로 담아냅니다.
당신의 삶은 누군가에게 울림이 되고, 또 다른 이에게 길이 됩니다. 기록되지 않은 기억은 사라지지만, 글로 남긴 이야기는 세대를 넘어 살아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스님과 불자들의 삶은 현대 불교사의 소중하고 생생한 기록입니다.
법보신문은 깊은 존경과 정성으로 당신의 이야기를 기록합니다. 그것이 잊히지 않고, 누군가의 마음에 깊이 머물도록. 지금, 당신의 이야기를 세상에 전하세요. 당신의 삶이 곧 가장 빛나는 가르침입니다.

법보신문 다르마기록문화연구소

- 스님과 불자를 잘 아는 전문 기획사
- 불교 이해가 깊은 전문 필진 확보
- 기획부터 책자 제작까지 원스톱 시스템
- 종이·전자출판 올인원(all in one) 서비스
- 고객 수요와 주문에 맞춘 제작 시스템



법보신문 다르마기록문화연구소 | 서울시 종로구 종로19 르메이에르 종로타운 A동 1501호 | 문의 ☎ 070-4707-4965

전법 일기

불교 1도 몰랐던 불린이 팔공산 파계사로 출가하다

팔공산 파계사는 필자의 출가 사찰이다. 파계사 행자 시절 에피소드 이야기를 담아본다.

1998년 7월 무더웠던 어느 날 아침, 부모님께 허락을 받고 출가길에 나섰다. 여름해가 저물어가고 어둠이 찾아드는 팔공산 파계사에 도착해서 처음으로 만났던 스님에게 말을 물었다. "저기요. 여기가 파계사가 맞나요?"

불교 예법도 용어도 몰랐기에 했던 무지한 질문이었다. 이에 스님은 필자를 훑어보고는 "어떻게 오셨나요"라고 되물었다. 이에 필자는 "출가하러 왔습니다"라고 답했다. 이에 스님은 행자 한 명을 소개해줬다. 스님이 소개해 준 김 행자는 간단한 불교용어와 삼배하는 법 등 불교 예절을 지도해줬다. 교육을 마치자 김 행자는 주지스님 방으로 필자를 인도했다. 필자는 배운대로 주지스님께 삼배를 올리고 무릎을 꿇고 앉았다. 이내 스님은 필자에게 "오늘부터 7일 동안 매일 3000배하라"고 지시하셨다.

난생 처음으로 해본 3000배는 농사일보다 더 힘들었다. 하지만 오로지 출가할 생각으로 7일 동안 3000배를 마쳤다. 파계사 진동루에서 삭발 의식을 가졌고, 삭발 후에는 팔공산 파계사의 행자 생활이 시작되었다.

어느새 나도 모르게 고된 행자생활에 익숙해져 가고 있었다. 파계사는 계율(戒律)을 엄격히 지키는 도량이었다. 큰스님께서도 항상 행자들에게 청정계율에 중요성을 일러 주시며, 게으름 없이 수행정진 하라고 누누이 당부를 하셨다. "행자생활 하면서 한 번이라도 계율을 어기면 고향집으로 보낸다"고 으름장까지 놓으셨다.

하지만 절에 산다고 하루아침에 세속의 습관이 순식간에 없어질리 만무했다. 행자들이 벌이는 의외의 사건과 실수는 늘 큰스님을 놀라게 했지만 웃음과 용서로 덮어주셨다.

어느 날 오후 시간이었다. 배가 너무나 고파서 공양주 보살님께 라면 2개만 끓여 달라고 부탁했다. 공양주 보살님은 힘들게 행자 생활을 하는 필자가 안쓰러웠는지 흔쾌히 라면을 끓여줬다. 사중스님들 모르게 라면을 먹어야 하니 아궁이 근처로 가서 맛있게 라면을 먹고 있었다. 그런데 어디선가 주지스님 목소리가 들려왔다. "정 행자, 어디 있는가."

행여 주지스님께 들킬까봐 숨도 참고 부동자세로 있었다. 그 상태로 주지스님이 가기만을 기다렸다. 얼마간의 시간이 흐르고 인기척이 없자 먹다 남은 라면을 꿋꿋하게 다 먹고 빈 그릇 들고 밖으로 나오는데 필자는 소스라치게 놀랄 수밖에 없었다. 주지스님이 지키고 서 있었기 때문이다.

"정 행자! 니 여기서 뭐하노!" 당장 불호령이 떨어졌다. 순간 '이제 고향집으로 가야겠구'라는 생각이 들었다. 어쩔 수 없이 이실직고하기로 했다. 주지스님에게 배가 고파서 라면을 끓여 먹었다고 하자 스님은 법당에서 3000배하며 참회할 것을 명했다. 이 일을 계기로 필자는 더 하심하며 몸과 마음을 숙이는 게 됐다.

비록 혼은 났지만 청정계율이 시퍼렇게 살아 있던 파계사에서 먹었던 라면 맛은 지금도 잊지 못한다. 오늘도 부처님 품안에서 머물 수 있어 참 행복하다.



명진 스님
파계사 총무



김권태의 **요즘 학교는** ⑬ 가장 큰 선물

내적동기와 자존감

아내가 외출한 주말 오후, 엄마가 금세 그리운 아기가 칭얼대기 시작한다. 자이언트 판다 같이 큰 32개월 된 아기를 침대에 눕히고 팔베개를 하며 동화책을 읽어준다. 주인공 코알라가 조랑말을 타고 신나게 달리다, 갑자기 멈춰 선 조랑말을 어쩌지 못해 당황한다. 이때 그간 주인공이 조그맣다고 무시했던 햄스터가 당근으로 조랑말을 유도해내고, 그런 햄스터의 재치를 칭찬하며 둘이 신나게 조랑말을 타고 노는 이야기다.

매너리즘에 빠질 때마다 우리 아기가 사는 세상을 생각해 본다. 어떤 세상을 물려줘야 하나, 그런 고민이 학교현장에서의 수업이 된다. 나는 우리 아이가 내적으로 자존감이 튼실한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 내가 생각하는 자존감이란 삶의 모든 경험을 가치 있는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태도를 말한다. 마치 고마움이라는 말처럼 자기가 받은 사랑을 발견해서 그것을 준 상대에게 감사한 마음을 표하고, 또 그런 사랑을 받을 만한 존귀한 사람으로 스스로 자부심을 갖는 것 말이다. 바람에 흔들리는 잎사귀를 보며, "잎사귀야 고마워! 처음 보는 내게 반갑게 손짓을 해줘"라고 말할 수 있는 힘 말이다.

내가 생각하는 자존감이란 '컵에 물이 반이나 남았네'식의 낙관이 아니다. 반만 남은 물과 그 위의 빈자리를 함께 보는, 문제를 있는 그대로 볼 수 있는 힘을 말한다. 물만 보는 낙관은 막연한 기대로 문제를 직시하지 못하게 하고, 빈자리만 보는 비관은 문제를 크게 부풀려 희망 속에서 절망을 찾는 꼴이기 때문이다. 물과 빈자리를 함께 볼 때만 그 빈자리가 희망과 설렘이 될 수 있다.

학위, 재물 등 외적동기가 아닌
'이 일을 통해 멋진 사람 되겠다'
내적동기 있어야 자존감 고양돼

물이 온전한 에너지가 되고, 빈자리가 온전한 가능성의 공간으로 거듭날 수 있는 것이다.

달리지 않는 조랑말을 당근으로 꼬시는 꼬마 햄스터를 생각한다. 당근은 이리로 오면 주겠다는 보상이기도 하지만, 엄밀히 말하자면 동기 그 자체다. 당근이 외적동기가 될 때 우리는 당근의 노예가 되겠지만, 당근이 내적동기가 될 때는 그 자체로 그 사람의 품격이 된다. 학위, 자격증, 돈의 유무로 평가하는 외적동기가 아니라, '나는 이 일을 통해 더 멋진 사람이 될 거야, 나는 이 일을 통해 더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사람이 될 거야'하는 내적동기 말이다. 이 내적동기가 바로 내가 말하고자 하는 자존감이다.

학기 초 칠판에 크게 글씨를 쓰고 함께 외워보는 시가 있다.

"현명한 사람은 모든 것에서 배우고, 강한 사람은 자기 자신을 이기며, 진짜 부자는 만족할 줄 알고, 품격 있는 사람은 밖으로 구함이 없다.(賢者好學 强者克己 富者知足 格者無求)"

현명한 사람은 아이큐가 높은 게 아니라 모든 것에서 배울 줄 아는 사람이고, 강한 사람은 남을 이기는 게 아니라 자기가 정한 목표를 포기하지 않고 이겨내는 사람이며, 진짜 부자는 수백억 자산가가 아니라 가진 것에 만족할 줄 아는 사람이고, 품격 있는 사람은 어떤 문제에 대해 남 탓만 하는 게 아니라 먼저 자기를 들여다볼 줄 아는 사람이다. 그래야 모든 사람이 현명하고, 강하고, 부자이고, 품격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다. 부모로서, 교사로서 우리 아이들에게 주고 싶은 나의 가장 큰 선물이다.

〈동국대사범대학부속중학교 교사〉

기자칼럼

빈곤이 죄가 돼야 하는가

2014년 2월, 근처 놀이공원 식당에서 일하며 생계를 잇고 있던 60세 어머니와 고혈압과 당뇨로 고생하던 35세 큰 딸, 만화가 지망생으로 알바로 생활을 책임졌던 32세 작은딸은 번개탄을 피워 스스로 생을 마감했다. 일명 '송파 세모녀 자살사건'으로 알려졌던 이 사건은 한국 복지제도의 허점을 드러낸 사건이었다.

무엇보다 이들은 없는 돈을 쪼개고 쪼개 살면서도 월세와 공과금을 절대로 밀리지 않고 살았던, 어디에나 있는 선량한 소시민들이었다.

송파 세 모녀가 유명을 달리한지 11년이 지났다. 경제는 성장했고, 사람들의 삶은 윤택해졌다. 하지만 한국 전체 인구 중 15%, 노인인구 중 40%가 빈곤을 경험하고, 소득상위 10%와 하위 10%의 격차가 2억원에 달한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많지 않다. 이런 문제가 수면 위로 드러나지 않는 이유는 '빈곤·가난·장애'를 사회 한구석으로 격리시켜야 할 대상으로 보기 때문이다.

빈곤층에 대한 사회복지 문제를 발생했을 경우 대부분 '제도를 활용하지 못해서'라는 진단을 내놓는다. 하지만 그렇게 발굴되는 위기가정 중 공적 복지로 연결되는 비중은 약 3%에 불과하다. 빈곤층의 죽음을 막기 위해서는 복지정책과 함께 노동과 주거, 의료서비스와 같은 사회정책 변화도 함께 이뤄져야 한다는 게 현장 활동가들의 주장이다.

사회에 이웃에게 피해를 주지 않고 어떻게 생을 이어가려 했던 세 모녀는 유서에 이같이 썼다. '마지막 집세와 공과금입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가난과 장애로 인해 생을 스스로 마감해야 했던 이들이 죄송해야할 이유가 어디에 있어야 했는가. 도리어 그들을 격리하며 소외시켰던 사회가 그들에게 미안함을 가져야 하지 않았을까. 2월 25일 열린 송파 세 모녀 11주기 추모제에서 추모의식을 진행한 조계종 사회노동위원스님들의 염불소리가 유독 구슬프게 들렸던 이유도 여기에 있다. 합장하고 기도한다.

'가난과 장애 때문에 유명을 달리한 모든 분들의 극락왕생을 기원합니다.'



신중일 편집국 부국장

현밀 스님의 **뭉밀이 佛스타툰**



한국불교 대표방송 BTN



BTN 불교TV 영상포교 30년

BTN불교TV는 한국불교의 대중화와 청년포교를 위해
부처님 말씀과 대덕스님들의 귀한 법문을 전 세계로 송출하고 있습니다.
매스미디어 시대에 맞는 다양한 컨텐츠로 한국불교 중흥을 위해
앞서 뛰겠습니다.
아직 BTN 붓다회 회원이 아니시라면 지금 당장 가입하시어
BTN불교TV를 응원해 주십시오.
BTN붓다회 회원에게는 다양한 혜택과 특전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가입문의 1855-0108

BTN 채널안내 | GENIE TV 233번 Btv 295번 U+tv 275번 skylife 181번 지역 케이블 문의 : 02)3270-3300

이 봄으로 다시 한 걸음

현불논단



법장 스님
해인사 승가대학 학감

'다사다난(多事多難)'이라는 표현이 딱 맞는 연말과 연초가 어느새 지나가고, 이제 한 계절이 바뀌려고 한다. 겨울의 시작에 그다지 춥지 않은 날씨로 여유를 부리며 시작한 지난 계절은, 갑작스레 사람에 의한 추위가 밀어닥치며 모든 이들이 마음을 떨며 조심스레 하루하루를 보냈다. 그리고 이제 그토록 추웠고 언제 지나가나 걱정 가득했던 이 겨울의 끝자락에 이르러 봄을 기다리고 있다.

그러나 새봄을 맞이하기 위해서는 그 자리에 있을 우리의 마음가짐이 중요하다. '봄 여름 가을 겨울 그리고 봄'이라는 영화가 있다. 사계절을 보내고 다시금 맞이하는 '이 봄'은 지난 '그 봄'이 아니다. 매년 이맘때면 당연히 봄이 찾아왔으나, 우리가 살아온 여러 봄들 중에 단 한 번도 같은 봄은 없었다.

지난 연말 늦은 저녁에 들은 한 소식은 우리의 아침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를 일깨워졌고, 그 아침을 미처 느끼기도 전에 마지막 인사조차 하지 못한 채 소중한 가족과 인연들을 떠나보내며 이 하루의 삶이 더욱 간절하게 와닿았다. 돌이켜보면 이렇게 많은 일과 많은 어려움이 있던 적이 있었나 싶을 정도로 그것들을 정리하기조차 버겁다.

그래도 시간은 다시금 흘러 우리의 앞에 새 계절을 가져오려 한다. 이 계절은 그 계절과 같이 보내서는 안 된다. 나의 시간이고, 나의 하루이고, 나의 삶이다. 그리고 이 봄을 나의 봄으로 하여 새로운 한 걸음을 내디뎌야 한다.

겨울이 지나면 오는 봄이라도
새롭게 다가온 '이 봄'임 알고
서원 담아 자기자리로 가져오자

'진일보(進一步)'라는 불교의 가르침이 있다. 일반적으로 무언가가 발전했을 때 쓰는 표현이지만, 본래는 자신이 배우고 수행하는 길 위에서 자신의 한 걸음을 나아가야 한다는 의미이다. 즉, 우리의 불교는 석가모니 부처님의 가르침을 의지처로 삼아 수행을 한다. 그를 통해 깨달음을 추구하지만, 석가모니 부처님의 가르침으로는 석가모니 부처님의 법을 깨닫게 된다. 이것이 무언가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다. 다만 불교에서 추구하는 것은 자신 안의 불성을 현현(顯現)하여 그 자신이 바로 부처가 되는 것이다.

우리는 윤회의 굴레 속에서 연기적 삶을 살아간다. 육도윤회라는 여섯 갈림길의 인생이지만, 그 안에서 연기라는 원인과 결과의 이어짐이 공존하는 삶을 살고 있는 것이다. 당연한 하루이고 당연한 계절이라 여기며 이번에도 이 봄을 맞이한다면 그것은 업(業)에 의해 그저 그렇게 맞이한 시절에 불과하다. 그러나 이 봄이 오는 것을 알고 자신의 서원대로 봄을 맞이한다면 이것은 법(法)에 의해 시절인연을 이끌고 와 자신의 봄을 개현(開顯)한 것이 된다.

임제 스님의 '수처작주 입처개진(隨處作主 立處皆眞)'의 가르침과 같이, "자신이 머무는 자리의 주인이 된다면, 그 자리가 바로 참된 곳"이다. 겨울이 지나면 당연히 찾아오는 봄이라도, 그것이 지난 '그 봄'이 아닌 새롭게 다가온 '이 봄'이라는 것을 알고, 서원을 담아 자신이 머무는 자리로 이끌어 온다면, 이번 봄은 우리에게 가장 특별한 계절이며 그 어느 때보다 환희로운 시작의 봄이 될 것이다.

봄에 얼었던 땅이 녹아 우리의 발길을 이끌고, 봄꽃이 곳곳에 피어나 우리의 눈길을 잡고, 봄의 햇살이 우리의 온기를 북돋아 따스함을 주며, 봄의 내음이 이제 우리에게 봄을 알릴 것이다. 이 봄으로 한 걸음 내디뎌 그 자리의 우리를 발견하고, 소중한 인연들과 이 시절을 함께 하며 행복한 웃음을 짓는 봄날의 완벽한 하루를 보내자.

불안중독시대와 중도 명상

세간과 출세간



방영준
성신여대 명예교수

지금 앞을 가늠할 수 없는 격랑의 파고가 지구촌 곳곳에서 쓰나미처럼 몰려오고 있다. 지구별의 많은 사람은 불안과 걱정의 늪에 빠져 있다. 불안은 각종 위험에 대비하여 자신의 생명을 보호하고 유지하기 위한 방어적 본능이다. 심리학 연구에 따르면 어떤 대상을 긍정적으로 보는 것보다 부정적으로 보는 비율이 훨씬 높고, 긍정적 소문보다 부정적 소문을 믿는 경우가 많다.

현대 문명사회는 '위험사회'로 지칭되고 있다. 현대인의 삶을 언제 폭발할지 모르는 문명의 화산 위에서 사는 모습으로 비유된다. 그만큼 오늘을 같이 사는 사람들은 불안의 늪에서 사는 존재이다. 그런데 우리 사회는 참으로 안타깝고 황당한 현실에 직면하고 있다. 불안과 부정적 사고를 돈벌이의 상품으로 팔고 있다. 다양한 대중 매체가 등장하면서 시청률과 조회 수를 높이기 위해 광분하고 있다. 인간이 본능적으로 가지고 있는 불안과 부정적 사고를 자극하기 위해 거짓 뉴스와 미움과 증오를 유발하는 폭력적 언어를 통해 장사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개인의 차원을 넘어 집단의 차원으로 확대되고 있다.

불안은 인간 존재의 한계 상황을 극복하고 생존하기 위한 본능으로 없애 수도 없고, 또한 바람직하지도 않다. 한 심리학 연구에 의하면 불안의

대중매체, 불안 조장해 돈벌이
부정적 사고들로 사회 잠식 중
중도적 사고와 사유로 살아가야

파고 속에서 이를 극복한 사람의 행복도가 낙관적이고 불안이 적은 사람보다 높다는 통계도 있다. 잔잔한 바다를 항해하는 선장보다 격랑의 바다를 헤쳐 나가는 선장의 삶이 의미가 있는 것이니라.

새삼 붓다의 가르침의 핵심인 사성제의 첫 명제인 고성제(苦聖諦)가 떠오른다. 고성제는 인간 존재의 한계성(Dukka)을 밝히는 것이다. 붓다는 인간이 고해의 격랑 속에서 침몰되지 말고 저 '멋진 섬'에 도착하는 지혜를 가르쳤다. 불안과 걱정을 치유하는 책이 서구에서 많이 출판되고 있고, 우리나라에도 번역 출간되어 소개되고 있다. 그런데 그 치유 방법이 익숙하다. 바로 팔정도의 정견(正見), 정념(正念), 정정(正定), 정어(正語)의 내용이 주류를 이룬다. 서구의 체계화된 인문사회과학의 이론과 다양한 임상사례와 접목하여 팔정도의 치유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연기법을 체감하고 중도의 길을 구체적으로 실천하는 것이 팔정도이다. "이 또한 지나가리라"는 바로 고정된 실체를 부인하는 연기법의 사유이다. 한계상황의 존재인 인간이 불안과잉시대에서 불안에 중독되지 않고 불안을 안으면서 행복한 삶을 지향하는 것이 바로 중도의 길이다. 요즘 '선명상'이 강조되고 있다. 필자는 선명상의 핵심이 바로 '중도 명상'이라고 생각한다. 한국불교는 긴 여사 속에서 불안 중독 사회를 치유하는 많은 광맥을 가지고 있다. 이 광맥을 채굴하여 실용적이고 접근하기 쉽게 가공하여 불안 중독을 치유하는 건강기기가 절실하다. 이를 어쩌랴. 어느 시대보다 붓다의 지혜가 절실한 세상에 우리는 살고 있으니.

社 說

무비 스님 '법보장' 보급 불사에 부쳐

'한국불교 대강백' 여천 무비 대종사의 모든 저작과 강의 등을 USB(이동식 저장 장치)에 담아 보급하는 디지털 법공양 불사가 진행된다는 반가운 소식이다. 무비 스님이 평생 동안 부처님 법을 전하기 위해서 쓴 저서와 강의 등을 모두 데이터베이스(DB)화하고 이를 USB에 담아 대중들에게 무료로 전하는 법공양 사업을 추진한다는 것이다.

'법의 보배창고'라는 의미를 담은 '법보장(法寶藏)'이라고 명명된 USB에는 법해(法海)에서 대강백 무비 스님이 길어 올린 부처님 가르침의 정수들과 스님의 발자취가 고스란히 담겼다.

무비 스님의 가르침이 담긴 '법보장 USB'는 4월 3~6일 열리는 서울국제불교박람회에서 1만개가 법공양된다. 이후에는 다음카페 '염화실'의 법공양란에 주소를 기입하면 누구에게나 '법보장 USB'를 전해줄 것이라고 한다.

무비 스님은 "위대한 부처님 법에는 저작권이 없다"며 "'법보장' USB를 통해 위대한 부처님 법을 모든 중생들이 알아갔으면 한다"고 밝혔다.

〈초발심자경문〉 '자경문' 중에는 '인생난득(人生難得)이요, 불법난봉(佛法難逢)이라'는 구절이 있다. '사람 몸 받아 태어나기 어렵고, 부처님 법 만나기 어렵다'라는 이 경구는 부처님 법을 만나기 위해서는 희유한 인연이 있어야 함을 말해주고 있다. 만나기 어려운 부처님 법을 만날 수 있도록 이 시대의 대강백이 자신의 보배창고를 활짝 열었다. 공부인이라면 창고의 한 켠이라도 보고 와야 하지 않겠는가.

진관사 수륙재, 유네스코 등재 기대한다

지난 2024년 10월 19일 서울 진관사 국행수륙재 회향식이 봉행됐다. 이날 회향식에서 진관사는 국행수륙재를 유네스코 인류무형유산 등재를 추진하겠다고 선언해 불교계 안팎의 주목을 받았다. 임돈희 진관사 수륙재 세계무형유산등재 추진위원회 공동위원장(동국대 석좌교수)은 진관사 대중을 대표해 발표한 선언문에서 "지구촌화하는 세상에서 진관사 국행수륙대재는 대한민국을 넘어 전쟁과 재해로 고통 받고 상처받는 인류를 위해 축제를 행하고자 한다. 이에 진관사 수륙대재를 유네스코 인류무형유산으로 등재해 위의 임무를 완성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선언 이후 4개월이 지난 2월 27일 진관사는 '수륙재와 인류무형유산의 공동체성'을 주제로 '제1회 유네스코 인류무형유산 등재를 위한 학술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발제자들은 의례에 담긴 공동체적 가치와 특징에 주목한 것으로 알려졌다.

무엇보다 "의례를 통해 자비심과 이타심을 새기고 실천하며 그 마음이 자신과 중생에게 더 큰 공덕으로 확산해 지혜롭고 자비로운 문명을 건설해나갈 수 있다는 가르침을 담고 있다"(구미래)는 주장은 파편화되고 개인화되는 현대사회에서 수륙재라는 의식이 왜 필요한지를 인식하게 한다.

국가무형유산인 진관사 국행수륙재는 선왕선후의 명복과 백성들의 안녕을 기원한 진관사 국행수륙재는 공동체에 기반을 두고 있다. 진관사 국행수륙재의 유네스코 인류무형유산 등재를 기원한다.

현대불교 불교의 생활화 · 현대화 · 세계화 1994년 10월 15일 창간
발행인 : 혜도 스님 대표 겸 편집인 : 한명우 인쇄인 : 배성한
(우)03131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 6길 36, 606호 (운니동, 월드오피스텔) 대표전화(02)2004-8200 / 대표팩스(02)737-0698
편집국 02)2004-8257 회사홈 현불닷컴 www.hyunbul.com
광고국 (02)2004-8204 실시간 뉴스 현불뉴스 www.hyunbulnews.com
FAX (02)737-0698 쇼핑몰 마하몰 www.mahamall.co.kr
현대불교 지사안내
부 산 지 사 : 010-5640-8883 광주전남지사 : 010-2629-1508
충 청 지 사 : 010-8341-0560 전 북 지 사 : 010-8642-7733
경 남 지 사 : 010-3860-7008
구독신청 · 배달안내 (02)2004-8212 구독료 : 1개월 5천원
등록일:2007년 3월 9일 · 등록번호:서울다 07641(주간)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합니다

종 단 공 고

재)대한불교일붕선교종

종도 모집 안내

재단법인 대한불교 일붕선교종은 1988년 일붕 서경보 스님을 개조로 서울 일붕선원에서 창종된 한국불교 대표 종단입니다. 재단법인으로서 일붕선교종은 국태안민과 남북 평화통일 기원 만등불사, 국군장병 및 사회복지시설 위문 및 지원사업, 종도단합 및 국운 융창기원법회 등 각종 법회와 사회사업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사회 곳곳에서 부처님 가르침을 함께 전할 종도를 모집합니다. 02-991-8175

불기 2569년(2025) 3월 5일

일붕선교종 총무원장 혜일 스님

대한불교삼론종

종도 모집 안내

대한불교삼론종은 고구려 삼론종의 맥을 이어가고 있는 한국불교 대표 종단입니다. 제6세 종정 혜승 스님과 제10대 총무원장 해불 스님을 중심으로 2023년 삼론불교대학을 개교하고 전법 포교에 나설 승단 양성에 역주하고 있으며, 중국 삼론종 발원지 및 사찰들과 결연을 맺고 자비실천에도 앞장서고 있습니다. 전법 포교에 함께 나설 종도를 모집합니다.

불기 2569년(2025) 3월 5일

대한불교삼론종 총무원장 남륜 스님

사)여래불교조계종

종도 모집 안내

사단법인 여래불교조계종은 시대가 요구하는 올바른 불교 모습을 정립하고자 공익법인 여래불교조계종을 창종하고 활발한 활동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불법홍포에 앞장설 전국 종도 스님을 모집하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010-6219-4757

불기 2569년(2025) 3월 5일

여래불교조계종 총무원장 덕평 스님

2025 신상

어싱 Earthing 슈즈 특별전

어싱, "지구 표면 존재 에너지에 우리 몸을 연결하는 것!"

어싱이란? 어싱은 야외에서 맨발로 걷거나 앉아 있고 누워 있으며 대지의 자연적인 치유 에너지를 가져오는 것입니다.
어싱의 창시자 'Clinton Ober'는 맨발로 땅을 밟고 걷는 것에 인체를 회복시키는 무언가가 있음을 깨닫고
10여 년 관찰과 실험 끝에 '어싱'(Earthing) 프로그램을 만들어 미국서 센세이션을 일으켰습니다.어싱의 가장 쉬운 방법은 '맨발걷기'입니다.
하지만 아파트 주거문화가 보편화된 현대인들은 나무가 자라는 높이(4층) 이상에 살기에 대지의 자연에너지를 받기 어렵습니다.
그렇기에 더욱 맨발로 땅을 밟는 것이 필요합니다. 황톳길, 숲길, 모래사장길을 맨발로 걷는 것이 어싱입니다.
어싱은 최소 30분 이상 하여야 하며 건강한 사람은 주 4회, 건강을 위해서는 3시간 이상 꾸준히 맨발걷기를 하셔야 합니다.
어싱 제품은 이러한 어싱을 보다 편리하게 할 수 있도록 돕는 제품입니다.
땅의 음이온이 전달되는 접지기능을 넣고 맨발걷기와 비슷한 효과를 주는 신발, 그리고 매트는 생활 속에서 자연스럽게 어싱을 하게 합니다.

"방한 부츠로 겨울 어싱을 편하게 즐기자~"

어싱 '겨울용' 방한 부츠

어싱 방한 부츠는
어싱슈즈의 특징인 걷는 느낌을 최대한 살리면서,
보온 소재를 사용하여 따스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부드러운 소재의 천, 가죽 그리고 고무 밑창입니다.
한 겨울에도 따뜻하게 걸으면서 어싱할 수 있습니다.

소재 : 가죽+천+도전특수 고무밑창

~~120,000원~~ ▶ 판매가 80,000원
※ 사은품 : 어싱 양말



좋은 신발은 자연을 맨발로 걷는
인간 본연의 권리를 지켜주는 것~!

1. 비바미 신발은 밑창이 발바닥 전체에 균등하게 체중이 배분되어 발의 압박을 분산,
2. 발바닥 혈관을 자극해 피가 하체에 쏠리는 것을 줄여주면서 혈액 순환을 개선,
3. 이를 통하여 신진대사를 촉진하고,
4. 발바닥 근육을 모두 사용하고, 발가락 뼈의 정형화를 촉진합니다.

이처럼 최대한 신발의 기능을 제거하여 신발로 인한 고통을 없애는 것이 비바미 신발의 특징입니다.

"산양 가죽신발로 겨울철 맨발 걷기를"

어싱 샤모아 슈즈

비바미에서 맨발 걷기 신발에 이어 접지신발을 개발하였습니다.

어싱 샤모아를 새로 출시합니다.

샤모아 (chamois) 는 다공성 가죽의 일종으로, 유럽의 샤모아 산양의 가죽에서 유래된 것.
오늘날에는 지역 구별없이 산양의 가죽을 일반적으로 말합니다. 매우 유연하고, 의복용, 장갑용 사용되기도 하며, 세탁해도 유연성이 변화되지 않고 더운 여름에도 땀이 덜 차는 장점이 있다.



판매가 80,000원

어싱슈즈

특판가 65,000원
(무료배송)

※ 사은품 : 어싱 양말


베이지 블랙

어싱 트레킹화

특판가 65,000원 (무료배송)

※ 사은품 : 어싱 양말
※ 소재 : 도전특수고무 밑창 + 네오프렌(잠수복 재질)



"길과 내가 하나가 된다!"
行禪 전문 신발

New
캔바스 수행화

특판가 : 45,000원 (무료배송)
(사은품 : 무압박 양말 증정)

수행화



- 발을 통해 자연이 온몸으로 느껴져 행선에 적합합니다.
- 천연 지압 효과를 통해 건강까지 챙길 수 있습니다.
- 발 볼이 넓어 다른 신발 대비 발가락 움직임이 편합니다.
- 승복과 일치하는 색상으로 언제 어디서나 부담이 없습니다.

· 색 상 : 멜란지그레이 · 사이즈 : 233~280mm
· 특 징 : 발 볼과 발등이 넓은 편안한 맨발같은 신발
밑창은 짙은 회색으로하여 위, 아래 조화를 추구하여 제작한 수행화
· 소 재 : 캔바스(내부에 고무로 내피를 덧되 방풍, 방수가 되는 4계절용)

주문은 마하몰! 1688-9099 / (02)732-1520 인터넷 주문 www.mahamall.co.kr 신한은행 100-036-429749 (예금주 : 현대불교신문사)